

군포시 전설·설화·민담 조사연구 용역 보고서

군포시 전설·설화·민담 조사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 연구소



군포시 전설·설화·민담 조사연구 용역 보고서

군포시 군포시 전설·설화·민담 조사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군포시 · 군포문화원

군포시 전설·설화·민담 조사 보고서 재발간
군포시 전설·설화·민담

초판 2004.12.31

재판 2008.12.12

발행 군포시·군포문화원

435-818 경기도 군포시 당동 871-1

편집 조병로(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인쇄 미창기획

군포시 금정동 718-10 T.031)458-3366 F.031)451-3327

비매품

〈군포시 전설.설화.민담 조사 민담〉 자료집 재 발간에 즈음하여..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꽃)

군포시 군포 전설·설화·민담은 그저 글자가 모인 자료집에 불가하였습니다.
 그 ‘군포설화·민담·전설’ 이 이야기가 되어 우리에게 불러졌을 때
 그 설화는 ‘아름다운 문화보석’ 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군포설화가 <문화 예술적 창작, 문화예술교육> 등에 끼칠 영향과 가치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2008년 지금 ...

2004년도에 『조사, 발굴』되어 준비되었던 이 자료집은 우리에게
 문화예술적 상상력과 창작을 위해 ‘마중물’ 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설화민담이 ‘그리스 로마신화’ 같은 만화책이 될 수 있다는
 발상과 상상력을 가지신 모든 분들이 인쇄매체로, 영상으로, 뮤지컬로,
 영화나, 음악으로 마당극이나, 연극으로 창작하여 가꾸어가는데 한 바가지의 마중물처럼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철학, 사명, 공공의 문화예술> 이와 같음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 우리동네 사람에게,
 우리나라로,
 우리 세계로 이야기가 되어
 ‘멀리 가는 향기’ 처럼 퍼져 나가길 기대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군포문화원장 송 윤 석

군포시 전설·설화·민담 조사보고서 재 발간에 즈음하여..

우리 지역에 구전되어 오던 전설·설화·민담을 채록한 조사보고서를 재 발간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대는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이고, 문화는 지역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이야기는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 삶의 모습들이 농축된 소중한 가치 있는 문화자산입니다.

채록된 전설은 사실에 가까운 지명유래담이 많았으며, 지명유래담에는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일반적인 유형과 별난 유형의 이야기가 담겨졌고, 설화는 이야기가 다양하게 갖추어 졌으며, 내용의 깊이와 순수성이 뛰어난 이야기가 많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설·설화·민담은 학술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널리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특히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조상의 지혜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귀중한 보고서 재 발간을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화로 발전하는 군포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군포시장 노재영

머리말

이 보고서는 군포문화원의 <군포시 전설·설화·민담조사 학술용역 계약서> (2004.6)에 의거하여 작성된 「군포시 전설·설화·민담」이다. 2003년도의 「군포시 지명유래 및 씨족역사」에 이은 두 번째 학술조사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군포의 유래는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아온 이후 삼국시대 안산의 장항구현(獐項口縣)과 시흥의 잉벌노현(仍伐奴縣)과 과천의 울목군(栗木郡) 지역에 해당하며, 고려 시대에 이르러 안산현(安山縣), 금주(衿州), 과주(果州)에 속하였다. 그 후 조선시대에는 안산군(安山郡), 금천현(衿川縣), 과천현(果川縣)의 관할지역이었으며 갑오개혁 당시의 13도제 시행으로 안산군, 시흥군, 과천군의 일부 관할이 되었다. 1979년 시흥군 남면이 군포읍으로 승격되면서 수도권개발에 따라 1989년 군포시로 독립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에 군포시의 전설과 설화, 민담의 학술조사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옛 군포지역의 역사와 지명 연구에 이은 지속적인 사업의 일환으로서 그 학술적의미는 매우 크다고 본다. 사실 날로 도시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옛 고을의 도시화는 우리 전통문화 원형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명은 사람이 살던 곳이며 그 공간속에서 사람들의 삶이 묻어난 곳이 곧 전설이요, 민담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생활공간에서 빚어내는 무수한 얘기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설이 되고 신화가 되어 우리의 상상력을 살찌우게 한다.

사실 우리들이 어렸을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서 듣던 콩쥐팍쥐와 같은 옛 얘기들은 우리들에게 꿈이었으며 동화속의 상상의 세계였다. 이와같은 전설과 설화는 필자와 똑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인문학적 상상력을 기르게 한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21세기 문화산업을 국가경쟁력의 주요한 경제지표가 되듯 문화콘텐츠산업을 핵심요소가 바로 전통문화의 콘텐츠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시나리오 하는 작업이라고 한다. 이번 보고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전통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전설·설화·민담 조사 및 연구에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번 군포시 전설·설화·민담 보

고서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교육적 효과 못지않게 문화산업적 파급효과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명감과 산업문화적 필요성 속에서 군포문화원과의 계약에 따라 군포지역의 전설·설화·민담조사를 위해서 본교 국어국문학과와 김현선 교수 및 대학원생들과 학제간 연구를 수행하여 수 차례의 현장조사 및 마을 주민들과의 인터뷰 조사를 통해 그 결과물으로써 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저희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에 이와 같은 막중한 학술용역 과제를 제공해 주신데 대하여 군포시 김운주 시장님과 군포문화원 송운석 원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자료수집 차 방문한 조사원들에게 인터뷰에 응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소중한 보고서를 만들어 준 김현선 교수님과 이명숙 등 대학원생 여러분의 노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격려드립니다. 지난 여름 유난히도 더웠던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사를 하느라 수고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소는 경기지역의 전통문화 조사, 연구 및 이를 문화콘텐츠화 하는 사업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관계자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04년 12월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소장 조병로



군포시 설화의 특징과 의의 및 활용 방안

군포는 전통적 터전 위에 신혼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생성된 마을이므로 토박이뿐만 아니라, 외지 출신의 주민이 섞여서 형성된 특별한 고장이다. 토박이들의 전통적인 이야기인 지명유래담이 있어서 군포의 마을이 오랜 연원이 있었음을 알게 한다. 다른 고장에서 이주한 마을 사람들도 있어서 다양하고 풍부한 이야기 거리를 많이 알고 있어서 조사에 응해주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전승하고 채록할 수 있었다. 게다가 군포에 사는 이야기꾼들이 수준이 높아서 유식한 이야기가 많이 채록된 사실도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설화 자료 조사를 위해서 군포시의 경로당을 다니면서 인상적인 사실은 할아버지는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았고, 할머니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른 고장의 노인정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대등하게 설화 자료를 제보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고장에서는 할머니 제보자들의 숫자가 우세하고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할머니들이 입담도 좋고 기억력이 비상해서 많은 이야기를 채록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었다.

설화는 지명유래담이 많이 채록되었고 이러한 것은 일종의 전설인데, 사실담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설은 할아버지 제보자나 토박이들에 의해서 전승되는 것이다. 내용은 사실에 가까운 사실담인 점도 인상적이다. 할머니들에 의해서 전승되는 민담은 두 가지 상이한 양상을 보여준다. 하나는 전국적으로 많이 발견되거나 널리 알려진 흔한 유형의 이야기이다. 다른 하나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대규모의 설화 자료 조사 작업에도 잘 드러나지 않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별난 유형의 이야기이다. 이 가운데 소중한 자료 유형이 바로 별난 유형의 이야기이다. 별난 유형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설화 자료의 개체수를 집적하고 증대시키는 데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구비전승의 건강성을 점검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

별난 유형의 이야기 가운데서 특징적인 사례 몇 가지를 더듬어 보면 군포시가 설화

채록지로서 갖는 의의가 선명하게 집약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독장수구구담> <밥 많이 먹는 마누라> <딸을 범하려고 한 아버지> 등이 별난 유형의 사례이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가 조사자의 식견 여하에 따라서 다른 고장에서도 채록되나 불행하게도 요즈음 제보자의 기억 속에서 망실된 경우가 허다하다. 이 자료를 군포시에서 찾아낸 것은 설화 조사자들의 커다란 행운이었다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독장수구구담>은 이른 바 사상누각담이다. 사상누각담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일대에서 발견되는 이야기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발견되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잘 찾아지지 않는 자료로 확인된다.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독을 파는 장수가 나무 아래서 땀을 굶다가 독을 하나씩 팔아서 나중에 집을 사고 마누라도 둘을 얻게 되었는데 마누라 둘이서 싸움하는 것을 말리다가 독을 엮은 지계를 차서 지계에 엮은 독을 모두 깨뜨렸다는 내용이다. 헛된 망상을 하다가 참담한 결과를 맞게 되었다.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살라는 경계의 성격이 있는 이야기이다.

<밥 많이 먹는 마누라>는 이른 바 <밥 안먹는 마누라>의 변이형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이 이야기 역시 동아시아 일대에서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중국, 일본, 한국 등지에서 전승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네 편밖에 전승되지 않는 아주 희귀한 자료이다. 여성 화자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전하고 있어서 조사자의 채집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각 편이 채록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한 남자가 마누라를 얻었는데 마누라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마누라를 죽이고 새로이 밥을 적게 먹는 마누라를 다시 얻었는데 이 마누라가 전의 마누라보다 밥을 더 먹는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군포에 전승되는 것이 흥미롭고 이 이야기를 채록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딸을 범하려고 한 아버지>는 근친간에 벌어진 성관계의 실패담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는다. 이 이야기는 세계의 설화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충격적인 내용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겨우 한 편밖에 온전한 자료가 채록되지 않는 희귀한 이야기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군포에서 채록되었으니 군포시 설화 화자의 다층적인 분포 때문에 생겨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동일한 유형의 이야기가 황해도 장연 지방에서 변형된 채로 전하는데 이 이야기가 군포에서 채록됨으로써 인간의 무의식적 심층 구조를 이해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별난 유형은 별난 할머니들이 있어서 채록되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를 제공하는 인적 구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마땅하

다. 경로당의 할머니들이 주고받는 이야기판의 생동감을 보여준 점에서도 군포시 이야기의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예견된다. 이야기는 혼자서 하고 듣는 것은 아니다. 혼자서 하면 재미도 없고 이야기를 할 맛도 떨어지는 것이 예사이다. 누가 혼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판에 참여하고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이야기의 신명이 살아난다. 그러한 이야기로 흔하게 꼽을 수 있는 설화 유형이 곧 음담패설이다. 음담패설은 남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여자들도 할 뿐만 아니라, 여자와 남자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 음담패설도 있게 마련이다.

〈떡 먹은 이야기〉 유형은 성관계를 은유하는 전형적인 음담패설이다. 손님を 맞은 양주가 일정한 신호를 해서 은밀하게 성관계를 하기로 했는데 그 신호가 손님에게 탄로나서 엉뚱한 손님이 재미를 보았다는 것이 이 유형의 이야기에 나타난 핵심적 내용이다.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를 다른 고장 출신의 할머니 화자 세 사람이 각자 출신지의 사투리로 말하면서 내용에 있어서 조금은 차이가 나는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으며 앞 이야기꾼의 내용을 경쟁적으로 꼬집으면서 이야기판을 벌인 것으로 확인된다.

성 의식의 발달한 표현이 구체화되는 모습이 이야기에 묻어나므로 정겹고 이야기판에서 각 고장 출신의 할머니들이 입심을 겨루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음담패설의 진가를 확인하기에 충분하다. 이 자료집에서는 여유가 없어서 하나의 각 편만을 제시하나 이야기판의 생동감을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읽는다면 흥미가 훨씬 배가되리라고 생각한다.

군포시 설화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각 고장 출신의 제보자들이 이야기를 제보하고 있어서 이야기의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군포시가 전통적인 고장이라기보다는 신도시 건설의 계획 하에 조성된 고장이기 때문에 인적 구성원의 다양한 성분에 따라서 제보자의 다양성이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제보자의 다양성이 이야기의 다양성을 산출하였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한편의 이야기가 여러 고장의 사투리로 구연되는 사투리버전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군포시 이야기의 다양성이라고 하겠다. 군포시 이야기의 다채로운 채록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러한 각도에서 문제되리라 예견된다.

다른 하나는 구비설화의 대단위 조사 사업에서도 발견되지 않던 이야기의 순도를 군포시에서 확인하게 된 것은 뜻밖의 행운이라고 판단된다. 짧은 시간에 조사한 결과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장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의 밀도와 이야기 내

용의 순도가 높다는 것이 소중한 사실이다. 여느 지역에서 채록된 자료는 이야기의 길이는 매우 길지만 이야기의 순도가 떨어지는 것이 예상로운 현상이다.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파편 속에서도 소중한 이야기의 핵심과 의의가 잘 드러나는 자료가 다종다양하게 채록된 것은 의의가 있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군포시의 설화 전승 자료를 활용하는데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제보자의 사투리를 있는 그대로 살려 쓰는 전사 채록본을 주력해서 모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대중적 교양을 목표로 독서 서적을 꾸민다면 이 작업은 불필요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를 연구하고 창작의 밑천으로 삼는데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투리 말로 된 인쇄본이 절실하게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 말은 다음 작업을 위해서 제안한 말이다.

아울러서 이러한 이야기 자료를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전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쇄 매체에 의해서 전달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의 교재로 활용하되 생존해 있는 제보자에게 듣는 시간을 초등학교, 중등학교 등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고장 이야기꾼을 초청해서 한 학기에 두 번씩만 번갈아 가면서도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야기를 통한 세대간의 갈등 극복에도 일정한 기여를 하리라고 본다. 또한 학자, 작가, 학생들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설화 연구가, 동화 작가, 국문학과 학생, 문예창작학과 학생 등에게 제공하면서 군포시 설화를 홍보하는 획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2004년 12월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 현 선



일러두기

이번 조사에서는 군포의 지명이나 인물 등에 관한 유래담 보다는 보편적인 민담류의 이야기들이 많이 수집되었다. 군포와 관련한 지명 유래담이 많이 채록되지 못한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추정할 수 있다.

군포는 과거 과천군 남면에 속했다가 분리되어 시로 승격된 지 10여년이 경과했다. 현재의 군포시는 전체 면적이 협소하고 외부 이주민이 99%에 달하는 신도시이다. 이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자연지형이 크게 달라져서 지명전설의 전승을 단절시키는 큰 요인이 되었다.

두 번째는 군포지역에서 대를 이어 살아 온 토박이들이 사라진 점이다. 군포가 개발되면서 토박이들은 사라지고 외부 이주민들이 거주자로 자리를 바꾸었다. 실제로 그 지역의 지명이나 인물 등에 관한 이야기는 토박이가 아니면 알기 힘들므로 실제 지명 유래담을 듣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지명유래담 보다는 전국에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들이 주로 채록되었다. 군포 자체에 관한 전설 수집은 이런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시작부터 한계가 있는 작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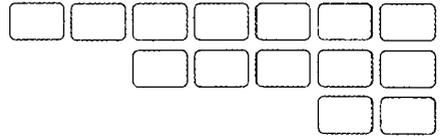
그러나 지명유래담이 아닌 다른 전설이나 민담들은 소중한 자료들이 다수 채록되었고, 앞으로 학술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발굴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동화로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들이 다수 채록되었다. 특히 <놀부와 흥부>, <콩쥐팍쥐> 등은 동화집과 소설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이야기의 전개나 결말이 기존의 출판물과는 차별화 되므로 여기에 신도록 한다. 설화란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당대의 사상과 감정을 반영하므로 이런 설화들이 소중한다고 하겠다.



安山郡地圖

Ansangun chido



차 례

- ▣ 발간사
- ▣ 축사
- ▣ 군포시 설화의 특징과 의의 및 활용 방안
- ▣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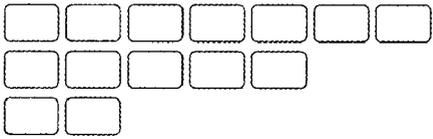
제 1 장 군포시 전설 · 설화 · 민담

1. 군포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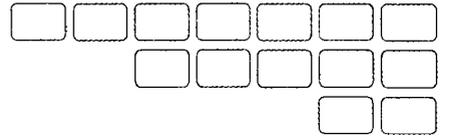
군포(軍浦) 이야기	21
아구랑(阿邱閼)의 유래	23
아구랑(阿邱閼, 阿口閼)유래와 의좋은 형제 이야기	23
새우대 유래	24
도램말(도랫말) 전설	25
당우물이 있어 당정동 된 내력	26
장군이 태어나지 않은 장군바위	26

2. 군포2동

삼성마을 유래1	26
삼성마을 유래2	27
감투봉 유래	28
감투봉 명당 이야기	28
감투봉 아가씨 전설	29
삼성마을에 전하는 여러 이야기	31
삼성마을 농바위 유래	31
용호마을과 경주김씨 할아버지	32
신기마을 생긴 내력	32
신기마을 허여방아와 동서남북 소나무 이야기	32
도꼬마치 고개 내력	33
정자골 벗나무	33
토골의 옷나무	34



가마모태 신부 이야기	34
느진골과 소금장수	34
부자마을 부곡의 유래	35
3. 산본동	
산본(山本) 지명의 유래	35
4. 금정동	
금정동 금우물의 유래	36
5. 재궁동	
재궁동(쟁골마을)과 과천처사 이야기	36
6. 오금동	
느티울의 유래	37
원수물골 유래	37
장수가 숨은 원수물골 이야기	38
7. 광정동	
광정동과 안양군	38
거북바위	39
거북바위와 안양군 신도비	39
왕자를 구한 거북과 노랑바위 전설	40
8. 대야동	
대야미 유래	40
수리산의 유래	41
수리산과 태을봉 이야기	41
수리산 이야기 1	43
수리산 이야기 2	43
수리사 이야기	44



범밭골과 월미도 이야기	44
범밭골과 도깨비 이야기	45
갈치 저수지와 갈대	45
우물골 유래	46
우뢰산(우래산) 유래	46
납덕골 유래	46
죽두리바위와 도적 전설	47
봉수골과 노적봉	47
새말 유래	48
호랑이 나온 이야기	48
동래 정씨 동래부원군 종가(문익종家)의 묘자리	48
동래 정씨 내력	49
판서골 유래	49
점성고개	49
구룡골 유래	50
정장들 이야기	50
신성한 균웅숲	50
균웅터 고사	51
테미산과 용의승천	51
둔내 마을 명당 내력	52
학자골 욕심 많은 부자 이야기	52

제 2 장 근포의 일반 전설 · 설화 · 민담

원효대사 이야기	53
흥부와 놀부	54
마우리고개 연못 전설	55
동삼이 아들 된 효자	56
주인 대신 떡 먹은 소금장수	58
원수 갚는 구렁이	59
아버지 엮는 효자 이야기	60
지렁이 먹고 눈 뜬 시어머니	61

밥 많이 먹는 মানুষ라 -----	61
똑똑한 아들 덕에 새경 받은 머슴 -----	62
달래나 보지 고개 -----	63
딸을 범하려한 아버지 -----	63
냉이 백번 씻어 제사상 차린 효자 -----	64
고려장 이야기 -----	64
호랑이가 잡아 준 묘자리 -----	65
용감한 선비 이야기 -----	66
은혜값은 까치 -----	70
곰와 다람쥐 -----	71
호랑이 잡아 부자 된 소금장수 -----	72
반쪽이 이야기 -----	75
까치의 보은 -----	77
방구쟁이 이야기 -----	78
호랑이와 꽃감 -----	80
가재와 굶병이 -----	81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	82
이야기 주머니 -----	83
놀라서 머리가 하얗게 썬 소금장수 -----	86
여우 누이 -----	89
도깨비 감투 -----	90
며느리밥풀꽃의 유래 -----	91
아들 묻은 효자 -----	92
쥐의 혼담 -----	92
쥐와 결혼한 셋째 딸 -----	93
세상에 비밀은 없다 -----	95
시집 간 딸이 친정 명당 뺏은 이야기 -----	96
조생원전 -----	96
고동각시 -----	97
저승 갔다 온 할머니 -----	98
지성과 감천 -----	99
어머니는 남의 식구 -----	102
여우 구슬로 지관 된 사람 -----	102

남이장군 이야기	104
시집살이 잘 산 며느리 - 병어리 며느리	107
산삼으로 부자 된 이야기	107
쥐혼으로 부자 된 이야기	108
금시발복 쓰고 부자 된 이야기	108
단혈 이야기	109
새끼 예뻐하는 호랑이	109
새끼 서발	110
흑부리 영감	111
제사는 정하게	112
수증고혼 묘 찾아준 후 부자되기	113
도깨비 이야기 - 개암으로 부자 된 이야기	115
해와 달이 된 오누이	116
밥 많이 먹고 방귀 배워 온 며느리	117
행실 나쁜 마누라	119
가나봐라 주나봐라	119
효자와 불효자	120
찌꼬리와 왜가리의 노래자랑	120
방귀쟁이 며느리	121
효부가 된 불효부	121
며느리가 지은 조복	122
병어리 며느리	123
구렁덩덩 신선비	124
숫장사 이야기	125
만지면 금이 되는 손	126
소금장사 지게 작대기	127
혼쥘	129
콩쥐팥쥐 이야기	130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길을 가는데	131
머리 아홉 달린 괴물	131
토끼와 호랑이	132
토끼 · 파리 · 술개	132
도둑질하는 시어머니 버릇 고친 며느리	133

공짜 밥 먹은 나그네 -----	134
머슴의 성(姓) -----	134
대동강수를 판 봉이 김선달 -----	135
동자삼 -----	135
용왕된 아버지 덕에 결혼한 막내 아들 -----	136
학동이 혼장 장가보낸 이야기 -----	136
찰떡 먹은 소금장수 -----	138
효자와 호랑이 -----	139
숫구이 총각 -----	140
동방삭이 잡은 이야기 -----	142
거짓 울음 -----	142
가난한 집 도와준 도깨비들 -----	143
손각시 위해 잘된 서씨 집안 -----	144
복 가진 며느리 - 집안의 불씨를 끄는 장담 -----	144
벼락 맞은 여자 -----	145
미륵당 -----	146
지지대고개 -----	147
말하는 남생이 -----	147
못된 시어머니 길들인 며느리 -----	149
입에 붙은 표주박 -----	150
치악산 유래 -----	150
삼형제 이야기 -----	151
바위 깨친 후 망한 부자 -----	153
독장수 구구 -----	154
닭과 개 -----	154
혼불 -----	155
혼을 보는 소 -----	155
달뾰산·용당골 내력 -----	155
끓는 물 나간다 -----	156
청개구리 -----	156
우렁각시 -----	157
선녀와 나무꾼 -----	158

제 1 장 군포의 전설 · 민담

1. 군포1동

군포시 설화 1

군포(軍浦) 이야기

지금의 군포시는 본래 과천읍내의 남쪽으로 조선후기부터는 과천군 남면(南面)으로 불리웠으며 산본(山本), 당리(堂里), 용호(龍虎), 부곡(富谷), 괴곡(槐谷), 금정(衿井), 초막(草幕)등을 포함하는 지역이었다. 1989년 시로 승격된 후 수도권 5대 신도시의 하나로 급격히 부상한 군포(軍浦)가 이 이름으로 불리게 된 정확한 유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여러 이야기가 전한다.

첫 번째 설로는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당시 왜군에게 패하여 후퇴하던 승려, 의병과 관군이 군포지역에서 군장을 재정비하게 되었는데, 이때 마을사람들이 굶주린 병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사기를 북돋워주어 이에 힘을 얻은 관군과 의병, 승병들이 왜병을 무찔러 큰 공을 세웠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지역을 굶주린 관군이 배불리 먹은 지역이라 하여 배부를 포(飽)자를 써서 군포(軍飽)라 하였고, 이후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 물가 포(浦)자로 바뀌어 군포(軍浦)가 되었다고 한다.

두 번째는 군포시 옆을 흐르는 하천을 군포천(軍浦川)이라 하는데, 이 하천이 북쪽으로 흐르며 안양을 경유하여 한강으로 합류되므로 안양천의 상류인 군포천은 예부터 한강의 지류로 수운을 이용하는 군포의 포구로 널리 알려져 왔다고 한다. 문헌기록으로는 숙종 25년(1699)에 간행된 과천현 「신수읍지」와 과천지도에 '군포천'이라

표기되기 시작하여 광무 3년(1899)에 간행된 『과천군읍지』와 지도에도 ‘군포천’이라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정조가 부왕인 사도세자의 묘를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의 화산으로 천묘하기 한달 전인 정조 13년(1789) 9월에 능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실을 편찬하도록 어명을 내렸는데 당시 편찬한 『원행정례(園幸定例)』 ‘도로교량조’에 옷감인 배포(布)를 써서 군포(軍布)라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조선시대 양인(良人)이 부담하던 국역(國役)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의 군포(軍浦)가 이 군포(軍布)에서 유래하였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네 번째로는 청일전쟁 때 청나라 군인들이 군함을 타고 한강을 거쳐서 안양천을 경유하여 상류인 군포에 머물렀다고 하여 군포(軍浦)라고 했다고도 한다.

다섯 번째로는 지금의 안양시 호계3동의 구군포지역을 조선시대에는 시장으로 개설하여 군포장(軍浦場)이라 한 데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광무 4년(1900) 경부선 철도를 부설할 때 처음에는 수원길인 이 지대 고개를 경유하려다가 그 고개가 정조대왕이 부왕인 사도세자묘를 성묘하려 다니던 길이라서 일본인들이 지금의 철길로 바꾸었다고 한다. 당시 남면 당리(堂里)에 역사(驛舍)를 지으면서 역 이름을 군포장역(軍浦場驛)이라 하였고, 이후 역사 주변에 민가가 늘고 날로 번창하자, 안양시 호계3동의 군포장을 ‘구군포(舊軍浦)’라 하고 군포장역(軍浦場驛) 인근을 군포(軍浦)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는 호계파출소 앞 약 100m 지점에 있는 군웅산(軍雄山)이 1980년대까지는 군웅제(軍雄祭)를 지내는 산이었으며 이 군웅산 아래에 있는 군포천의 물가(浦)마을이므로 군웅산의 군(軍)자와 물가포(浦)를 합쳐서 군포(軍浦)라 이름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

이상의 전래담을 종합하여 볼 때 군포라는 지명의 유래는 배부를 포(飽)의 군포(軍飽)나 옷감 배포(布)의 군포(軍布)가 군포(軍浦)로 바뀐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군포(軍浦)였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겠다. (『군포시사』 인용)

군포시 설화 2

2004년 12월 16일 전화 인터뷰. 이운웅, 男, 78세.

아구랑(阿邱閭)의 유래

아구랑은 한자로, 아름다울 아(阿), 언덕 구(邱), 솟을 대문 랑(閭) 자를 쓴다.

아구랑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조선조 14대 선조의 열한번째 아드님인 경평군(京平君)의 손자가 군포로 낙향을 하시면서 “아름다운 언덕에 솟을 대문이 아름답다.” 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현재 평화로 부근 하나은행 뒤편에서부터 군포 중학교 인근까지가 예전에는 다 아구랑이라고 불렸던 지역이다.

군포시 설화 3

아구랑(阿邱閭, 阿口閭) 유래와 의종은 형제 이야기

아구랑은 지금의 군포1동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한자이름은 ‘아름다운 언덕의 솟을대문’으로 풀이할 수 있고, 전하는 이야기로는 조선시대 선조의 열한번째 왕자인 경평군의 증손자 해평군이 낙향하여 지은 집과 관련 있다고도 한다. 한편으로는 단지 우리말을 한자를 빌려 표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옛날에 흰 개 두 마리가 입을 벌리고 이곳 언덕을 넘어갔다고 하여 ‘아구랑’이라 불렀다고도 하고 이곳의 지세가 개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구랑’ 또는 ‘아구동’이라 했다고 한다.

‘아우랑’이라 불린 적도 있는데, 이렇게 불리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 이곳에는 가난하지만 사이좋은 형제가 살고있었다. 일찍 부모를 여윈 형제는 어딜 가도 함께 다니며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다.

남보다 몇 배나 부지런하고 싹싹한 성격이어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형제를 좋아했고, 남다른 우애를 부러워하였다.

이웃마을 아구랑 언덕과 지금의 재궁동인 쟁골 사이의 월구지(산의 부리가 뽕죽 나와서 곳을 이룬다 하여 월구지라고 함) 고개참에 효심이 지극한 참한 처녀가 살고 있

었는데, 형제가 모두 그 처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차에 혼인 이야기가 나왔다.

형은 처녀를 좋아하는 동생의 마음을 아는지라, 눈물을 머금고 동생한테 양보하였고 동생은 얼마 안있어 그 처녀와 혼인하게 되었는데 그 후로 그만 형은 홀연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동네 사람들이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안타까워하며, 아구랑 언덕을 형제가 사이 좋게 지나다니던 때를 그리워하며 아우랑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형이 아우랑을 떠나 정착한 곳은 지금의 한세대학교가 들어선 당정동 북동쪽에 있는 정제이들 마을이었는데, 정제이는 논 가운데 우물이 있어서 우물에 제사를 지냈다(井祭)고 해서 생겨난 지명이다.

그 마을 어귀에 당산나무격인 큰 느티나무 한그루 서 있었는데(지금은 군포시 보호수로 지정)형이 농사짓고 집으로 돌아갈 때 마다 동생을 그리워하며 느티나무 아래서 흘린 눈물 때문에 느티나무의 반쪽이 잘 자라지 못해 줄기 반쪽은 움푹 패었다고도 한다.

큰 말과 넘말사이에 있는 이 느티나무는 마을의 수호나무로 마을의 안녕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제사를 해마다 지내기도 하였다.

한시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형은 그런 마음을 달래기라도 하는 듯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천성이 착해서 이사 온 동네에서도 마을에 힘든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힘 닿는 데까지 도움을 주고 몸을 아끼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하였고, 뒤늦게 가정을 꾸려 여생을 행복하게 보냈다는 이야기가 전설로 전한다. (이윤웅 일부 증언, 『군포스토리』 인용)

군포시 설화 4

군포시청 민원실 사랑방, 2004년 11월 26일, 광도현, 男. 72세

새우대 유래

옛날에 바닷물이 그곳까지 들어와서 새우젓을 담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

금은 컨테이너 기지창고로 사용되는 곳이다. 지금도 그곳을 깊이 파보면 조개가 나온다고 한다.

군포시 설화 5

군포시청 민원실 사랑방, 2004년 11월 26일, 광도현, 男, 72세

도람말(도랫말) 전설

지금부터 200여년 전에 도랫말에는 김씨 성을 가진 두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은 물질적으로 부유하였고 동생은 가난했다. 그런데 동생네는 아들이 있었으나 형은 아이가 하나도 없었다. 마음씨 착한 동생 부부는 형님댁이 아이를 갖게 해 달라고 밤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백일치성을 드렸다. 그런던 어느날 밤 동생의 꿈에 형님집 우물에서 큰 용 한 마리가 머리를 내밀고 하늘로 솟구치더니 동생집의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 동생은 아침에 일어나 하도 이상하여 부인에게 이야기 하였더니 부인 역시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그후로도 계속 형님이 아이를 갖도록 기도하였으나 형님은 태기가 없고 도리어 동생댁이 다시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형님댁에서는 계속 소식이 없었다. 그래서 동생은 큰아이를 형에게 주기로 하고 자신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기로 결심하였으나 형님은 거절하였다. 하지만 동생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으므로 아내와 함께 정처없이 길을 떠났다.

형님을 떠난 동생은 한곳에 정착하여 가난하였지만 다복하였고 자녀들도 장성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여 형수가 홀로된 것을 걱정하여 고향으로 되돌아 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을의 이름이 “돌아온 마을”이라는 뜻에서 ‘도람말’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 이 마을의 우물은 쌍룡이 노는 물이라서 이 우물의 물을 마시면 쌍둥이를 낳는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으며 이러한 전설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곳에는 해마다 한 쌍씩 쌍둥이가 태어난다고 한다.(『군포시 지명유래집』 인용)

군포시 설화 6

당우물이 있어 당정동된 내력

지금은 군포1동에 속한 당정동은 본래 과천군 남면의 한 지역으로 '신당' 밑에 우물이 있어 '당우물' 또는 '당정' 으로 불리웠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현재의 큰말 철로변에 물이 잘 나는 샘물이 있었는데, 부곡리의 대골에서 당제를 지낼 때 이 물을 떠다가 사용했다하여 당우물(堂井)로 불리웠다 한다. 이후에 마을 이름도 우물이름을 따서 당정리(堂井里)가 되었다는 유래가 전한다. (『군포시사』 인용)

군포시 설화 7

장군이 태어나지 않은 장군바위

별새전리 남쪽의 오봉산 밑에 있는 바위로 풍수상 이곳에는 장군이 태어날 자리인데 장군은 태어나지 않고 대신 바위가 있다고 하여 '장군바위' 라고 부른다는 전설이 전한다. (『군포시 지명유래집』 인용)

2. 군포2동

군포시 설화 8

군포시청 민원실 사랑방, 2004년 11월 26일, 곽도현, 男, 72세

삼성마을 유래1

삼성마을에는 유적지가 될 만한 것들이 많다. 칠팔백년 된 은행나무가 바로 제보자 집 뒤에 있었다.

두 번째는 삼성사이다. 주자를 모시고 유학자들이 모여서 제향을 드리는 곳이다.

세 번째는 백년이 넘는 삼성리 교회이다.

네 번째는 삼성교회 옆에 서당이 있어서, 가르치던 한학 선생님들이 해방 후까지도 계셨으며, 이 서당에서 괄씨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벼슬길에 많이 올랐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삼성교회 안에 ‘삼성학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4년제 초등학교로 다른 지역보다 일찍 개화교육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 지역의 유지들은 모두 그곳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다.

이처럼 유적지가 많고 유래가 있는 마을이며, 인재가 많이 나는 마을이어서 ‘삼성(三星)’이라고 별성(星)자를 쓴다고 전하며, ‘삼성’이라는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이를 ‘삼세이’라고 불렀다 한다.

군포시 설화 9

삼성마을 유래2

이 마을의 호칭을 삼성(三姓, 三聖, 三星)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곳의 칭호는 ‘삼세이’라고 한다. 그러나 ‘삼세이’가 어느 때 누구에 의하여 삼성으로 되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단지 이곳 주민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로新安 주씨(新安朱氏), 인동 장씨(仁同張氏), 현풍 괄씨(玄風郭氏)의 세 성씨가 처음에 세거하여 살고 있어 마을 호칭을 삼성(三姓)이라 하였다는 설이 있다.

둘째로 주자(朱子)를 모신 영당이 있어 이를 모현재라고 하였고, 또한 옛날 이곳에 사찰이 있었는데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수도에 정진하였으며, 다른 지역보다 먼저 이곳에 서당이 설립되어 많은 사람들이 옛 성인들의 성리학을 수학하여 삼성(三聖)이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다.

셋째는 별이 빛난다는 뜻인데, 이곳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산자수려하고 서당이 있어 많은 인재가 배출되어 타지역 주민들이 부러워하는 마을로서 빛나고 있다고 하여 삼성(三星)이라 하였다는 설이 전한다. (『군포시사』 인용)

군포시 설화 10

군포시청 민원실 사랑방, 2004년 11월 26일, 광도현, 男, 72세

감투봉 유래

감투봉에 올라가서 보면 한쪽으로 떨어지는 줄기는 한양으로 떨어지고, 다른 쪽은 수원 쪽으로 떨어져 흘러가게 되어 있다. 것처럼 높고, 뒤에 있는 명산인 수리산과 줄기가 연결되어 있어서 무척 명당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예전에 벼슬아치들이 이곳에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한다.

그 생김새도 올라가서 보면 옆으로 길게 나오고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서 조선 관리들의 관모처럼 생겼기에 감투봉이라 불렀다고 한다.

군포시 설화 11

감투봉 명당 이야기

고려 말엽 이 고을에 살던 현풍 광씨의 딸이 주씨 집으로 출가를 했다. 그녀는 시부모를 공양하던 중 친정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더니 친정 아버지는 아들들을 불러 놓고 유언을 하고 있었다. “내가 죽거든 흰 나무가 세 그루 있는 북서 쪽 높은 봉우리에 묻어다오.” 그러나 이 같은 유언을 남긴 친정아버지는 타계하지 않고 시아버지가 먼저 돌아갔다. 그녀는 친정식구 몰래 시아버지를 친정아버지가 말한 명당에 모셨다.

그후부터 새벽이면 산봉우리에서 용 두 마리가 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오빠들은 사돈이 자기 아버지 쓸 묘자리를 차지한 것을 알고 여동생에게 이장을 권했으나 그녀는 듣지 않았다.

어느 날 큰아들은 낫을 가지고 산봉우리에 올라가 싸우던 두 마리의 용 중 한 마리를 베어 죽였다. 죽은 용은 곧 자기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하였다. 얼마 후 그의 아버지는 숨을 거두었다. 그후 주씨네는 부유하게 살았지만 곧 몰락했고 광씨네는 번창했다고 한다. (『군포시 지명유래집』 인용)

군포시 설화 12

감투봉 아가씨 전설

군포2동(부곡동) 삼성마을에는 ‘감투봉 아가씨’ 전설이 전하고 있다.

이 마을은 옛날부터 과거공부하는 소년들이 각처에서 많이 모여들어 공부하며 등과를 위해 정성을 올리는 마을로 유명했다. 위치상 한양이 가깝고 삶의 이치를 깨우쳐 주는 신령스러운 기가 있다는 수리산(修理山)을 뒤로하고 있으며 남북으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가르는 삼파산의 높은 봉우리와 삼태기 같이 포근하면서도 가운데 종모양으로 마을 가운데로 복스럽게 살짝 뺨쳐 나온 속 알맹이 같은 언덕과 양 골짜기 사이에는 바위에서 유난히 창수같이 솟아나는 두 샘물이 있어 명당 터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이 마을은 예부터 과거시험에 합격하는 인재가 많았고 과거를 준비하는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온갖 정성을 올리는 곳이 되었으니 그에 얽힌 애절한 이야기 또한 전하게 되었다.

삼성마을 샘물 우물가에는 천년 가까운 은행나무가 우뚝 서있고 빨래하는 아낙네들이 항상 모여들었다. 그 아래로는 주야로 소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서당이 있었고, 멀지않은 곳 남쪽 언덕에는 유교 성리학을 창건한 주자(朱子) 곧 주희를 모시는 사당인 모현재(慕賢齋)-삼성사가 있었다. 과거공부를 하러 온 청년들 중에 우물가와 모현재 사이를 자주 오가며 글을 읽고 달님에게 정성 드리기를 좋아하는 총각이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동네 아가씨들에게 물을 가끔 얻어마시곤 하다가 한 예쁜 아가씨에게 마음을 빼앗겨 남모르게 사랑하게 되었다. 결국은 밤이면 남몰래 우물가에서 혹은 은행나무 밑에서 혹은 과거시험 합격을 비는 산줄기 서낭당에서 만나게 되었으며 달이 떠오르면 달님에게 꼭 과거에 등과하게 해달라고 함께 정성을 다해 빌었다. 때가 다가와서 과거시험 방이 나붙고, 청년은 아가씨에게 꼭 합격하여 돌아올 것을 굳게 약속하고는 한양으로 떠났다.

아가씨는 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샘물을 떠놓고 뒤뜰에서 빌고, 우물가 옆 은행나무에 걸하며 삼성사와 서낭당에 가서 빌고 또 빌었다. 그것도 모자랄 것 같으면 뒷산의 높은 산본(山本)마을로 향한 중턱에서 물이 철철흐르기로 유명한 ‘원수(元水)’ 물을 떠가지고 감투봉으로 올라 달님에게 빌며 소년이자 장차 낭군이 될 청년이 꼭 장

원급제 하기를 매일 기원하였다.

그런 정성이 통하였는지 청년은 드디어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노란옷에 화관을 쓰고 삼일유가를 다니며 장원급제 행차를 하고 삼성마을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런데 아가씨에게 그만 이번이 생기고 말았다. 아가씨는 청년의 장원급제 소식에 너무 기뻐 이는 하늘의 달님이 도우신 덕이라 생각하고 샘물을 떠서 높은 감투봉에 올라 정성을 들여 감사의 기도와 앞으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런데 그때 산기슭 용호리 마을에서 힘겨루기를 하느라 잘 다투던 호랑이와 용이 마침 샘물가에서 아가씨를 보고 그 마음씨와 외모를 탐내어 사람으로 변해 서로 차지하겠다고 감투봉 아래까지 따라 올라가 그 편편한 봉우리에서 무섭게 싸우기 시작하였다. 그것도 모르고 아가씨는 마냥 달님에게 빌고 있었고, 한편 과거에 합격하여 돌아온 청년은 아가씨를 백방으로 찾았으나 보이지 않자 예전에 같이 달님에게 소원을 빌던 감투봉으로 향하게 되었다. 멀리서 보니 역시 아가씨는 감투봉에서 물을 떠놓고 빌고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앞에 사람처럼 보였던 사내 둘이 싸우고 있다가 갑자기 용과 호랑이로 변하여 무섭게 싸우는 것이 아닌가? 청년은 소리쳐 아가씨를 불렀고, 아가씨는 사랑하는 남군의 외쳐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청년은 보이지 않고 웬 무시무시한 호랑이와 용이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는 모습만이 앞을 막았다. 그모습에 아가씨는 그만 까무라쳤고 청년은 나뭇가지와 돌로 호랑이와 용을 치치하고는 지친 몸으로 아가씨 앞으로 다가갔으나 아가씨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그동안 지나치게 정성을 다하느라 몸이 쇠약해진데다 흉악한 짐승들이 싸우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아 계속 깨어나지 못하였고 청년은 아가씨를 밤새도록 껴안고 흔들며 울어댔다. 다음날 마을사람들은 장원급제 축하잔치를 준비하고 청년을 찾았으나 도대체 찾을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감투봉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밤 추운 날씨에 두 남녀가 꼭 부둥켜 안고 얼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후 이 마을에는 이 봉우리가 마치 장원 급제한 벼슬아치의 관모와 같이 생겼다 하여 관모봉이라 하고, 애절한 두 남녀의 못다한 사랑의 사연을 생각하여 감투봉 아가씨 전설을 후세에 전해오고 있다.

이후 정월 보름이 되면 젊은이들은 쇠가죽 큰북을 밤낮으로 치며 악귀와 도둑을 내몰기 위해 마을 안을 돌아다녔으며 저녁이 되면 감투봉에 올라 옛 전설을 생각하고

동근 보름달이 뜨는 것을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그해 장가를 갈 수 있다고 하며 풍성하고 떠들썩한 보름행사를 즐겼다.(곽도현 제공)

군포시 설화 13

삼성마을에 전하는 여러 이야기

삼성마을에는 여러 유적이 있는데 세상을 일깨우려는 듯, 추를 매단 큰 종과 같은 산세가 마을을 둘러싸고 있고, 골짜기에는 바가지로 뜰 수 있는 풍부하고 맑은 샘물과 천여년된 은행나무가 해방 후까지 자라고 있었으며 주민들이 소망을 기원하던 절터와 성황당인 '도장대가 있었다.

또한, 샘물과 은행나무 옆에는 서당이 있었고, 유생들이 한학을 추모하기 위한 '모현재-삼성사'가 세워졌기에 조선시대 벼슬길을 바라는 선비들이 이 마을에 기대속에 정착하였다.

그 한 예로, 조선 초기에 이방원 곧 태종의 처인 '원경왕후'가 성장한 곳이기도 하며(출처-이호창, '전주이씨 대관'), 이 마을 남쪽산 기슭에는 조선 고관대작의 묘가 즐비하다.

이처럼 삼성마을은 많은 전설과 자랑스러운 유적을 간직한 마을로 예로부터 이름난 곳이었다. (곽도현 제공)

군포시 설화 14

군포시청 민원실 사랑방, 2004년 11월 26일, 곽도현, 男, 72세

삼성마을 농바위 유래

절골 위쪽으로 농바위가 있다. 생김새가 여자들이 시집갈 때 해 가지고 가는 장롱처럼 생겨서 농바위라고 부른다.

정월 보름날 저녁에 이곳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달 뜨는 것을 보는 총각은 장가를 간다는 속신이 있어서 총각들이 앞을 다투어 올랐다고 한다.

군포시 설화 15

군포문화원 사무국, 2004년 12월 17일, 김익환(전달)

용호마을과 경주김씨 할아버지

군포의 오래된 씨족으로 군포2동 용호마을과 신기마을에 주로 살고 있는 경주김씨가 처음 용호마을에 정착하게 된 내력은 다음과 같다.

지금으로부터 약 450여년 전 조선시대에 경주김씨 상촌공파 김직 할아버지가 군포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즈음 용호와 신기마을을 흐르는 개천에는 큰 오리나무가 있었고 김직은 노곤한 몸을 이끌고 오리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청하였다. 그의 꿈에 신령님이 나타나서는 ‘요골(지금의 용호마을)에 올라가서 터를 잡고 살아라’ 고 하였고 그 뜻을 따라 지금까지 여러대를 이어 살게 되었다고 한다.

용호마을은 풍수지리상 좌청룡, 우백호의 지역으로 그 한가운데에 주산에서 지금도 마을의 경주김씨들이 모여 산제사를 정성스럽게 올리고 있다.

군포시 설화 16

군포문화원 사무국, 2004년 12월 17일, 김익환(전달)

신기마을 생긴 내력

김직 할아버지가 군포 용호마을에 정착한 이후 경주김씨의 자손이 무궁하게 번창하여 새로운 마을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금으로부터 2백~3백여년쯤 전에 용호마을과 잇닿아 있는 새로운 마을에 터를 닦아 자손들을 분가시켰는데 그곳이 지금의 베네스트 골프클럽 맞은편의 신기마을이다.

군포시 설화 17

군포문화원 사무국, 2004년 12월 17일, 김익환(전달)

신기마을 허여방아와 동서남북 소나무 이야기

신기마을 위쪽으로는 ‘허여방아’ 라는 큰 바위가 있는데, 정월대보름 맞이때 올라가서 달맞이 하던 곳이라고 한다. 이 바위는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위에 올라가면 움직이는 흔들바위로 마을의 명물이었다고 전한다.

그 바위 아래에는 동서남북 소나무라는 400여년 된 소나무가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이 나무의 네 가지가 정확히 동서남북의 방위를 가리키고 있어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큰 가지에 올라가면 가지 하나가 앞마당만큼 편편해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놀기도 했다고 전하는 이 소나무는 일제시대때 아쉽게도 광술용으로 베어져 없어졌다고 한다.

군포시 설화 18

2004년 12월 16일 전화인터뷰. 김방환, 男, 75세

도꼬마치 고개

도꼬마치 고개는 용호와 신기 사이에 있는 고개로, 30m 정도의 높이이다. 예전에 이 지역에 도둑이 들끓었는데, ‘도꼬마치’ 라는 고개 명칭이 도둑을 막기 위한 방비를 하는 ‘도둑막이’ 가 ‘도꼬마치’ 로 와전된 것으로 생각된다.

군포시 설화 19

정자골 벗나무

군포에 유일하게 오래된 벗나무가 있는곳으로 연못이 있었던 형태가 지금도 남아있다.

전하는 이야기로는 이완용의 생질인 한씨성의 사람이 한일합방 당시에 이곳에 살았는데, 이곳에 정자를 짓고 연못을 만들어 벗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박오양씨는 정자골에서 한약방을 경영하며 한학을 가르치던 분이었는데 이 정자에

서 선비들과 모여 풍류를 즐기기도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군포시 설화 20

토골의 옷나무

지금의 군포초등학교가 있는 건너편에 들어선 LG아파트 지역은 원래 ‘칠목동’이라 불리던 곳이었는데 ‘토골’이라고도 불리었다. 이 이름은 ‘옷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어서 지어진 이름으로 전한다.

군포시 설화 21

가마모태 신부 이야기

모태는 모퉁이가 변형된 이름으로 가마모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전에는 결혼할 때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신랑집으로 오는데 시집이 멀면 그 거리가 상당히 소요되었다고 한다. 옛날 아주 추운 한겨울에 신부를 태우고 정자골을 올라가던 가마꾼들이 아무래도 기척이 이상하여 가마안을 들여다보니 모진 추위에 신부가 얼어죽어 있었더라는 이야기로 지금도 정자골 올라가는 모퉁이를 ‘가마모태’라고 부른다.

군포시 설화 22

느진골과 소금장수

군포2동의 삼성마을과 대야동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느진골 고개라고 하는데, ‘느슨하다’, ‘늘어졌다’는 뜻으로 만곡현(晩谷峴)이라고도 불린다.

이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던 고개로 소금장수가 무거운 소금을 지고 팔러다니던 시절에는 높지는 않지만 길게 늘어져 있는 고개를 넘기가 하도 지루하다 하여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당시 군포에서 가까운 안산을 지나 대부도 서해안 쪽에는 아직도 염전이 남아있고 그때도 소금장수들의 왕래가 빈번했었다. (『군포스토리』 인용)

군포시 설화 23

부자마을 부곡의 유래

조선 중엽 어느 해인지 몹시 가뭄이 인근의 마을에서는 심은 모가 모두 말라 죽어갔으나 부곡 마을의 논에는 물이 많아 풍년이 들었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마을을 부자 마을이라 하여 부곡리라 불렀다는 설이 전한다.

또 하나는 조선 중엽 남양부사가 부임차 이곳(현 부곡 변씨촌)에 들러 어느 민가를 찾았더니 몹시 궁색한 생활을 하고 있기에 주인에게 묻기를 “이 마을의 이름이 무엇 인고?” 하니 주인이 답하기를 “예, 말씀 드리기 황송하오나 이 마을은 예로부터 대문과 울타리 등 없는 것이 12가지나 되는 빈골(貧谷)이옵니다.”라고 하였다. 남양부사는 “어허 듣기가 매우 거북하구나. 아무리 가난해도 빈골은 너무 했구나. 이왕이면 부골(富谷)로 하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하였다 한다. 이후부터 이 마을을 부곡리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한다.(『군포시 지명유래집』 인용)

3. 산본동

· 군포시 설화 24

산본(山本) 지명의 유래

산본(山本)이라는 이름은 공교롭게도 일본의 성씨인 야마모토(山本)와 같아서 일제시대 때 지어진 이름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산본(山本)은 우리말의 ‘산밑, 산아래’를 한자로 나타내기 위해 붙여진 것으로 경남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산본마을 등 산밑 마을을 나타내는 여러 예를 볼 때도 하등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하겠다.

산본의 명칭은 조선시대에 ‘산저리(山底里)’였고, 일제 식민지가 되기 전인 1871년(고종 8년)에 ‘산본리(山本里)’로 처음 문헌기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일본성씨

와의 관련설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군포시 지명유래 및 씨족역사』 부분 인용)

4. 금정동

군포시 설화 25

금정동 금우물의 유래

금정동은 본래 과천군 남면 금정리였는데 본래 큰 샘이 있는 곳이어서 금우물, 금물 또는 금정이라 불렀다고 한다. 또한 별판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어느 곳이나 파기만 하면 물이 잘 나와 물기는 여인들의 옷깃을 적신다하여 금정이라 했다고 하며, 또다른 이야기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인 현릉원에 원행 가는 길에 이곳 큰 샘에서 물을 마셨으므로 금정이라 한다는 설이 전한다. (『군포시 지명유래집』 인용)

5. 재궁동

군포시 설화 26

산본동 미창기획, 2004년 11월 26일, 송윤석, 男 69세

재궁동(쟁골마을)과 과천쳐사 이야기

오금자리 북동쪽에 있는 쟁골마을은 조선 초기에 한성부사를 지낸 송복산(宋福山:1390~1467)이 묘를 쓴 후 그의 둘째 아들인 송찬(宋瓚)이 단종이 폐위·사사되자 관직을 사절하고 낙향하여 묘아래 두어칸의 초려(草廬)를 짓고 그 문과 창을 한양 쪽인 북향으로 향하게 하여 임금을 잊지 않는다는 뜻을 표명하고 거처한 곳이다.

빈객들조차 들이지 않고 글을 보내 스스로 즐기며 자기의 지위나 행적을 숨겼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를 과천처사(果川處士)라고 불렀다. 그 후 그의 후손인 여산송씨 문중에서 초려를 개축하여 재실(齋室)로 사용하였으며 이후부터 이곳을 재궁골(齋宮洞)이라 불렀는데 일반적으로는 ‘쟁골’ 이라고 부른다. ‘재궁’ 이 ‘쟁’ 으로 와전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이곳에 있었던 산소들은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시청 뒤의 동산으로 이장되었다고 한다.

6. 오금동

군포 설화 27 재궁동 T. 1

재궁동 경노당, 2004. 8. 5. 김세진, 男, 75세

느티울의 유래

예전에 여기서 산촌이었을 때, 이 느티울에 들어가는 입구에 큰 웅덩이가 있었어. 거기에 느티나무가 크고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었어. 그 느티나무 때문에 동네 이름을 느티울, 느티울 했나봐. 그래서 느티울이야.

군포시 설화 28

군포시청 민원실 사랑방, 2004년 11월 26일, 광도현, 男, 72세

원수물골 유래

감투봉 북쪽 산본쪽으로는 원수물이라 불리는 샘이 있다. 이 물은 마르지 않고 흘러서 가재가 사시사철 살 정도로 풍부한 샘이다. 산 중턱인데도 물이 마르지 않아 그 물이 산본천을 이루는 원류가 되며,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해서 ‘원수물(原水)’ 이라고

불렀다. 지금도 바위에서는 물이 계속 흐르고 있다.

군포시 설화 29

장수가 숨은 원수물골 이야기

원수물골에는 또다른 이야기가 전하는데, 옛날 어느 전란 때에 한 장수가 피하여 인근의 도장굴골로 들어왔다. 더 깊이 들어오다가 감투봉 밑의 원수물골에 이르러서야 한숨을 쉬면서 '원 숨을 만한 골짜기로구나' 라고 했다는데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군포시사』 인용)

7. 광정동

군포시 설화 30

광정동과 안양군

과천군 남면 산본리였다가 1995년 분리되어 광정동이 된 이곳에는 조선 9대 성종대 왕의 셋째아들인 안양군(安陽君)의 묘가 있다. 그의 4대손 옥담(玉潭:1579~1657)은 이곳에 처음 낙향하여 증조부(안양군의 아드님)를 비롯하여 선조들의 묘를 지키며 묘하(墓下)에 살았다고 한다.

옥담은 어려서부터 칼쓰기, 활쏘기 등 무예를 좋아하여 성년이 되자 활을 쏘고 풍류를 즐길 정자를 짓는 일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꿈에서 정자터에 찬란한 빛과 함께 우아한 정자의 빛이 나타났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뒤에 정자를 완성시키자 꿈에 본 정자를 옆두에 두고 광정(光亭)이라 불렀는데, 후에 마을 이름도 광정이라 했다고 한다.

옥담은 그후 7형제를 두고 광정 북쪽에 있는 산실고개에서 살았다고 하며 광정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1월과 7월에 길일을 택해 수리산 산신제를 지내오고 있다.(『군포시

지명유래집」 인용

군포시 설화 31

2004년 12월 16일 전화 인터뷰. 이기형, 男, 70세.

거북바위

거북바위는 현재 태을봉과 관모봉 사이에 있는 전주 이씨 종산에 위치한 자연석이다. 바위가 머리부분, 몸체부분, 뒷부분으로 3등분되어 있는데 거북 모양을 하고 있다고 ‘거북바위’라고 불린다. 원래는 지금의 산본 고등학교 후원에 있던 것을 신도시 개발과 함께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신도비의 지석으로 거북이 형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주 이씨 문중에서는 문중 소유지에 있던 거북바위를 지석삼아 그 위에 안양군(安陽君)의 신도비를 세워 놓았다.

예전 옮기기 전에는 무속인들이 거북바위를 괴석으로 여기고 촛불 기도 등을 많이 행하였다고 한다.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한때 폭파 위기에 놓이기도 하였는데, 그때 거북바위에서 ‘귀 달린 뱀’을 본 사람이 있다고도 전해진다.

군포시 설화 32

거북바위와 안양군 신도비

광정마을 안양군의 신도비는 거대한 거북바위 위에 서있는데 이 바위는 본래 산본 고등학교 자리에 있었으나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위쪽의 현재 장소로 옮겨졌다. 자연석으로 이렇게 거대한 거북모양 바위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전한다. (『군포시사』 인용)

군포시 설화 33

왕자를 구한 거북과 노랑바위 전설

노랑바위는 수리산 산신제당 위쪽인 관모봉 중턱에 있는 바위로 이곳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한다.

옛날 옛적에 어느 임금에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에게는 불혹을 넘도록 왕통을 이룰 왕자가 없어 근심하고 있었다. 지극 정성으로 기원하여 드디어 하늘이 감복했는지 기골이 장대한 왕자가 태어났다. 왕자가 세 살이 되던 해 전란이 일어나자 궁궐을 떠나 강화도로 피난가기 위해 나룻배를 탔으나 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다. 배가 난파하려는 순간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나 왕자를 태우고 육지로 나와 은신처를 찾던 중에 이곳까지 다다라 관모봉 중턱에 이르렀다. 거북이의 등에 업혀 며칠을 굶다보니 왕자의 몸골은 말이 아니어서 왕자에게 드릴 음식을 구하기 위해 거북이는 마을로 내려갔고, 거북이의 뜻을 모르는 왕자는 거북이 자신을 버리고 가버린 것으로 오해하여 분한 마음과 배신감에 사로잡혀 바위를 힘껏 주먹으려 내리쳤다.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바위가 무너지면서 왕자를 덮쳤다. 왕자는 노란 피를 흘리며 숨을 거두었고, 마을로 내려간 거북이는 우박처럼 쏟아지는 바위를 맞아 죽었다.

그 후부터 왕자의 피가 흐른 이 바위를 ‘노랑바위’라 불렀고, 광정마을에 안양군의 신도비가 세워진 바위를 ‘거북바위’라 불렀다는 전설이 전한다. (『군포시사』 인용)

8. 대야동

군포시 설화 34

둔내경로당, 2004년 11월 17일, 정형수, 男, 84세

대야미 유래

대야미는 큰 논배미가 있었다고 하여 일제시대부터 불려진 이름이다. 본래 광주군 북방면(北方面)에 속한 지역으로 1994년 행정구역 조정으로 군포시에 편입되어 대야동으로 줄여 부르게 되었으며 속달동, 둔대동, 도마교동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대야미는 날아다니는 '별'의 형국이라는 말이 전하는데 면적은 넓지 않지만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안에서 생산해서 먹기보다는 밖에서 먹을 것을 물어오는 경우가 더 많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별'의 형국이니 갖다 주는 것을 먹는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군포시 설화 35

수리산의 유래

군포시민은 물론이고 안양, 안산 시민들에게 마음의 안식처로 사랑받고 있는 수리산은 군포시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군포시의 진산이다. 수리산 명칭 유래는 수리산의 빼어난 산봉의 방위가 마치 독수리같아 “수리산”이라 하는 설이 있고 또 신라 진흥왕때 창건한 현재 속달동에 위치하고 있는 절이 신심을 닦는 성지라 하여 수리산이라고 하였는데 그후 산명을 “수리산”이라 칭하였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조선조 때에는 왕손이 수도를 하였다하여 “수리산”이라 부르기도 한다는 여러 가지 설이 전한다.

군포시 설화 36

수리산과 태을봉 이야기

수리산이라는 이름은 안산의 진산(鎭山)인 수암봉 즉 취암(鷲岩)에서 연유했다는 설이 있다. 취암의 독수리 취자(鷲)는 독수리과(秃鷲科)와 수리매과(鷲鷹科) 등으로 쓰이는 글자인데 이곳에서는 후자를 택한 듯 하고 「수리」하면 흰죽지 참수리, 검둥수리, 독수리, 참수리, 흰꼬리수리 따위등 사나운 새의 속칭인데 안산시 부곡동 방면에서 북쪽의 취암을 바라보며 가다보면 수암봉 정상에 거대한 검둥수리가 남쪽하늘을 바라 보고 앉아있는 모습이 그 이름과 흡사하니 옛 어른들이 보고 보고 또 보고 지은 이름이 '수리봉'이라 하였으리라. 또 안산(安山)의 이름이 문헌에 보이기는 고려태조

23년(940)에 安山縣이라 했고 고려 충렬왕 34년 (1308)에 文宗 탄생으로 安山郡이라 했으며 1914년 3월 시흥, 안산, 과천군이 시흥군에 흡수 될 때까지 974년간 지속되어온 이름이 안산이요 취암 즉 수리바위산이 진산 이었던 듯하다. (현재의 시흥시 안산동 소재지인 수암봉아래에 「옛 안산읍성터 및 관아터」가 경기도 기념물 127호로 보존되고 있음)

세종실록 지리지 (1454년간행) : 京畿 南陽郡 都護府 案山郡편을 보면 高麗開爲安山郡... 本朝因之. 鎮山. 曰鷲岩(在郡東)... 동국여지승람(1481년간행) : 案山郡 山川에 보면 修理山 : 군동쪽 1리되는 곳에 있으며 일명 견불산(見佛山)이라 한다.

鷲 岩 : 수리산에 있다.

大東地志(1864년간행) : 安山郡 山水에 보면 修理山 : 東五 一云太乙山 一云見佛山 頗峻高 有鷲岩峯 方言 謂鷲爲修理 「동5리에 있는 산을 일러서 태을산 또 일러서 견불산이라고 한다. 자못 크고 높은 취암봉(수암봉)이 있는데 독수리 취자를 일컬어 수리(修理)라고 한다. 경기도 지명유래 : 시흥군편 P477에 보면 「秀岩峯 옛 안산군의 진산, 수리산의 연봉으로 본래의 산명은 鷲岩... 등의 문헌 내용으로 봐서 취암 또는 취암봉이 수암봉이 되었지만 취자를 우리말로 「수리」라 하고 수리를 이두(吏讀)식으로 음만따서 修理라고 썼을뿐인 것이 대동지지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포시청 홈페이지 부분인용)

한편, 수리산의 또다른 이름인 태을산(太乙山)에 대하여는 명칭만 문헌에 전할 뿐 그 내력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태을’이란 도가에서 태을성신(太乙星神)을 말하기도 하는데, 가령 지리산을 가리켜 「택리지」에서는 태을성신이 사는 곳이라 하였으며, 태을성은 병란이나 재앙, 인간의 생사를 다스리는 별을 말한다. 또, 태을은 곧 태일(太一)로서 만유를 포함하는 대도(大道), 혹은 천지창조의 혼돈의 원기(元氣)를 말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풍수지리에서는 큰 독수리가 두 날개를 펼치고 날아 내리는 모습을 매우 귀한 지상(地相)으로 꼽으며, 이런 형상을 천을봉(天乙峰) 또는 태을봉(太乙峰)이라 부른다고 한다. 그 예로 일출 무렵 태을봉에 올라 그 그림자를 내려다보면 커다란 ‘태을’ 형상을 보인다는 증언이 있다. 그러므로 태을봉이라는 이름은 도가적인 태을성이나 풍수지리적인 태을봉에서 비롯된 이름이라 할 수 있으며 지금은 수리산의 가

장높은 봉우리에 그 이름이 붙여져 '태을봉(489m)'으로 불리고 있다.

수리산의 다른 이름중 하나인 견불산(見佛山)은 불가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견불(見佛)'은 불가의 '견성성불(見性成佛)'의 줄임말인데 선종에서 '자기가 불성을 깨달아 바로 봄으로써 각자(覺者)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로는, 옛날 수리산 수암봉 아래 지장골에 연암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절의 스님이 일심으로 수도하던 중에 지장보살을 친견하였으므로 절 이름을 지장사로 바꾸었고, 마을 이름도 지장골이 되었다고 한다. 수리산을 견불산이라 부르게 된것은 이러한 연유가 있다고 하겠다.

(『군포시 지명유래 및 씨족역사조사』 부분인용)

군포시 설화 37

둔내경로당, 2004년 11월 17일, 정형수, 男. 84세

수리산 이야기 1

천지개벽을 할 무렵, 이 인근이 모두 바다에 잠겨 있을 무렵에 지금의 수리산 정상이 '수리(독수리)' 만큼만 남았다고 하여 수리산이라고 불린다.

군포시 설화 38

수리산 이야기 2

택리지(澤里誌) (1756년에 발간된 것으로 추리함) : 경기편에 보면「廣州 서쪽은 修李山이며 安山 동쪽에 있다」는 식으로 이증환이 지은 택리지의 여러곳에서 오얏리(李)자 수리산 이라는 기술로 일관 되었음을 본다. 修李山이 맞는다면 다른 책에서도 볼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군포시청 홈페이지 인용)

군포시 설화 39

수리사 이야기

시흥군지 상권 p124에 보면 「수리사는 고려중기 瑜伽宗의 고승 관오(1096~ 1158)가 주지 한적이 있었던 사찰이기도 하였다...」는 내용으로 봐서 최소한 900년이상 된 사찰임이 확실하다. 앞서 밝힌대로 신라 진흥왕때(539~575) 창건 했다면 약1450년 전 전후가 될 수도 있다. 여하간 오래된 사찰임은 분명하나 현재는 조그마하고 조용한 사찰이며 연혁에 참고 할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역사가 오래인 수리사의 절 이름이 먼저인지 산이름이 먼저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 일이라. (군포시청 홈페이지 부분인용)

군포시 설화 40

내내경로당, 2004년 11월 17일, 정형수, 男. 84세

범밭골과 월미도 이야기

동래정씨 집안의 정난중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던 시대부터 내려온 이야기이니, 한 600여년 가량 이어진 이야기이다. 군포 2동(당동)과 오금동 경계의 수리산 줄기에 갈 치저수지 인근에 범밭골은 골짜기가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다. 범밭골에는 커다란 돌 굴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한 명 기어들어갈 만한 넓이라고 한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하나의 작은 굴이 있다는데 그 작은 굴을 자꾸 기어들어 가다 보면 인천의 월미도가 나온다고 한다. 그만큼 굴이 깊다고 하여 전해지는 이야기이다.

예전에 사냥을 하던 시절에는 포수가 사냥감을 몰아가면, 짐승들이 이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굴 입구에 불을 지펴 짐승이 나오도록 유인한 탓에 지금도 굴 입구에는 시커먼 자국이 남아 있다.

군포시 설화 41

둔내 경로당, 2004년 8월 5일, 정형수, 男, 84세

범밭골과 도깨비 이야기

윗동네를 범밭골이라고 했는데 범이 들썩 들썩 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전한다. 그곳은 나무가 우거지고 밤이면 사람도 지나다니지 않았는데 바깥에 있는 화장실에 갈 때도 내외가 무서워서 같이 가자 했다고 한다.

밤에 서 있으면 저만치 건너에서 불이 일어났는데, 도깨비불이 어느 집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다고 했다. 저녁에 키가 구척 같은 사람이 오라고 해서 갔다가 밤새도록 끌려 다녔는데, 새벽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부지깽이였다는 도깨비 이야기도 전한다. 도깨비불은 가랑골에서 나와 범밭골로 가곤 했다고 한다.

밤이면 범밭골에서 범이 내려와 집의 개를 물어 가곤 했다. 마을에서는 사람을 잡아가지 말라고 개를 한 마리씩 내주었다고 하며, 100여년 전까지만 해도 마을 연못에서 낚시질을 하면 범이 내려와 물고 갔다고 한다.

군포시 설화 42

둔내경로당, 2004년 11월 17일, 정형수, 男, 84세

갈치 저수지와 갈대

범밭골이 있는 산 인근에는 지금도 낚시꾼들이 즐겨찾는 갈치 저수지가 있다. 원래는 동네 이름을 따서 속달저수지라고 불려야 마땅한데, 행정구역을 나누는 과정에서 갈치 저수지라고 불리게 되었다. ‘갈치’는 ‘갈티’라고도 하는데, ‘갈티’는 예전에 이 일대에 갈대가 많았다고 해서 불려진 이름이다. 현재 대감천이 흘러내리는 그 일대의 들판으로 둔대초등학교 서쪽 들녘을 이른다. 근래에는 ‘노산(蘆山)’이라고 불리는 마을을 이른다.

군포시 설화 43

둔내경로당, 2004년 11월 17일, 정형수, 男, 84세

우물골 유래

수리산 줄기 야산에 있는 우물이 있던 지역을 우물골이라 불렀다. 예전에 이곳에서는 10월 상달이 되면 당주를 정하여 산고사를 지냈는데 고사를 지내던 시절에는 당제에 쓰던 물을 길렀던 우물이 있다고 하여 ‘우물골짜’ 이라고도 불렀다. 반드시 이 우물에서만 물을 길렀고, 평소에는 그 물을 신성히 여겨 먹지 않았다고 한다.

군포시 설화 44

둔내경로당, 2004년 11월 17일, 정형수, 男, 84세

우뢰산(우래산) 유래

대야동(둔내)의 둔터 마을 동북쪽에 있는 산으로 우뢰산 또는 우래산으로 불리는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 우뢰산이 지금의 수리산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려고 떠나려 오는데, 이미 수리산이 자리잡고 있어서 ‘울고 돌아섰다’ 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 산을 둔터에서는 안산이라 하고, 속달에서는 우래산이라 부른다.

군포시 설화 45

둔내경로당, 2004년 11월 17일, 정형수, 男, 84세

남덕골 유래

수리산에서 흘러내리는 반월천 상류의 마을로 속달동의 최북단에 있는 마을이다. 이 일대는 산골로는 조금 평퍼짐한 지대를 이루어서 ‘납작골’ 이라고도 불린다. 행정명으로 덕현(德峴)이라고 적는다. 이곳에는 군포8경의 하나로 선정된 ‘당숲’ 이 있어

그 아름다운 경치로 군포시민의 사랑을 받고있다.

군포시 설화 46

둔내경로당, 2004년 11월 17일, 정형수, 男, 84세

족두리바위와 도적 전설

도장동 넘어가는 길가의 놓여 있는 바위이름이다. 굴 속 위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놓여져 있고 인근에 '솜털김'이라고 불리는 풀이 많이 나 있는데,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풀로 알려져 있다. 예전에 이 바위 부근에 도적들이 많이 나와서 여인들의 피해가 심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바위 모양이 여인들이 쓰는 족두리처럼 동그랗게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예전에 이 길을 넘나드는 사람들은 그 바위를 여자의 성기로 여겼다고 한다.

군포시 설화 47

둔내경로당, 2004년 11월 17일, 정형수, 男, 84세

봉수굴과 노적봉

인근에 쌍마혈이라고 하여 이쪽에도 들판, 저쪽에도 들판이 난 곳이 있다. 그래서 한쪽은 큰 봉수굴, 나머지는 작은 봉수굴로 불렸다. 현재 덕고개 덕현(德峴)으로 가는 길에 있는 지역을 이르는데, 판서굴의 남쪽이 작은 봉수굴, 판서굴의 위쪽이 큰 봉수굴이다. '봉수'는 옛날에 통신수단인 봉수대를 뜻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큰 봉수굴과 작은 봉수굴에서는 노적봉을 산처럼 쌓았는데, 산을 사이에 놓고 쌓은 큰 노적봉, 작은 노적봉 위에 사람들이 서로 바라볼 정도로 높게 쌓았다고 하며 그만큼 노적봉을 산처럼 쌓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군포시 설화 48

둔내경로당, 2004년 11월 17일, 정형수, 男. 84세

새말 유래

‘방죽둑’이라고 불리던 이곳은 원래 반월 저수지 인근의 밭둑이었다. 현재는 반월 저수지가 생겨 물 속으로 잠겨 방죽둑이 되고 말았다. 지형 이름대로 지형이 변하는 꼴이 된 셈이다. 인근에 ‘새말’이라고 불리는 곳이 전해지는데, 지금은 그린벨트에 묶여서 마을이 크게 조성되어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마을이 크게 들어설 곳이다.

군포시 설화 49

둔내경로당, 2004년 8월 5일, 정형수, 男. 84세

호랑이 나온 이야기

겨울이면 보리밭 위로 눈이 내려 쌓이곤 하였다. 예전에는 인분을 받아 보리밭에 거름으로 썼다. 거름을 주러 보리밭에 가면, 간밤에 호랑이가 지난 흔적을 볼 수 있었다. 눈 밭 위에 호랑이 발자국이 남아 있어서 호랑이가 마을에 다녀간 줄 알았다.

군포시 설화 50

둔내경로당, 2004년 11월 17일, 정형수, 男. 84세

동래 정씨 동래부원군 증가(문익증家)의 묘자리

동래정씨 정난중 할아버지는 슬하에 삼형제를 두었는데, 둘째 아드님인 문익증의 자손들에서 가장 정승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보통 문증의 산소는 할아버지부터 층층이 내려 앉는 형국인데, 문익증 가문의 산소는 할아버지 묘소가 가장 아래에 위치해 있다. 칼을 끼었다가 빼는 형국인 ‘도장혈’이라고 하여서 제일 아랫부분에 가장 큰 어르신이 계시고 위로 올라가면서 산을 써야 한다고 하여 배치하게 된 것으로 지금도

풍수지리를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당이다.

군포시 설화 51

둔내 경로당, 2004년 8월 5일, 정형수, 男. 84세

동래 정씨 내력

동래 정씨 4형제 중 둘째 아들이 서울 회현동에 정착을 하여 살았다. 슬하에 아들이 둘인데 둘 다 급제를 했다. 큰아들은 창원부사를 지냈고 둘째아들은 영의정을 지냈다. 둘째 아들님 자손 가운데 정승이 열 두 분이 나왔다.

큰아들은 지리학에 능통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며 예천에 묘터를 잡았다. 그런데 아우가 터를 달라 하기에 안 줄 수 없어 먼저 죽는 사람이 묻히자고 했다. 이에 예천에 동래정씨 묘를 썼다.

군포시 설화 52

둔내경로당, 2004년 11월 17일, 정형수, 男. 84세

판서골 유래

현재 속달의 갈치저수지 서쪽에 있는 마을이름이다. 옛날에 어느 분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정승과 판서가 많이 나온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는 괄, 여, 지 삼성(三姓)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정씨와 이씨가 일가를 이루고 있다.

군포시 설화 53

둔내경로당, 2004년 11월 17일, 정형수, 男. 84세

점성고개

점성고개는 반월저수지 인근에 있는 고개이다. 현재 안산시로 넘어가는 길목의 고

개이름으로 바지고개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재 중앙동 인근이며, 이 밖에 '무내미' 라는 곳이 있다.

군포시 설화 54

둔내경로당, 2004년 11월 17일, 정형수, 男. 84세

구룡굴 유래

군포시에서 안산시로 넘어가는 지역인 대야동의 송정 마을 서쪽 골짜기 부근에 '구룡굴' 이라는 곳이 있다. 명칭에 대한 정확한 유래는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본래 아홉 구멍이 뚫린다고 예언된 곳인데, 지금은 여섯 개만 뚫려 있어서 세 개의 굴이 더 뚫려야 된다고 전해진다.

군포시 설화 55

둔내경로당, 2004년 11월 17일, 정형수, 男. 84세

정장들 이야기

대야미 역전 인근 안쪽 마을을 가리킨다. '행갈들'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작은 봉수골, 속달천 등의 물이 흘러드는 곳이다. 예전 수리시설이 귀하던 시절에 벼의 경작이 용이하여 이 일대에 논농사가 성하였다고 한다.

군포시 설화 56

둔내경로당, 2004년 11월 17일, 정형수, 男. 84세

신성한 군웅숲

10월 초하루에 군웅제를 지내는데, 속중대왕이 군웅제를 지낸 숲이라고 해서 불리워진 이름이다. 군웅이란 능을 위하는 것을 말하는 듯하다. 이 일대에 예전에는 커다

란 연못이 있었다. 예전에는 이 인근에 부정한 것들을 가지고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신성시 했다고 전해진다.

군포시 설화 57

2004년 12월 16일 전화인터뷰. 박계일, 男, 64세

군옹터 고사

덕고개 언덕에서 쪽 내려오면 구룽지가 있는데, 구룽처럼 생겼다고 해서 '구룽터' 라고 부른다. 이 군옹터는 마을에서 신성하게 생각하는 곳으로, 매년 음력 10월 1일에 군옹터고사를 지낸다. 군옹터에는 벚짚으로 만들어 놓은 터주가리가 있는데, 매년 벚짚을 갈아주고 통돼지를 올려 제를 지낸다. 고사를 지낼 때는 농사가 잘 되어 풍년이 들게 해 달라고 빌고, 마을의 일년 간 안녕을 기원하며, 마을 집집마다 다 축원을 해 준다. 이 군옹터 고사는 200년 가까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다.

군옹터 주변의 군옹숲은 수령이 200년 이상 된 신갈나무 등이 우거져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숲으로 꼽히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군옹숲을 신성하게 생각해 숲에 들어가지 못하게하고, 그 옆을 지날때도 조심스레 지나갔다고 한다.

군포시 설화 58

둔내경로당, 2004년 11월 17일, 정형수, 男, 84세

테미산과 용의승천

대야동(둔내)의 반월저수지 동쪽 끝에 위치한 산이다. 산 정상은 안산시와 군포시 경계가 된다. 둔터마을 동북쪽의 우뢰산이 이 산 때문에 북쪽으로 밀려나서 테미산 남쪽 남사평이 서울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한다.

또 이 인근의 저수지가 막히기 전에 귀가 달린 커다란 구렁이가 살았다고도 한다. 이 구렁이가 이무기가 되었다가 용으로 승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구체

적인 이야기는 알 수가 없다. 봉우리가 테를 두른 듯이 동그란 형상을 하고 있다.

군포시 설화 59

둔내 경로당, 2004년 8월 5일, 정형수, 男, 84세

둔내 마을 명당 내력

지리로 볼 때 둔내 마을은 수원 갯겨산(?)에 뻗은 것이다. 수리산 상봉은 태양봉과 그랑봉이 있는데 해발로 따지면 태양봉이 조금 더 높다. 그랑봉은 미군이 들어와 등 성이를 깎아 놓아 얇은 것이다. 수리산 산 자락은 산본 신도시 뒤로 내려왔다가 다시 솟아 있다가 뭉친 형세이다.

군포시 설화 60

둔내경로당, 2004년 11월 17일, 심규일, 男, 76세

학자골 옥심많은 부자이야기

예전에 학자골에 커다란 기와집이 한 채 있었다고 한다. 옛날에 큰 부자가 살았다는 집이다. 학자골의 부자는 날마다 찾아오는 손님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 하루는 중이 시주를 왔길래 도대체 귀찮아서 못살겠으니, 손님을 그치게 할 방도를 알려 달라고 하였다. 중이 선심을 베푸는 일이 마땅하다고 타일렸지만, 주인이 계속 졸라대자 학자골 넘어가는 골짜기에 돌담을 치면 손님이 그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주인은 귀찮은 마음에 당장 일꾼들을 시켜 돌담을 쳤다. 그 이후로 집안이 홀랑 망하여서 찾아오는 손님도 없어지고, 와도 줄만한 양식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제 2 장 군포의 일반 전설 · 설화 · 민담

군포시 설화 1 재궁동 T. 1

무궁화 아파트 벤치, 2004. 8. 5. 김정식, 남, 51세

원효대사 이야기

원효대사가 산넘고 물 건너서 당나라로 유학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산골짜기에서 자게 되었다. 자다가 목이 말라서 일어나 두리번거리다 보니, 저쪽에 하얀 바가지에 물이 보였다. 하얀 달빛에 비친 물은 무척 맛있게 보였다. 달빛이 하얗게 비치는 바가지의 물을 반쯤 맛있게 먹고 대사는 다시 잠이 들었다.

자다가 눈을 떠보니 날이 밝아 있었다. 그래서 가지고 간 보리개떡을 몇 개 먹고 물이 먹고 싶어서 어젯밤 먹던 물을 찾았다. 그 물을 마시려고 바가지를 보니 바가지가 아니라 해골이었고 옆에는 구더기가 우글거렸다. 어젯밤에는 그렇게 맛있었던 물이 아침에 보니 먹을 수가 없었다.

이것을 본 대사는 ‘그릇도 똑같은 그릇이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요, 물도 똑같은 물인데 어젯밤에는 그토록 맛있었던 물이 날이 밝으니 먹을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문득 깨달았다. ‘아 그렇구나. 일체유심조(一切有心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대사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중국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생각해 당나라 유학을 그만두고 다시 고향인 신라 서라벌로 돌아왔다.

서라벌로 돌아 온 대사는 물 바가지에서 얻은 깨달음을 가다듬고 정진해 큰 스님이 되었다.

군포시 설화 2 재궁동 T. 1

재궁동 경노당, 2004. 8. 5. 김세진, 남, 75세

흥부와 놀부

옛날에 놀부와 흥부가 살았는데 말이니 놀부가 참 맘이 너무 착해. 그런데 형이 되는 흥부는 잔인해 그 형은 잘 살구 동생은 가난해. 지금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지만 옛날에는 힘들었어. 동생인 놀부는 고생고생해서 겨우 살어.

놀부는 자식들은 우글우글 많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판이라 형을 찾아가서 “이러저러 해서 왔습니다. 아이들이 굶어 죽겠으니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하고 보리쌀이라도 좀 달라고 하면, 보리쌀이나 좁쌀을 한웅큼 줌을 주고는 형수가 투덜대고 야단을 해.

그런데 맘이 착하니까 하늘이 도와던 모양이야. 어느 날 제비가 날아오더니 처마 끝에서 “비비적 비비적” 울다가 박씨를 하나 툇 떨어 뜨리고 갔어. 그래서 놀부가 “그 참 신기하다. 제비가 박씨를 다 떨구고 가네.” 하며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을 처마 밑에 심었어. 옛날에는 지붕이 다 짚으로 엮은 초가집이었어. 그래서 박넝쿨이 지붕으로 번어 올라가게 해 놓았지. 거기서 박이 참 이쁘게 열려서, 가을 즈음 되자 박이 다 굳었어.

그래서 마누라를 보고 “제비가 물어 다 준 박이 참 이쁘고 곱게 열었으니 저걸 따다가 타자.”고 했어. 그래 박을 따다 놓고 톱질을 하는거야. 지금은 전기톱이지만 옛날에는 둘이 양쪽에서 붙잡고 ‘실쩍실쩍’ 타는 톱이었어. 놀부 내외가 실쩍실쩍 박을 타보니까 안에 박속은 하나도 없고, 금이니 은이니 하는 것이 막 쏟아져. 놀부 내외가 놀라다가 다시 다른 박을 타 보니, 이번에는 쌀이 막 나와. 나중에는 놀부네 오막살이를 치우고 그 자리에 지금으로 말하면 빌딩 같은 것을 세워줬어. 그래서 놀부가 잘 살게 되었지.

그런데 그 형이 들으니까 “놀부가 이러저러 해서 박을 해 가지고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들려.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서 “가서 동생을 잡아 와라.”고 시킨거야. 가서 착한 동생이라 형님 앞에 무릎을 탁 꿇구 앉으니까, 형이 “너 이놈, 밤잠 안자고 이슬

맞고 다니면서 무슨 도둑질을 했길래 그리 부자가 되었느냐?”고 물었어. 그래서 놀부가 “형님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러저러 해서 제비란 놈이 박씨를 물어다줘서 심었더니 박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박을 타니 안에서 쌀이고 돈이고 집이고 나왔습니다. 진짜 형님을 찾아 버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형님.” 하고 말했어. 형이 “그러냐.”고 하자 놀부가 “형님, 우리집에 가서 며칠 노시다 오세요.” 하고 흥부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왔어.

집에 가서 보니 놀부집에 이상한 게 있으니깐 “저건 뭐냐?”고 하자 “금은보화입니다. 저것은 나 원하는 대로 쌀 나오려면 나오고, 돈 나오려면 나오는 겁니다.”하자 “야 이놈아, 그거 싸라.”고 했어. 놀부는 형님이 말하니깐 그걸 전부 싸 줬어. 흥부가 그걸 짊어지고 집에 와서 ‘돈 나와라, 쌀 나와라’ 해도 안 나와. 그게 놀부 복에 태운 건데 흥부 말을 들을 턱이 없지.

그래 조금 있으니깐 제비가 날라오더니 박씨를 탁 떨어는 거야. 그래서 ‘동생이 그랬으니 나도 한다’ 구 이걸 갖다 심어서 잘 길렀어. 그래서 박이 여문 후에 박을 타니까 안에서 똥이 쏟아져서 똥무더기에 묻히게 됐어. 흥부네 그 좋은 집도 모두 똥에 묻혔지. 그래서 동생이 가서 죽게 된 형을 건져 줬대.

군포시 설화 3 재궁동 T. 1

재궁동 경노당, 2004. 8. 5. 김세진, 남, 75세

마우리고개 연못 전설

한강 줄기에 면포리라는 곳이 있어. 지금의 구리시지. 땅이 모래땅이라 땅콩이 아주 잘 되는 곳이야. 그 마을 입구에 마우리 고개라는 고개가 있어. 근데 그 고개 밑에 연못이 하나 있어. 한강은 저 아래 있는데 그곳에 연못이 있어. 그래서 동네 사람한테 “왜 이런 곳에 연못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

거기가 본래 아주 부잣집 집터였대. 부자 영감이 아주 구두쇠라 남에게 뭘 주질 않아. 어느 날 중이 시주를 왔어. 절에서 내려 보낸 중 말이야. 예전에는 많았어. 그 심청이 살린 중. 그 중이 집 앞에 와서 목탁을 탁탁 두드리며 “시주 왔습니다.”하니깐,

이놈의 영감이 소 길르는 마굿간에 가서 쇠똥을 퍼다가 시주 바가지에다 담아 줬어. 그런데 이 중은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라 “아, 참 감사합니다.”하고 받았어.

근데 그 집에서 영감의 아들하고 식모 하나는 참 착했어.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시주 바가지에 쇠똥을 퍼다 주거든. 그러니까 가서 “아이구 아버지, 그걸 드리면 어떡합니까.”하고는 “스님 주세요. 제가 씻어 드리겠습니다.”고 말했어. 스님이 이것을 보고 그 아들과 식모한테 “내가 돌아가고 저 모퉁이를 지나 안 보이게 되면은 대문 밖으로 빨리 나가라.”고 했어. 중이 아주 간곡하게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약속 하십시오.”하고 부탁을 했지. 그래서 아들하고 식모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

그러고는 딱 보니까 중이 금방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바깥으로 딱 나와 있는데 벌써 집은 간 곳이 없고 연못이 되어 버린거야. 그 연못이 지금도 마우리 고개에 있어.

군포시 설화 4 매화마을 T. 4

매화마을 2 노인정 2004. 8. 6. 유순이, 여, 76세

동삼이 아들 된 효자

옛날에 한 내외가 늦게 아들을 하나 낳아서 길렀어. 그때는 머리를 깎아서 길렀지. 그래서 애가 좀 크자 절로 공부를 하라고 보냈어.

아들이 절로 공부를 하러 간 후에 시아버지가 병이 들었어. 병이 들어서 ‘골망골망’ 해가지고 낫지를 앓아. 그런데 한번은 어떤 스님이 “동냥 좀 주십시오.” 하고 시주를 왔어. 그래서 그 중한테 동냥을 주면서 “우리 아버지 낫는 약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약은 좋은 약이 있습니다.” 그러는거야. 그래서 “무슨 약이냐?”고 좀 가르쳐 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스님이 “저 아무개 절로 가면 몇 살 먹은 학생이 머리를 길게 깎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을 데려다가 가마솥에 넣고 팔팔 끓여서 다려가지고 그 물을 먹이십시오.” 하고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그 스님은 이 집 아들이 어디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는 소리지. 그 부모의 맘을 알려고 그런거야.

그 스님 말을 듣고 보니 자기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거든. 기가 막히지. 자기 애를 그

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남편에게 “스님이 오셔서 이러저러 했다.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만 부모는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고 했어. 그래서 부부가 시아버지 몰래 아들을 데려오기로 했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러 절로 가는데 가는 중간에 아들을 만난거야. “너 어떻게 오느냐?”고 하니까, 아들이 “어쩐지 할아버지도 보고 싶고, 부모님도 보고 싶어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도 “잘 왔다. 그렇지 않아도 너희 할아버지가 네가 보고 싶다고 찾으신다. 돌아가실려고 그러는지 자꾸 찾으시길래 너를 데리러 가는 길이다.”고 했어. 아들도 “그럼 어서 가요.”하는거야.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맘이 아프고 아들이 너무 아까워. 그래도 할 수 있나.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오랜만에 왔으니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할아버지를 뵈라.”하고는 아들을 깨끗이 목욕시켜서 머리를 이쁘게 빗아줬어. 아버님이 드실 거니까 목욕을 깨끗이 시킨거지. 어머니는 가마솥에다 물을 펄펄 끓이고 있었어. 아들을 목욕을 시켜서는 가마솥으로 데리고 가서 머리를 감아 쥐고 끓는 물에다 거꾸로 쳐박아 버렸어.

그래서 그 물을 다려서 한그릇을 떠다가 식혀서 아버님께 드렸어. 그 물을 마시자 아버지는 “이 약을 먹고 나니 속이 시원하고 좋다.”고 했어. 약을 먹고나자 아버지 몸에서 벌레가 나와서 바닥에 우글우글 했데. 그래서 요강에다가 벌레를 쓸어 담고, 쓸어 담고 했어. 예전에는 요강이 있었어. 그래서 요강을 비워다가 벌레를 쓸어 담고, 쓸어 담고 했더니 나중에는 벌레가 안 나와. 그리고는 아버지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 그러니까 아버지 병이 문둥병이었던 거야.

그런데 얼마 후에 아들이 공부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 온거야. 부모는 깜짝 놀라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들한테 물으니까 “공부하다가 기한이 차서 돌아 오는 길입니다.” 하는거야. 그때 예전에 그 스님이 또 왔어. 스님이 “당신들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그 일을 하나 못하나 보려고 동삼을 아들로 만들어 보냈습니다. 못할 줄 알았는데 그 일을 해서 아버지도 살리고 아들도 살렸습니다.”고 했대. 효도를 진짜 하는지 불려고 삼을 사람으로 만들어 보낸거야.

군포시 설화 5 매화마을 T. 4

매화마을 2 노인정 2004. 8. 6. 유순이, 여, 76세

주인대신 떡 먹은 소금장수

옛날에 얼굴이 뺍뺍 얽어서 곰보인 소금장수가 있었어. 얼굴이 얽었을 뿐 아니라 목 소리도 코맹맹이 소리를 했어. 그래서 콧소리로 “자 소금 사시오.”하고 다녔어.

이 소금장수가 소금을 팔러 어느 동네로 들어갔어. 가서 “소금 사시오, 소금 사시오, 좋은 소금 왔으니 소금 사시오.”하고 외치고 다녔어. 그러다가 어느 집 문 앞에 가서 “소금 사시오.”하고 외쳤대. 그러자 그 집에서 한 영감이 나와서는 “소금 안 사요.”하는 거야. 그런데 이 주인 영감도 얼굴이 얽은데다가 코맹맹이 소리를 하는 거야. 소금장수는 “소금을 사라”고 하고, 주인은 “안 사겠다”고 하고 서로 실갱이를 하다가 날이 저물었어. 그러니까 소금장수가 “소금 안 살려거든 나 여기서 하룻 저녁 잠이나 자고 가게 해 달라”고 했어. 주인이 “우리 두 내외 밖에 안 살아서 잠 잘데도 없으니 다른데로 가라.”고 했어. 그래서 또 둘이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주인 할머니가 들어왔어. 이 할머니가 둘이 다투는 것을 보고 자기 영감한테 “왜 그러시냐?”고 물었어. 영감이 “잠 잘데도 없는데 자고 가겠다고 해서 그런다.”고 했다. 그러자 할멈이 “세상에 인간처에 인간이 왔다가 어두워 졌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여기서 자고 가게 하라.”고 했어.

그래서 셋이 한방에서 자게 됐어. 소금장수가 뒷문 쪽에 눕고, 그 옆에 주인영감이 눕고, 앞문 쪽에는 할멈이 누웠어. 한밤중이 되자 주인 영감이 “여보게, 여보게 할멈.”하고 불렀어. 할멈이 “왜 그러요?”하자 “오늘 밤에 떡이 엄청 먹고 싶네. 인절미 떡 좀 하게.”했어. 할멈이 “소금장수가 있는데 떡을 해서 어떻게 먹을려고 떡을 하라 그래요?”하자 영감이 “내 상투에다가 실을 묶어서 부엌에다 묶어두고, 떡이 다 되면 줄을 잡아 당기게.”했어. 할멈은 나가면서 “그럼 그러시오.”하고 떡을 하러 밖으로 나갔어. 그런데 둘이 하는 말을 소금장수가 다 들어 버렸어. 소금장수는 영감이 쿵쿵 잠이 들자 ‘웁다, 됐다.’ 하고는 주인 영감 상투에서 실을 끌어서 자기 상투에다 묶었어. 할머니는 나가서 쌀을 서너되 떠다가 찌서 떡을 했어. 떡이 다 되자 실을 잡아 당겼

어. 소금장수는 상투의 줄이 당겨지자 부엌으로 가서 떡을 싣 먹었어. 얼굴도 얇은 데다가 똑같이 코맹맹이 소리를 해서, 어두운 부엌에서 할머니는 소금장수가 자신의 영감인 줄 안거야. 소금장수는 떡을 싣 먹고 나서 “아이 잘 먹었다. 나는 가서 잘테니 자네는 치우고 들어오소.”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어. 그리고는 새벽에 소금장수는 달아나 버렸어.

날이 새자 진짜 영감이 일어나서 “엇저녁에 떡 좀 하라니까 자버리고 안 했는가?”하고 물었어. 할멈은 “아이 먹었잖아요.” 했지. “언제 먹었어? 나는 안 먹었는데.” “아니 엇저녁에 실 잡아 당기니까 나와서 양껏 먹었잖아요.” 하는거야. 주인 영감이 생각해보니 소금장수가 먹은 것 같거든. 그런데 소금장수는 이미 달아나고 없는거야. 그래서 화가 나서 소금장수를 잡으려고 갔는데 이미 멀리 가고 없지.

군포시 설화 6 매화마을 T. 4

매화마을 2 노인정 2004. 8. 6. 유순이, 여, 76세

원수 갚는 구렁이

옛날에는 불을 때서 만드는 소금이 있었어. 소나무로 불을 때서, 그 소금 만드는 곳을 ‘벗’이라고 해. 어떤 사람이 벗에를 갔다 오는데, 큰구렁이가 앞을 지나가더라.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는 메고 있던 삽으로 꼬리를 내리쳤더니 꼬리가 똑 끊어져 버렸어. 떨어진 꼬리는 팔딱팔딱 뛰는데, 구렁이는 밀밭을 헤치고 밀밭 속으로 도망가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

그때가 마침 여름이라 집에 와서 마루에 걸터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감나무에서 새 수십 마리가 막 울더라. 그래서 ‘뭐가 있길래 그러지?’ 하고 가서 봤데. 그랬더니 꼬리 잘린 구렁이가 피를 줄줄 흘리면서 감나무에 올라가서 집을 보면서 혀를 날름거리고 있더라. 그리고 잘린 꼬리는 담 밖에 있고. 이 사람은 ‘아이 이 구렁이가 어떻게 나 사는 곳을 알고 여기를 찾아 왔을까?’ 하고는 작대기로 구렁이를 걷어 넘겨서 죽여서 불에 태워 버렸어. 그리고 그 재는 다른 곳에 갖다가 땅에 묻어 버렸어.

몇 년 후에 구렁이 묻은 곳을 지나다보니, 그곳에 토마토 나무가 자라서 토마토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빨갱게 익었드래. 이 사람이 그 토마토를 따 먹지 않고 뽑아 태워 버렸대. 그것을 먹으면 안된대. 구렁이가 원수를 갚으려고 다른 것으로 변해서 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죽는대.

군포시 설화 7 매화마을 T. 4

매화마을 2 노인정 2004. 8. 6. 홍성분, 여, 71세

아버지 업는 효자이야기

옛날에 효자가 살았는데, 부모님께 효성을 다 했어.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 가셨대. 그런데 이 효자는 제삿날이면 아버지 산소로 가서 아버지를 모셔 오는 거야.

산소에 가서 “아버지”하고 부른 후 또 자신이 “왜 그러니?”하고 대답을 하는 거야.

“업히셔요.”

“업었다.”

그러면 ‘꽝!’ 하구 아버지를 업은 척 일어서서 집으로 오는 거야. 집에 오면

“아버지 내리셔요.”

“내렸다” 하고 내리는 시늉을 해. 그리고 제사를 다 지내고 나서는,

“아버지 업히셔요.”

“업혔다.” 하고 또 산소로 가는 거야. 산소에 도착하면,

“아버지 내리세요.”

“내렸다.”

“아버지 저 갈게요.”

“응, 그래라.” 하고 혼자 대답하고는 집으로 왔대.

옛날에 그런 효자도 있었대. 제삿날마다 아버지를 업어 모셔와서 업어서 모셔다 드렸대.

군포시 설화 8 매화마을 T. 4

매화마을 2 노인정 2004. 8. 6. 정혜문, 여, 81세

지렁이 먹고 눈 뜬 시어머니

옛날에 어떤 며느리가 있었대. 그 시어머니가 장님이었어. 남편이 과거를 보러 멀리 가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고기를 잡숫고 싶다고 하는거야. 그래서 며느리가 지렁이를 잡아다가 푹배기에다 끓여서 시어머니를 드렸어. 시어머니가 한 숟갈 먹어보니까 참 맛이 있어. 맛있는 음식을 대하니까 어머니는 멀리 떠나 있는 아들 생각이 났어. 아들에게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어서. 그래서 먹을 때마다 고기를 조금씩 남겨 두었다가 방에 깔아둔 돛자리 밑에다 넣어 놔어.

그러다가 아들이 돌아왔어. 어머니는 아들에게 “며늘애가 하도 맛있는 걸 해줘서 내가 너 주려고 남겨 놔다.”하면서 자리 밑에서 그걸 꺼내서 아들에게 보여줬어. 아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아이고 어머니, 이거 지렁이예요.”하니깐 어머니가 놀라서 “엥?”하며 눈을 번쩍 떴대. 며느리가 시어머니 미워서 지렁이를 줬는데, 그 덕분에 시어머니가 눈을 떴대. 미워라고 준 것이 효도가 되었어.

군포시 설화 9 매화마을 T. 4

매화마을 2 노인정 2004. 8. 6. 최양순, 여, 69세 / 홍성분, 여, 71세 / 정혜문, 여, 81세

밥 많이 먹는 마누라

옛날에 한 곳에 밥을 많이 먹는 마누라가 살았다. 마누라가 하도 밥을 많이 먹으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먹나 보자.’ 하고는 마누라에게 “오늘 일꾼이 열명 오니까 밥을 해 가지고 오라.”고 하고 들로 나갔다. 마누라가 밥을 해 이고 들로 나갔더니 일꾼들은 하나도 없고 남편 혼자 일을 하고 있었다. 마누라가 “일꾼들은 다 어디 갔느냐?”고 묻자 “오늘 일꾼이 다 취소가 되었다.”고 하면서 가지고 온 밥을 마누라 보고 먹으

라고 했다. 그런데 이 마누라가 일꾼 열명 몫의 밥을 혼자 다 먹어 치우는 것이었다.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챙겨 마누라는 집으로 돌아갔다.

남편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집 쪽을 보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 남편은 ‘그렇게 많이 먹고 또 뭘 하느냐고 연기가 나나.’ 싶어서 살짝 집으로 와 엿보았다. 마누라가 부엌에서 콩을 볶아먹고 있었다. 이것을 본 남편은 “그렇게 먹고 또 배가 고파 콩을 볶느냐?” 하면서 마누라를 질러 죽였다.

죽은 후에 보니 콩이 들어 간 부분의 밥은 삭어있고, 콩이 안 닿은 부분은 밥이 그대로 있었다. 마누라가 밥을 많이 먹고 그 밥을 삭히려고 콩을 볶아 먹은 것이다.

군포시 설화 10 매화마을 T. 4

매화마을 2 노인정 2004. 8. 6. 유순이, 여, 79세

똑똑한 아들 덕에 새경받은 머슴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는 부모가 있었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남의 집 머슴을 살았다. 일년이 다 지나 석달 그믐날이 되자 머슴에게 새경을 줘야 하는데, 주인 영감이 생각하니 줄 새경이 아까웠다. 그래서 그 머슴을 불러서 “산에 가서 독사를 잡아와라.”고 했다. ‘한겨울인 12월에 독사가 어디 있어서 독사를 잡아 오라는 말인가.’ 하고 머슴은 고민을 하며 집에 와서 끙끙 앓아누웠다. 이것을 본 다섯 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그러세요?”하고 물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이고, 우리는 이제 큰 일 났다. 일년 열두달을 공으로 일을 한 격이다.”했다. “왜요?” “독사를 잡아와야 새경을 준다는데, 지금 독사를 어디가 잡냐?” “아버지, 내가 가서 독사 잡아 올테니 걱정 마세요.” “이놈아, 네가 어디 가서 독사를 잡아?” “내가 잡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들은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주인 영감 집으로 갔다. 아이가 가자 주인 영감이 “네 아버지는 어디를 가고 네가 오냐?”고 했다. “예, 우리 아버지는 독사 잡으러 산에 갔다가 독사에 물려서 누워 계세요.” “야 이놈아! 독사가 지금 어디 있어서 독사에 물려. 이놈아.” “그러면 독사가 어디 있어서 우리 아버지에게 독사 잡아 오라고 하셨어

요?”

아이가 이렇게 말하자 주인 영감은 말을 못하고, 꿈쩍없이 새경을 물어 줬다.

이 며슴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며슴을 살았는데, 이 주인도 새경을 안 주려고 했다. 그러면서 “재로 새끼 서발을 까 오라.”고 했다. 이번에도 아버지가 집에 와서 앉자 아이가 “왜 그러세요?”하고 물었다. 그래서 이려고 저려고 했다고 말해주자 아이가 “새끼 서발을 꼬세요.”했다. 아버지가 새끼 서발을 꼭 주자 아이는 그걸 가지고 주인집 대문 앞에 놓고 불 태우며 “여기재로 새끼 서발을 꼭 왔으니까 세어 보라.”고 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겨서 새경을 받았다.

군포시 설화 11 매화마을 T. 4

매화마을 2 노인정 2004. 8. 6. 정혜문, 여, 81세

달래나 보지 고개

남매가 고개를 넘어 길을 가는데, 마침 소나기가 왔다. 피할 데도 없어서 남매의 옷이 흠뻑 젖고 말았다. 여름이라 얇은 옷이 젖자 몸에 착 달라 붙었다. 누이동생은 앞에 가고 오라버니는 뒤에 오는데, 앞에 가는 누이동생의 모시옷이 달라 붙어서 속이 환히 비치자 오라버니는 이상스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놈의 물건이 그렇게 참지를 못하느냐?’고 생각하며 자신의 물건을 돌로 찌었다.

누이동생은 한참을 가다보니 뒤에 오빠가 따라 오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해 다시 되돌아가보니 오빠가 돌맹이로 자신의 성기를 짓찧고 죽어 있었다. 이것을 본 누이동생은 그 상황을 이해하고 “아이, 달래나 보지. 달래나 보지.”하며 오빠 시신을 붙들고 울었다.

그때부터 그 고개 이름이 ‘달래나 보지’ 고개로 바뀌었다.

군포시 설화 12 매화마을 T. 4

매화마을 2 노인정 2004. 8. 6. 최양순, 여, 71세

딸을 범하려한 아버지

옛날에 부모와 딸 하나가 살았다. 딸은 과년해서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딸을 보고 자꾸만 탄 생각을 품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제사를 모시러 가고, 집에는 아버지와 딸만 남게 되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딸을 겁간 하려고 했다.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마루 구멍에 가서 아래를 들여다 보고 개짓는 소리 세 번만 하고 오라.”고 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마루 구멍에 가서 들여다보며 ‘멍멍멍’하고 짖는 사이에 딸은 도망쳐 버렸다.

군포시 설화 13 매화마을 T. 4

매화마을 2 노인정 2004. 8. 6. 배지순, 여, 88세

냉이 백번 씻어 제사상 차린 요자

옛날에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가난하고 동생은 잘 살어. 그래서 부모 제사를 지내는데, 동생은 아주 잘 차려서 지내. 그런데 큰아들네는 가난하니까 상에 올릴 게 없어. 그래서 들에서 냉이를 캐다가 백번을 씻었어. 그래서 그걸로 국을 끓여서 상에 올렸어.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잘 차린 동생네로 제사를 드시러 안 가고, 냉이를 끓여 올린 형네로 제사를 드시러 오시더라는거야.

이것을 보고 동생이 깨달은 게 있어서, 형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줘서 형도 잘 살게 해 주었어.

군포시 설화 14 매화마을 T. 4

매화마을 2 노인정 2004. 8. 6. 배지순, 여, 88세

고려장 이야기

옛날에는 사람이 늙었는데 얼른 안 죽으면 갖다 버렸어. 산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다가 등잔불을 켜 놓고 얼마 동안 먹을 음식을 넣어 준대. 그리고는 사람을 지게로 저다가 그 안에 넣어 놓는데. 그래서 등잔이 다 타 기름이 없어서 꺼지면 캄캄한 곳에 그냥 앉아 있는거야. 그러다가 먹을 것도 다 떨어지면 그때는 앉아서 굶어 죽는 거지. 그것을 고려장이라고 그랬대.

어느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고려장 시키려고 지게에 지고 산으로 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린 아들도 같이 따라왔어. 어머니를 산에 내려놓고, 지고 온 지게를 거기다 두고 가려고 하니깐, 따라 온 아들이 그 지게를 메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지게는 뭐 하려고 그러느냐?”고 물었대. 그러니까 아들이 “왜 버려요. 아버지도 늙으면 내가 이 지게로 저다가 고려장 시킬건데.” 하고 대답 했어.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크게 누우치고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갔대. 그 후부터는 고려장도 없어졌대.

군포시 설화 15 노인복지회관 T. 1

노인복지회관 2층, 2004. 8. 10. 유정임, 여, 78세

호랑이가 잡아준 묘자리

나의 15대조 할아버지 이야기야. 우리가 문화 유씨인데. 우리 15대조 할아버지가 지금 구월산에 묻혀 계시.

그 할아버지가 생전에 아주 유식하고 많이 배우셔서 관청에 다니셨대. 그때는 고려시대라 관청이 개성에 있었어. 관청에 다니려면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한번은 고개를 반쯤 올라왔는데 앞에 호랑이가 ‘어흥’ 하고 앉아 있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담이 크셨던가봐. 호랑이를 보고 “호랑아, 니가 나를 잡아 먹을래?” 하니깐 호랑이가 고개를 흔들면서 “어흥!” 하더라. 그래서 “그럼, 왜 그러느냐?” 하니깐 다시 “어흥!” 하며 쳐다보는데, 눈에 눈물이 줄 나는거야. 그래서 “아, 네 목에 뭐가 걸렸냐?” 하니깐 입을 벌리더라. 그래서 소매를 걷고 호랑이 목을 들여다보니 여자 비녀가 걸려 있더라. 여자를 잡아먹다가 비녀가 목에 걸린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 비녀를 빼 주었어. 그러자 호랑이는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돌아서서 가 버렸어.

그래서 할아버지도 집으로 돌아 갔어. 그런데 얼마 후에 할아버지가 그 고개를 넘는

데 또 호랑이가 나타났어. 그래서 이번에도 “오늘은 배가 고파서 나를 잡아 먹을려나?”하고 물었대. 그러니까 호랑이가 아니라는뜻으로 탁 돌아 앉더래. “타란 말이냐?”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 그래서 호랑이 등에 딱 탔대. 타니까 이 호랑이가 할아버지를 태우고 구월산으로 간거야. 그월산에 가서 한곳에 도착하자 땅을 파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할아버지가 “여기가 묘 자리냐?”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 그래서 그곳에 표시를 해 두고 다시 할아버지를 태워서 집앞 까지 모셔다 주더래. 그리고는 그 호랑이는 가 버렸어.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세상을 뜬 후에 호랑이가 잡아 준 그 자리에 할아버지를 모셨대. 그래서 그 명당 덕분에 우리 ‘문화 유씨’ 들이 번성 했어. 서애 유성룡도 우리 집안 어른이야. 구월산에 지금도 호랑이가 잡아 준 묘자리가 있대.

군포시 설화 16 노인복지회관 T. 1

노인복지회관 2층, 2004. 8. 10. 홍경애, 여, 63세

용감한 선비 이야기

옛날에는 괴나리봇짐을 짊어지구 과거 보러가는 선비가 있었지. 험한 산골을 넘어서, 인제 한양을 가게 되죠. 괴나리 봇짐을 지고 한양을 향해서 가다가 한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잔치가 열리고 있어요. 근데 잔치를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서글픈, 아주 환희의 잔치가 아니라 서글픈 잔치야. 그렇다고 해서 누가 죽은 것도 아니고, 누가 다친것도 아니고. 잔치는 잔친데 서글픈 잔치를 하고 있어. 그래 하루 저녁 묵고 가야 되겠는데, 하두 음식은 산더미 같이 해서 이리 나르구 저리 나르구 하면서두 한 사람도 웃는 얼굴을 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인제, 그 선비가

‘참 이상하다. 어찌 잔치, 음식을 많이 장만하고 잔치를 하는데, 어찌 이렇게 얼굴에 희색이 없구, 전부 우울한 감정 속에서 다 발이 무겁게 움직이고 있을까?’

그래 하루 저녁 묵고가야 되겠는데, 이런 상태라면은 ‘묵고 가겠습니다.’ 라는 말이 잘 나오지않겠구, 그래 한 사람을 그래두, 그 중에 좀 덜 바쁜 사람을 한 사람을 붙잡구

“여보시오. 나는 길 가던 나그넨데, 날이 저물어 하루 저녁 묵어 가려 그러는데, 어찌 이렇게 발들이 무겁게 웃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이렇게 무거운 잔치를 하시오?”

물으니까

“글쎄올시다. 기쁘지 않은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소이다.”

“그래 그 사연 좀 들어봅시다.”

“그 사연인즉,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할 얘기가 못 됩니다. 저기 저쪽으로 가서 저 어른신네한테 물으시구, 하루저녁 묵어간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 인제, 거길 찾아가서, 어른신네한테 인사를 공손히 하고

“나는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는 나그넨데, 날이 저물어 어디 하루저녁 묵어 갈려그러는데 어떻게 잔치는 잔친데, 무거운 발걸음이요, 한 사람도 웃은 얼굴을 한 사람이 없으니 말 붙이기가 너무 민망스럽소이다. 그런데 묵어 가지는 못할 망정 연고나 좀 압시다.”

그러니까 그 분이 하는말이.

“글쎄 올시다. 나도 희희낙낙하며 당신과 주안상이래도 놓고, 마주 앉아 잔이래도 한잔 기울이며 하룻저녁을 지새도 좋을텐데, 날을 잘못 택하여 오셨소. 오늘 저녁은 그럴 저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 그 연고나 알아봅시다.”

그 연고가 뭐냐하면, 그래 인제 서로 얘길 하다가, 그 연고를 얘기 해 달라고 선비가 조르니까

“하도 조르니 내가 얘거나 한번 해 보겠소.”

얘기를 시작하는데, 사당이 있는데, 옛날에는 제를 지내는 사당이 있지. 그 사당에 다 제물을 해 놓고는, 뭘 해야지 되느냐 하면은 처녀를 바쳐야지돼. 그런데 오늘은 그 마을에 제일 부잣집 외동딸이 가는 날이야. 그러니까 온 동네가 다 침울에 잠겨 있는 거야. 은이야 금이야 하고 기르는 외동딸이 인제 그 사당에 가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있으니까, 부잣집에 외동딸이니까. 또, 사당에 드릴 음식을 차려야지 되고 그러니까, 온 동네가 그렇게 침울한 가운데 인제, 온 제삿상을 차려야지 되고, 정말 어느 집 하인의 애가 가게 되어도 오늘은 아가씨가 하나, 처자가 하나 없어지는

날이다 해서 좋지 않을텐데, 이거는 부잣집 그동네 제일 부잣집 외동딸이 죽게 되는 날이니까 더 그래. 인제 옛날에는 그 고을에 큰집 외동딸이라 그러면 정말 그 날아가던 까마귀도 비켜갈 정도야. 그렇게 저 높았됐거든. 그랬는데,

“그 처녀를 바치는 날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 동네가 벌컥 뒤집혔다.”

고 그러니까

“그러시냐? 참 그렇겠다. 그런데 도대체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사당안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되느냐?”

고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는거야.

“모르구. 새벽 두세시쯤 되면은 처녀가 그냥 소리도 안내고 죽어서 형체가 없어진다.”

는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걸, 기가막힐 일이지. 그렇게 해서 새벽에 문을 열어보면 처자가 없다는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바깥에서 제삿상을 차려다 놓구, 밤을 새는거야. 제사는 초저녁에, 12시쯤이면 이렇게 지내구, 문을 닫아놓구, 처자가 갖다 놓구, 그렇게 하구는 밖에서 밤을 새구, 날이 흰하면 문을 열면 처자가 없는거야. 근데 오늘 저녁도 그렇게 하는 날이야.

“알았노라구, 그럼 한번 내가 지켜보면 어떻겠냐?”

구. 그 선비가 사정사정을 하니까

“그럼 우리 동네 망한다구. 큰일 난다.”

야단 하지.

“어디 동네가 망할러구, 뒤집힐러구 선비가 가서 그렇게 있으면 어떡해? 처자를 바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자도 바쳐놓으라구. 처자도 바치고 내가 지켜보겠느라.”

구.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대단했겠죠. 그 마을 사람들 하고 의 논쟁이. 그래서 제사를 지내구 처자는 처자대로, 늘 바치는 장소에 바치구, 그러구 인제, 선비는 선비대로 앉아서, 거기 앉아서 그 밤을 새게 됐어.

그런데 그 밤을 처자를 옆에다 놓구, 밤을 새구, 또 무서운 밤을 보낼러니까 그 선비도 얼마나 무섭겠어? 굉장히 무서운 밤이지? 그래서 옛날에는 선비들이 긴 담뱃대들

물었잖아. 그래서 입담배를 갖다 놓구 또 재떨이를 놓고 담배를 피워서 딱딱 재떨이에 털구는 또 피구, 딱딱 털구는 또 피구, 그러니까 그 좁은 사당에 담배연기가 자욱하게 깔을거 아냐? 그리고 옛날에 그 길다란 담뱃대는 담뱃진 냄새가 무지하게 났어요. 그 담뱃대 안에 진이 있잖아. 그 진 냄새가 보통 아닌대다가, 이거는 그냥 연방, 무서우니까는 그거만 폼뽀니 거기서 나오는 땃진 냄새가 보통 났겠느냐 이런얘기야. 생각을 해봐. 얼마나 무서운 밤을 보내면서 ‘무슨 일이 있을까?’ 하구 그냥 그것만 피워 땃어. 근데 두시쯤 됐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냐면

“두시쯤이면 무슨 소리가 나고, 그렇게 해서 인제 새벽에 문을 열면은 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고 그랬거든. 이제 제사를 지내구 이경, 삼경 그랬지. 옛날에는. 그렇게 됐는데 그 시간은 됐는데 그때쯤이면 됐는데 아무 연고가 없어. 그래서 인제 그 바깥에서는 더 궁금해졌지. 사람들이 다 궁금해서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그 선비는 같이 죽었을까? 처자는 죽었을까? 살았을까?”

뭐 마을 사람들이, 수근수근 그 마음에 있는거를 누구하고 얘기를 못하고 참, 마음만 애타고 이렇게 되었는데 선비는 선비대로 무서우니까는 연신 그 담배대를 또 털구, 또 털구, 또 털구 그래.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 사당이 연기가 자욱하게 끼서, 이 처자가 기침을 할 정도여. ‘칼락칼락’ 기침을 할 정도로. 그런데 이 처자는 기침은 나오는데 소리도 못 내는거야. 그래 이제 입을 틀어막고, 그 처자는 냄새를 그저 안 맡을라구 애를 쓰구 있구, 근데 이제 땃진 냄새하구 연기는 자꾸 위로 올라가고 그랬는데 삼경, 사경쯤 되니까 대들보 있는데서 뭐가 ‘탁!’ 떨어지는 거야. 그래 떨어지는 걸 보니깐, 그 지네 있지? 지네. 지네가 말만한 지네가 떨어지는거야. 대들보 위에서 살았어.

그게 왜 떨어졌느냐 하면은 지네는 담배연기하고 땃진 거기에 약해. 그래서 땃진 냄새에 약해 가지고 취해서 떨어진거야. 그래서 지네를 잡고 이 이튿날 처자는 살구, 선비도 그 동네 사람들한테 많은 치하를 받구, 대우를 받구 상경 했다는 얘기야. 그게 용감한 선비 얘기야.

군포시 설화 17 노인복지회관 T. 1

노인복지회관 2층, 2004. 8. 6. 박의화, 여, 72세

은혜깊은 까치

선비가 과거 보러 피나리 보따리를 지고, 저 깊은 산속을 걷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서울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려면 걸어서 가니까 아주 여러 달 걸려서 가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깊은 산속을 지나가는데, 너무 배도 고프구, 목도 마르구, 저기 쉬어갈 곳도 찾아야 되구 그러는데, 어디서 막 까치가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는거여. 아주 슬프게. 그래서 가다가

“어디서 이렇게 까치가 우나?”

하고 보니까 큰 나무 위에 까치집을 짓고 새끼가 우물우물 하게 있는데, 거기 큰 구렁이가 기어 올라가는거야. 나무 위로. 그러니까 이 까치 애미는 자기 새끼들을 뱀이 잡아먹으로 올라오는 걸 보고 아주 너무 애처워서 막 우는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선비가 자기가 메고 가던 활, 활을 꺼내가지고 그 뱀을 탁! 쏘서 잡었어. 그래 놓고서는 다시 길을 가는거죠. 그래서 과거를 보고 집에 와서 있는데, 하루는 낚시질을 갔어요. 연못으로 낚시질을 갔는데, 그 연못이 자신이 까치를 구해준 곳에있어. 까치가 집을 짓구 살다가 뱀을 만나가지고 당했을때 자기가 활로 그 까치를 구해준 그 나무 밑에 큰 연못이 있거든. 인제 거기 시원한 곳에 앉아서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낚시질을 하는데, 이 선비가 하루종일 고걸 잡아도 고기가 영 잡히질 않아. 그래서 저녁쯤 되자

“아 그만 가야 되겠다. 갔다 내일 다시 와야 되겠다.”

하는데, 늦게 저녁에 와서 고기가 하나 잡혔는지 너무 커 가지고 끌려나오지를 안해. 그래서 ‘큰 고기가 잡혔나보다’. 이렇게 기뻐서 끌어내 보니까 큰 장어가 한 마리 나오는 거야.

“야 이거 가지고 가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겠다.”

하고 장어를 가지고 가서는 집에를 가서는 요리를 하려고 잘르니까 장어 속에서 칼이 나오더라. 자기가 그 뱀 쏠때 칼을 차고 갔는데, 그 활을 쏘고나서 차고 있던 칼을

그 뱀한테 탁 던졌더니 마침 뱀이 몸에 탁 맞아서 칼자루가 딱 부러져서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이 장어 배를 갈러보니까 그 칼 자루가 이 장어 뱃속에 들어있는거야. 그래서 이 선비가

“아, 이상하다. 내가 칼 가지고 뱀을 죽인 칼자루인데, 이게 어떻게 장어 뱃속에 들었을까?”

그러구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와서 그 장어를 끓여먹은거야. 끓여먹고났더니 배가 살살 아프더니 그 다음부터는 배가 이렇게 부어 오르는거야. 배가 부어 오르는데

“이제는 죽을 수 밖에 없구나. 도저히 내가 살 길이 없구나.”

그래서 너무 그냥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돛자리를 하나 가지고는 그 정자나무 밑에 가서 시원한데 깔어놓고, 거기가서 그렇게 누워 있었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신음하면서. 시원한 사람이 슬슬 불어오니까 잠이 사르르르 들었어.

근데 그 정자나무에 까치집이 있었어. 까치가 마침 그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자기를 구해준, 자기 새끼들과 가족을 구해준 그 선비야. 그래서 까치가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까치들이 그 부리로, 새 입을 부리라고 하지? 그 부리로 그 불쑥 나온 배를 콕콕 찌르니까 그 배 안에서 뱀 새끼들이 우굴우굴우굴 나와. 그래가지고 그 선비가 살았어. 그러니까 그 까치가 자기를 구해 줬으니까 선비한테 은혜를 갚은거죠.

군포시 설화 18 노인복지회관 T. 1

노인복지회관 2층, 2004. 8. 6. 박의화, 여, 73세

곰와 다람쥐

깊은 저 숲속에 눈 먼 곰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 곰이 하루는 배가 고파 먹을 것을 구하러 나오다가 언덕 밑으로 굴러서 떨어져 다쳤어요. 그래서

“아구구구...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눈 먼 곰이라고 모두들 다 친구들이 무시하고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거야. 그런데 다람쥐가 한 마리 지나가다가

“아구, 나 좀 살려줘!”

하고 신음 하는 소리를 듣구,
 “아이구, 곱아 왜 그러니?”
 하고 보더니, 곱이 다친 것을 보고 다람쥐가 이 곱을 치료해 줬어요. 그래서 둘이 친구가 된 거야.
 “야, 우리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자.”
 “그래” 그렇게 약속하고는 다람쥐와 곱은 헤어졌어요.
 근데 하루는 다람쥐가 헐레벌떡 헐떡이며 달려오더니
 “나 좀 도와줘!”
 하고 곱 앞으로 오는 거예요.
 “아이구, 지금 포수가 나를 잡으로 오는 거야. 나 좀 숨겨줘.”
 그러니까 곱이
 “아이구, 이리 와 이리와. 내 배에 숨어 있는게 어때?”
 그러구선 자기 배에다 다람쥐를 넣고 살짝 앉았어요. 그러니까 다람쥐가 쪼그마니까 안 보이지. 그때 막 포수가 막 달려와 가지고,
 “아이구 곱아 곱아! 너 여기 다람쥐 하나 달려왔는데 못 봤니?”
 “아이, 나는 눈이 멀어서 너도 안 보이는데 다람쥐를 어떻게 봤겠니?” 했어요. 그러자 포수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곱 덕분에 다람쥐는 목숨을 구했어요.

군포시 설화 19 노인복지회관 T. 1

노인복지회관 2층, 2004. 8. 6. 박의화, 여, 73세

오랑이 잡아 부자 된 소금장수

소금 장사가 있었어. 이런 마을 근처는 가게들이 많아서 소금을 각자 사다 먹으니까 소금이 잘 안 팔려. 그래서 저 후미진 산골 이런데로만 소금을 팔러 다녀. 나귀에다 소금을 싣고서는 다니는데, 하루는 깊은 산골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집을 찾아서 가 봐도, 하루 종일 소금 하나도 못 팔때도 많아. 그래 하루는 가다가다가 산속을 가다 보니까 해는 저물고, 배도 고프구 어디 하루 묵어서 가야되는데, ‘어디 하루 잘

집이 없나?’ 하고 살펴보니까 저 숲속에서 불이 반짝 반짝 비치더라.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아이, 주인장님, 가다가 이렇게 저물어서 그런데 하룻밤만 묵어갑시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반갑게 맞이해줘서, 거기서 저녁도 얻어 먹고, 거기서 하룻밤 인제 자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소금 장사 잘 됩니까?”

“아이고, 뭐예요. 아이 오늘 하루 다리만 아프지 하나도 못 팔았어요. 그 산골짜기에 집 하나 있는거 찾아가면 소금 사는 사람도 없고. 그 한집 바라고 가가지고, 그 뭐 다리만 아프고 헉기지고 배만 고프다.”

“그러면 내가 돈버는 거 하나 가르켜 줄 테니까, 하겠소?”

“그래 돈버는 거라면 뭐든지 하죠.”

“그러면 오늘 나랑 칼을 갈읍시다.”

“뭐요? 칼을 갈아서 도둑질 하자는 거요? 나는 아무리 가난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도 도둑질 같은 건 안해요.” 그러니까

“아이 도둑질이 아니라니까요.”

“아이 도둑질 아니면 무슨 칼을 갈아요? 아이 싫어요. 나는.”

돈을 벌기는 벌어야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둑질은 아닌 것 같아. 그래 나중에는 거절하다가

“그럼 그럼시다.”

그러구서 그 밤에 들어서 뒤란으로 나가갖고 칼을 몇십 자루를 들어서 열심히 갈은 거예요. 그런데 밤이 깊어니까 주인이 “이 칼자루를 메구 나를 따라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칼을 짊어지고는 돌이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 가다가 큰 나무 밑에서 멈추더니, “거기다가 칼을 전부 거꾸로, 칼 자루가 땅 속으로 들어가게 거꾸로 이렇게 다 심어놓라, 다 묻어놓라.” 이려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게 딱딱 밟아서 나무 주위에다 칼을 전부 거꾸로 묻었어요. 날을 위로 오게해서 전부 묻어놨어. 그리고서는 이 영감이 하는 말이

“저 나무 위에 가서 자라.”는 거야. “거기 잘 자리 전부 내가 자리 깔아서 해 놔으니 까 그 위에 가서 자라.”

“아니, 이 밤에 나 혼자 거길 올라가서 내가 어떻게 거기서 자느냐?”

“오늘 하룻밤만 거기서 자면은 엄청난 돈을 벌 거니까 거기 올라가서 하룻밤을 자라.”

그래서 인제 거기까지 킁킁한 밤에 따라왔으니 뭐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 좋게 이렇게 잘 자리를 해 놔더라. 그래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느라 너무 피곤해서 무서운 것이고 뭐고 다 잊고 그냥 드러 누워 잠이 들은 거야. 그리고 새벽녘이 눈을 떠 보니까, 그 나무 밑에 호랑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짐승들이 모여서

“이야, 어디서 인내 난다. 인내 난다.”

하면서 호랑이들이 막 몰려와서는 그 나무 위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잡아 먹으려고 올라오다가 그냥 툭 떨어지면 칼이 꼽히는 거야. 칼이 꼽혀갖고 죽구 죽구. 그래 갖고 아침에 보니까 호랑이들과 짐승들이, 멧돼지니 뭐니 수북하게 죽어있더라요. 그러고 있는데 그 주인이 와 가지고는

“이거 보라고, 내려 오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둘이 그 호랑이 가죽을 벗겨가지고 장에 가서 팔아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야. 이제 소금 장수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러저러 해가지고 부자로 잘 산다는 소리를 이웃에 있는 심술쟁이 영감이 들었어. 그래서 그 산 속에 있는 집을 찾아갔어. 찾아가가지고는

“아이고 나도 돈 벌러 왔습니다.”

“아이 잘 왔어요.”

그러고서 둘이서 칼을 밤새도록 갈아가지고 깊은 밤에 그 산에 갔어요. 산에 가다가만 있어, 이 사람은 뭐 장사도 않고 편한 사람이니까 잠도 안오고 피곤하지도 않아.

“이 놈의 호랑이들이 얼마나 와서 많이 죽나?”

하고 자지도 않고, 이렇게 지켜보는 거야. 그런데 호랑이들이 밤이 깊으니까

“아이, 어디서 인내 난다. 인내 난다.”

하고 막 여기저기서 몰려오더니 잡아 먹을라고 막 따라 올라오다가는 떨어져 죽구, 떨어져 죽구 그래. 새벽녘에 가니까 호랑이들이 수북하게 떨어져 죽었어.

그런데 이 심술이, 마음이 나쁜 이 영감은 둘이 나누면 자기 몫이 줄어들니까 혼자

가죽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소금장수는 둘이 나뉘는데도 부자가 되었는데, 이거를 나 혼자 다 벗겨갖고 가면 그거보다 더 부자가 되겠다.’ 하구서는 주인이 오기 전에 빨리 내려와서 호랑이 가죽을 벗겨서 혼자 팔아먹으려고 했어. 그래서 욕심을 내고 내려오다가 떨어져서 칼에 꼽혀서 죽었어.

군포시 설화 20 노인복지회관 T. 1

노인복지회관 2층, 2004. 8. 6. 홍경애, 여, 73세

반쪽이 이야기

옛날에 외딴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 사람들은 모두 마을에 사는데 이 집만 외딴 곳에 사는 거야. 그 집이 왜 외딴 곳에서 살았느냐 하면,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 큰 아들은 멀쩡한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은 태어났는데, 모두가 반쪽이야. 얼굴도 반쪽이고 몸도 반쪽이고 다리도 반쪽이고 팔도 반쪽이고, 전부 반쪽이야. 근데 힘은 장사야. 힘은 장산데 반쪽이지.

그런데 반쪽이 동생이 아주 우애가 있어서 형을 그렇게 좋아하며 따라다녀. 근데 이 형은 어디 가든지 이 반쪽이가 걸리적거리는 거야. 친구들한테 가도 걸리고 어디 일을 하러가도 걸리구.

“너는 왜 멀쩡한데, 왜 네 동생은 반쪽이나?”고 친구들이

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생이 따라다니는 게 그렇게 싫었어. 그래서 형이 ‘이 반쪽이를 떼어놔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산으로 가자. 산으로 가자.” 이라고 동생을 데리고 산으로 갔어. 산에 가다가 세갈래 길이 나오니까 “너는 이쪽으로 가라. 나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서로 만나자.”하고는 동생을 다른 길로 보내고 자신은 다른 길로 가서 안 만나려고 해.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게 되어서 또 집에 같이 들어오게 돼.

하루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나무에다 동생을 묶고 오면은 산짐승들이 잡아 먹어서 저 동생이 없어지겠지.’ 하구선, 큰 나무에다가 그 반쪽이를 퐁퐁 묶고 저만 집에 왔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야, 반쪽이는 어찌고 너 혼자왔나?”

그러니까

“내가 빨리 뛰어왔지 뭐. 반쪽이 이제 들어올거예요.”

그렇게 애긴 했지만은 반쪽이 안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지. 어머니 아버지는 반쪽이가 안 들어오니까 주무시질 못하고 인제 왔다갔다 하는데, 애는 신나게 자는 거야. ‘인제 동생이 없어서 거리낄 것이 없겠다.’ 싶어서 잤어. 밤중쯤 되니까 마당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반쪽이가 그 나무를 뿌리째 뽑아가지고 지고 왔어. 퐁퐁 묶인 채로 말이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게 웬일이냐? 자초지종을 얘기해라.”

그러니까는

“아이구, 저기 형하고 산에 올라갔다가 형을 잊어버렸는데, 길 찾다가 어떤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퐁퐁 묶어놔어. 그래 내가 그 사람들 잠 들은 다음에 집에 왔어.”하고 말하는 거야.

“잘 왔다구.”

그러니까 반쪽이가 얼마나 기운이 센가를 인제 짐작하겠지?

다음날 형은 다시 반쪽이를 데리고 산으로 가는거야. 그래서 얼마큼 얼마큼 들어가니까 큰 바위가 있어. ‘이 놈이 여기다 묶어놓으면 인제 니가 못 올 것이다.’ 하고서는 큰 바위에다 놓고 퐁퐁 밧줄로 묶어놓고는

“넌 여기 있어. 넌 나를 어찌자고 그렇게 따라 다니냐? 넌 여기서 살아라.”

그러구서는 묶어놓고서는 또 와서,

“애 반쪽은 어떡하고 너 혼자 들어왔냐?”

하니까

“아이 반쪽인, 저기 올 거예요. 나 하고 안 갔어요.”

“너 따라가는 거 봤는데?”

하니까

“아니요. 저하고 가다가 삼갈래 길에서 갈라졌어요.”

아이 그러고 가선 형은 신나게 자는거야. 아 근데 밤중쯤 되니까, 또 뭐가 바깥에서 쿵! 하고 내려 앉는데 보니까 그 바위를 뽑아가지고 짙어지고 온 거야. 그래서 형이

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반쪽이 하고 오래 오래 잘 살다 죽었대.

군포 설화21 노인복지회관 T. 1

노인복지회관 2층, 2004. 8. 6. 홍경애, 여, 73세

까치의 보은

선비가 산고개를 넘어서 과거를 보러 가는데, 까치가 슬피울구, 그냥 깹깹대고 야단 이야.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까치 우리에 구렁이가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그 선비가 구렁이를 죽이구 그 까치를 살려줬어요. 그랬는데, 이 선비가 산을 자꾸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인제 날이 저물었는데, 이 구렁이가 부인이 있죠. 암놈이 또 이어. 그러니까 선비에게 자기 신랑 죽인 것을 양갓음 할려고, 구렁이 암놈이 사람으로 환생을 해서 마을 어귀에빈집으로 갔어. 선비가 가다가 날이 저무니까 그 집에 가서 “하룻 저녁 묵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묵게 되었어. 그런데 밤중쯤 되니까 이 구렁이 암놈이,

“나는 구렁이의 아내다. 니가 내 남편을 죽였으니, 내가 너를 잡아 먹겠다.”고 했어.

이 선비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살아야 되겠다 말야.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야, 우리 내기를 하자. 내가 너한테 잡혀 먹혀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잡혀 먹히려니까는 너무 억울하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좋은 일을 했는데. 그 구렁이는 나쁜일을 하려고 그랬고, 나는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찌 내가 너희 남편 구렁이를 죽였다고 니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그래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우리 내기를 하자.”

“그럼 그러자.”

“그럼 네가 애길해라. 내가 나를 잡아먹겠다고 했으니 내기할 것을 네가 걸어라.”

“그럼 좋다. 그럼 저 멀리에 있는 절에 범종이 있는데, 그 범종이 삼경쯤 되서 울리면 너를 안 잡아 먹구, 그 범종이 울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그래서 밤새도록 둘이 마주 앉아 버티고 있는거야. 그런데 그러자고 선비가 대답은 했지만은 밤중에 범종이 울릴 리가 없는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범종이 울릴 리가

없는데, 어쨌든 그 시간만이라도 그 선비는 벌고 싶은 심정이야. 그래서 인제

“그래 좋다. 그러면 그 범종이 울리면은 네가 나를 안 잡아먹고, 범종이 안 울리거든 잡아 먹어라.”

그리고 막연한 내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선비가 종소리를 기다리는 마음의 심정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지. 초조했겠죠? 그리고 이 구렁이는 ‘야 이젠 틀림없다. 내가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내가 내 남편의 그 원수를 다 갚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는 초조한 가운데 기다렸고, 한쪽은 희희낙락하게 기다리고 있었어. 그랬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야? 삼경쯤 되니까 땡~ 하고 울리고 또 한번 땡~ 하고 울렸어. 범종이 두 번이나 울리는 바람에 이 선비는

“봐라. 종이 울렸지 않냐? 인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선비가 그 암구렁이까지 죽이구, 이렇게 무사할 수 있었어.

그 이튿날 아침에 ‘그 범종이 한밤중에 왜 울렸나?’ 하고 그 범종 있는데 까지 가보니까 그 새끼들을 구해준 까치있죠? 까치의 엄마 아빠가 그 범종에 부딪혀서 소리를 내고 떨어져 그 앞에서 죽어 있더라. 그래서 은혜를 그렇게 갚았다는 얘기가.

군포시 설화 22 노인복지회관 T. 1

부곡 감리교회 휴게실. 2004. 8. 10. 송영순, 여, 73세

방구쟁이 이야기

방구쟁이 여자가 있었대. 근데 옆에 사는 아저씨가 또 방구쟁이였대. 그런데 그 방구쟁이 아저씨가, 저쪽에 아줌마 방구쟁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 ‘어, 잘 됐네. 나하고 한번 시합을 해 봐야지.’ 이리고 맘을 먹었대.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그 집으로 척 걸어오더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니까 아무도 없는거예요. 근데 부엌에서 웬 쪼그마한 여자아이가 나오는거예요.

“아저씨 웬일이예요?”

“어. 니네 엄마 계시니?”

“아니요. 왜요?”

“아니 니네 엄마가 방구쟁이라면서?”

“피시... 그래서요?”

“니네 엄마 하고 시합을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여자 아이가 킁킁킁 웃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냥 보고 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화가 벌컥 났어요.

“뭐 저런 아이가 있어? 내가 무섭지 않나? 내 방구가 얼마나 무서운데.”

하면서 그 아이가 들어간 부엌에 대 놓고 방구를 갖다 뺑! 하고 꺾었어요. 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불을 때는 아궁이가 있었거든요. 그 안으로 그 아이가 쓱 들어가가지고 횡 방구바람에 핑 하고 굴뚝으로 쓱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본 아저씨가 ‘내 계획대로 됐구나.’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엄마가 오다가 아 굴뚝을 보니까는 자기 딸이 시킴해가지고 굴뚝에서 나오거든요.

“아니, 애야. 너 웬일이야? 왜 그래 새까매 졌어. 왜 굴뚝에 있어?”

“엄마 저 아저씨가요. 엄마하고 방구 시합한다고 엄마 어디갔냐고 묻길래 내가 모른다고 했더니요. 나한테 방구를, 부엌에 있는 나에게 뺑 꺾어가지고 굴뚝으로 내가 나왔어요.”

“뺧이 어째? 어딴어? 그 아저씨.”

하면서 엄마가 아주 화가 벌컥 났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싱긋이 웃으면서

“홍, 아줌마 오셨군요. 나하고 시합한번 해 볼까요?”

아줌마는 화가 이렇게 났어요.

“그래 한번 시합해 볼까?”

그래서 아줌마 하고 아저씨하고 방구 시합을 했어요. 아저씨가 맨 처음에 ‘뺧!’ 하고 방구를 꺾니까는, 아줌마가 ‘뺧!’ 하고 저 쪽으로 넘어진거예요. 그런데 그 아줌마 옆에 절구통이 있었어요. 절구통에 절구공이가 하나 꽂혀 있었는데 아줌마는 아저씨한테 방구를 ‘뺧!’ 꺾지 않고 절구통에다 방구를 ‘뺧!’ 끼니까 이 절구공이가 ‘뺧!’ 하고 가더니마는 아저씨 옆에 또 절구가 있었는데, ‘핑’ 하고 그 절구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쌀이 자꾸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아저씨대로 또 ‘뺧!’ 하면은 또 절구공이가 아줌마 있는대로 오고 해서, 자꾸 오고 가고 하

니까는 절구통에 들어있는 벼가 다 찼어져서 쌀로 변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화가 나서

“흥, 이 아줌마 아주 피가 많구만, 그래 그 방아 찼으려고 나하고 방구 시합했나? 그럴려면 그럴 필요가 없지. 이제부터 혼쫌 나봐라.”

이래가자고는 본격적으로 둘이 방구 꺾기 시합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가 바지를 이렇게 탁 내리구서 뽕!하고 방귀를 끼니까, 아줌마도 치마를 걷어올려가지고 이렇게 엉덩이만 내밀고, 아줌마도 뽕! 하고 끼었어요. 둘이 동시에 방귀를 끼니까 절구공이는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는 절구통에 안 가고 하늘에서 뱅뱅뱅뱅 돌다가는 뽕! 하고 높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요. 그 절구공이가 하늘서 뱅뱅뱅뱅 돌다가는 횡 솟아오르더니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하면은 달 있는데로 갔대요. 가서 달에 뿌리를 내리고 자랐대요. 그게 계수나무래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달에는 토끼가 있고, 계수나무가 있고, 토끼가 방아 찼는 것처럼 보인대요.

군포시 설화 23 노인복지회관 T. 1

부곡 감리교회 휴게실. 2004. 8. 10. 송영순, 여, 73세

호랑이와 꽃감

옛날에 호랑이가 높은 산에서 살다가, 하루는 배가 고파서 슬렁슬렁슬렁 동네에 내려왔단다. 그랬는데 어느 집에 불이 켜져 있거든. 그때는 전기 불도 없었어. 호롱불이 있었어. 내려오는데 아니 집안에서 어린아이 울음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응야 응야 응야!”

웁다 웁다. 호랑이는 사람 냄새가 얼마나 맛있겠니?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 기회에 내가 배가 고프는데 잡아 먹어야지.’ 하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기가 하도 안 그치니까 엄마는,

“야! 시끄러워. 밖에 호랑이 왔다.”

옛날엔 호랑이라면 제일 무섭다고 생각했거든. 그랬는데 그 ‘호랑이 왔다’ 그러니까는 호랑이가 귀가 쫑긋해가지고 ‘어, 큰일났다. 나는 들키고 말았구나. 들키고 말았

구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아기가 또 울거든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아 큰일났다. 이렇게 울면 안 되는데, 정말 호랑이가 내려올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아기한테 말했어요.

“애야. 여기 꽃감이 왔다. 꽃감.”

하니까 애기가 푹 그쳤대요. 꽃감이 옛날에는 제일로 달고 맛있었다. 아이가 그걸 준다니까 푹 그쳤거든. 그런데 호랑이가 들었을 때는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제일로 무서운줄 알았더니, 아이 꽃감이라는 놈이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빨리 도망가야지.’ 하면서 도망갔지요. 후다닥 도망갔어.

군포시 설화 24 군포노인복지 회관 설화 T. 1 앞면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2004. 8. 12. 강일, 여, 72세

가재와 굼벵이

옛날에 가재하고 굼벵이하고 한 곳에서 딱 만났대요. 그런데 가재는 수염이 있구요. 굼벵이는 수염이 없구 눈만 있었대요. 그러니까 가재는 수염으로 더듬더듬해서 다니고 굼벵이는 눈으루 보구 다녔대요. 그런데 가재가 수염으로 더듬어 다니니까 눈이 없으니까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꾀를 냈어요. 굼벵이한테 말을 했거든요.

“너, 야! 굼벵아. 네 눈하고 내 수염하고 바꾸자. 눈만 있으면 뭘하니? 수염이 없으면 어른 대접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 굼벵이, 어수룩한 굼벵이는 그게 정말로 생각했어요. 그리고서

“그래, 그러면은 내 눈을 줄테니까 너 꼭 수염 나 줘야된다. 내가 어른 대접 좀 받고 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재는

“그래 그러면은 네 눈 부터 빼서 나 주라.”

그리고 굼벵이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굼벵이는 눈을 ‘쑤욱’ 빼서 가재에게 줬어요. 가재는 눈을 얼른 제 눈 있는 자리에다 달구서,

“야, 굼벵아. 눈도 없는 놈이 수염은 가져서 뭘 하니? 눈으로 보고 살아야지 수염만

가지고 어른 대접 못 받는다.”

그러면서 막 도망갔어요. 굼벵이는 가재한테 속았어요. 어쩔 수 없이 눈도 빼앗겼고 수염도 없고 그래서 창피했어요. 또 보이지 않으니까 땅 위로 다닐 수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굼벵이는 땅 속에서 기어다녔대요. 그래서 이름이 굼벵이, 느릿느릿 가는 굼벵이래요.

군포시 설화 25 군포노인복지 회관 설화 T. 1 앞면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2004. 8. 12. 강일, 여, 72세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단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은 ‘남의 것 훔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인제 그 얘가지.

가난한 어린아이가 어머니 하고 둘이 살았고, 어머니는 바느질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바느질 하다 바늘을 툇 분질렀대요. 그래서 아들을 부르면서 가서 그땐 뭐 개똥이 바위 그러잖우. 애들을. 그러니까

“개똥아, 가서 바늘 좀 사오너라.”

그러면서 돈 일전을 주니까, 그걸 가지고 막 가게로 갔어요. 그런데 엄마가 기다려도 영 안 와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 애가 막 뛰어왔어.

“엄마. 바늘 두개 가지고 왔다.” 구.

그러니까 엄마가

“그 웬게 두개냐? 일전이면 하나밖에 못 사는데, 어떻게 해서 두개나 가져왔니?”

그러구. 엄마가 반가워하니까

“엄마 내가 가게 옆에 섰다가 아저씨가 나와서 꺼내주고 들어간 뒤에 바늘 있는덜 보고서 또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를 혼내야 되는데, 참 잘했다구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하고 칭찬을 해 줬대요. 그러니까 얘가 ‘아, 뭐든지 갖다주면 우리 엄만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쪼그만 뒹, 남의 과일 복숭아 따다 이렇게 갖다주고 그럼 엄마가

“아유, 이거 엄마가 먹고 싶었는데. 잘먹을께. 고맙다.”

그렇게 항상 잘 했다구 칭찬만 하니까, 애가 나중에는 점점 흠쳐오다 남의 소까지 끌어왔대요. 이제, 남 안 보는데서. 그래서 이게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 이러는건데.

나중에는 이제 엄마도 죽구 애기도 죽어서 지옥을 갔는데, 큰 솥에 기름을 펄펄 끓이는데다가 엄마도 넣구, 애기도 넣었대요. 둘이 다. 그랬더니, 엄마가 처음에는

“아이고 우리아들...”

이 솥바닥이 얼마나 뜨거울 거여? 그러니까 이고 앉았었대요. 아들 뜨거울까봐 엄마가 애기를 이구서 앉았었는데, 한참 있다가 엄마가 너무 뜨거우니까 아들을 내려놓고 깔고 앉아버렸대.

군포시 설화 26 군포노인복지 회관 설화 T. 1 앞면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2004. 8. 12. 강일, 여, 72세

이야기 주머니

옛날에 어느 부잣집 도령이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이 도령은 몸종을 두고 살았거든요. 이 사람은 종으로 이 도령 심부름을 다 해주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인제 이 도령이 옛날 얘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 주머니를 쥐어 가지고 옛날 얘기, 할머니 조르고 할아버지 졸라서 옛날 얘기 하실 때 마다 주머니 끈을 끌러서, 주머니 입을 벌려 놓고서 옛날 얘기 다 끝나면 옛날 얘기 꼭 넣어서 주머니 끈을 오무려 났었거든요. 그래서 뱀 이야기도 듣구, 구렁이 이야기도 듣구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인제 이 도령이 커서 장가가게 됐어요. 인제 내일은 장가갈 날인데 도령은 어딜 나가고, 머슴이 혼자 사랑방 앞에서 쇠죽을 끓이다가 가만히 들으니까 방에 아무도 없는데 뭐가 얘기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문틈으로 이 머슴이 들여다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은 없구 이야기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한 귀신이 나와서 하는 얘

기가

“애, 애 우리를 이 주머니 안에다 넣어 놓구 꼼짝도 못하게 한 이놈 내일 장가갈 때 내가 죽게 할테다.”

“저 어떻게 할건데?”

그러니까

“음. 내일 날이 참 좋을 거야. 그러면은 따뜻한 그 좋은 날에 양지쪽에 아주 물이 깨끗한 우물이 되어서 물이 흘러내리게 하면은 그 말 타고 가다가 그 물을 보구서 먹고 싶어 할거다. 그러면은 나를 한 모금 마시면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귀신이 있다

“애 애. 너는 그렇게 해. 네가 못하면은 이번엔 내가 한다.”

“그래, 어떻게 할건데?”

“길 옆 산 비탈에 딸기나무가 되어서, 먹기 좋고, 보기 좋게 익은 딸기가 될 거다. 그래서 그 딸기를 하나 따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거야. 우리를 이 주머니에다 넣어 놓구, 가두어서 꼼짝하지 못하게 한 그 죄를 이번엔 내가 단단히 복수 할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또 한 귀신이 있다가

“애, 네가 못하면 이번엔 내가 할거다.”

“너는 어떻게 할건데?”

“나는 색시집에 도착해서 말에서 내릴적에...”

옛날에는 아마 말 옆에다 짚을 깔아 놓나봐요. 풀썩하게.

“그 속에 불이 되어서 한번 내려디달 적에 불이 활타서 태워 죽일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머슴은 하나하나 그냥, 등골이 오싹하게 듣고 있는거야. 내일 우리 도령님이 죽을 일을 생각하고. 그러더니 마지막에 귀신하나 있다 하는 소리가

“너희들이 못하면은 내가 할거야. 나는 그 신방, 첫날밤 있잖아요. 그 이부자리 속에 뱀이 되서 들어갈거다. 그러면은 이불 떠들고 들어와서 잘려고 그럴 적에 내가 들다 물어서 죽여버릴거여.”

그랬어요. 그래 이 머슴이 듣고 있다가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그 머슴은 언제나 머슴이니까 마부로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마부로 따라갈 사람을, ‘내가 이걸 치

워놓고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내가 이거 실천해서 우리 도령을 내일 살려야지' 싶어서 '내가 간다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 다음날 장가가는데

“마부로 제가 따라갈립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다

“너는 마당쇠니까 집에서 심부름 해야지. 내가 가서 어떡허느냐? 그러니까 너는 집에 있어라.”

그러는걸 극구 우겨서 말 고삐를 잡구 따라 나섰대요.

그런데 정말 산 모퉁이 돌아가다 보니까 맑은 물이 졸졸졸 흘러요. 아주 웅달샘에서 그러니까

“야! 돌쇠야, 나 목 마르다. 저 물 좀 한 모금만 떠서 나 좀 마시게 해라.”

그러니까

“아이, 지금 장가는 신분인데, 이런데서 물을 마셔서 되느냐?”

구, 말고삐를 툅 끌구 갔대요.

“너 이놈아. 내말 안 들어줬지. 그저 집에 가 보자.”

“그래. 집에가서 아무렇게나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데서 장가는 신랑이 물 마시는 건 안되요.”

그리고 끌고 갔대요. 게 조금 가다보니까 산비탈에 딸기가 있잖아요. 아주 큰 녀쿨로 된 딸긴데, 먹음직하게 익었어요. 빨간 딸기가.

“야야, 이 마당쇠야. 저 딸기 좀 따서 주라. 참 맛있어 보인다.”

“참 장가는 신랑 신분답잖게 별걸 다 먹고 싶어한다.”

고 그러면서 말고삐 또 탁 끌고 갔대요. 그러니까 “너 이놈 내 말을 항상...” 그래도 다니며 도령님이니까 말을 잘 들었을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 날은 안 들어주니까

“너 집에 가서 좀 보자.”

그리구서 막 또 인제 씹씹거리며 장가 갔어요. 근데 가서 말에서 막 내릴적에 옆에 섰다가 확 떠밀었어요. 그 짚 있는대로 안 떨어지고 저 만큼 떨어지게. 그러니까 짚으로 잘 내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게 확 떠밀었으니까 저쪽에 가서 주저 앉았을거 아냐? 그 망신이지. 새 신랑이 그냥 저 쪽으로 떨어졌으니까.

“너 인제 집에 가서 죽었다.”

이러구서

“이런 데서 망신을 주는구나.”

그리구서 인제, 그냥 혼례식 허구 첫날밤이 됐어요.

“새신랑 새신부님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으세요.”

그리구서 인제 행랑들이 방으로 안내 할려고 그러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

구, 돌쇠가 또 제가 먼저 들어가는거야. 그러니까 그 집에서도 막 반대할거 아니에요? 어디가 그 마부놈이 먼저 들어가요. 신랑신부 잘 자린데. 그러니까 못 하게 말리는 것을 억지로 몽둥이를 하나 들고서 막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구 이불 위에 서서 막 때렸어요. 이불을. 이불을 들추지도 않고.

“이런 고안놈이 어딴느냐?”

고 막 끌어내라고 안에선 호통으로 야단하는데도 그냥 막 때리구서 나중에 이불을 떠들어보니까 큰 뱀이 거기서 죽었더라고. 그래서 그 주인을 살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주머니에다 항상 담아서 콩콩 묶어놓지 말고 들으면 그 자리에서 듣고 나중에 잊어버려야 해.

군포시 설화 27 군포노인복지 회관 설화 T. 1앞면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2004. 8. 12. 강일, 여, 72세

놀라서 머리가 하얗게 쉰 소금장수

옛날에 어느 산골에 소금장사가 있었대요. 산골에서. 그때는 지게에다 지고 다니며 “소금 사시오!” 그러며 다니잖아요. 온 종일 소리를 외치고 다녔어도 하나도 못 팔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산골로 자꾸 길을 잘못 들어서 산골로 들어갔는데, 조그만 집이 하나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장!”

하고 부르니까 주인이 나오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래.

“아, 소금장수인데 하나도 못 팔구, 잘 자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하루 저녁만 좀 쉬어
가게 해 주시오.”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데, 어머니 한 분 모시고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셔서 나
혼자 이렇게 있다.”

고 했어.

“아이 그래도 내가 밤에 같이 있어줄테니까 그러면 같이 있자.”

구 그랬어요. 그랬는데 원체 산골이니까 그래도 어머니를 이렇게 옆해서 이제 묶어
서 갖다 매장을 해야되잖아요. 그래서 마을로 사람을 데리러 내려가야 해요. 주인이
소금장수에게,

“내가 여기 있을테니 당신이 내려가서 마을 사람을 좀 데리고 오겠소?”

“아무래도 저는 돌아다녀서 다리도 아프구. 내가 여기서 당신 어머니 지키고 있을테
니까 당신이 갖다오라.”

구.

“그럼 그렇게 하고, 내가 갖다올테니 당신이 좀 우리 어머니 지키고 있으라.”

구. 그래도 지금은 평풍처럼 하고 또 이 영안실에다 갖다 놓으니까 시체를 못 보잖
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방에다가 이렇게 눕혀 놓고서 흙이불 보로 씌워놓고, 자리로
덮어놔요. 그러는데, 인제 그렇게 해서 시신을 안방에다 놓구, 옷방에서 인제 앉았는
거야. 그런데 이 안방하고 옷방하고 문이 있잖아요. 사이에. 그냥 그 저 밖으로 나오
지 않고 서로 드나드는 문이 있어요. 그러는데 한참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안방에서
하얀 노인네가 별떡 일어나더니

“아니 옷방에 손님이 왔다더니 어디갔어?”

하고 들려다 봐요. 와이고 무서워 그냥. 이거이거 죽었다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말
을 하며 들려다 보니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계서 간신이 눕혀서 그 자리다 놓구서
는 또 발발발 떨어가며, 땀은 막 나고 무서운데 앉았는거요. 그러면 또 조금있다 또

일어나서

“아니 옷방에 손님이 왔다더니 어디갔어?”

하고 또 넘겨다 봐요. 그 짓을 한 서너차례 했대요. 그러니까 인제 아들이 그제서야 마을 사람 데리고 온 거야.

“아이고,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신게 아니라고. 왜 일어나서 이런 소리를 허느냐?”

고 그러니까

“그런 때는 그렇게 씨름 하지 말고 왼쪽 다리로 감아서 넘기면은 넘어진대요. 그렇게 해 놓구 아궁이에 가서 불을 때라. 그 여우나 고양이가 저 방고래 밑에 들어가 있을 적에 그 송장이 그런대요.”

그러면서 왼발로 다리를 감아서 눕혀서 갖다 그 자리에다 놓구서 부엌에 가서 불을 때니까 굴뚝으로, 옛날에는 굴뚝이라고 약간 빠지잖아요. 그런데 거기루 그 쪼그만 여우 한 마리가 막 내뺨더래요. 그렇게 해서 인제 그 다음날 장례는 치렀는데, 보니까 소금장수 머리 한쪽이 하얗게 섰어. 너무 고생하고 놀라서.

그리고 그 다음날 인제 상주하고 작별하구서 갔어요. 또 갔는데, 종일 산으로 또 가는 거야. 어째 그렇게 고생하려고 산길만을 가는지. 가다가다 보니까 또 인제 어느 집이 하나 있어요. 반짝반짝 불만 반짝이는 집이 있어. 그래 들어갔는데 그제 헛것을 본 거였어. 집이 아니었는데.

가서 자다가 보니까 웬 호랑이가 오더니 등을, 사람의 등을 짝 갈러요. 발톱으로 탁 갈르더니 새끼들이 쪽쪽쪽쪽 피를 빨아 먹는데 등이 간질간질 하더래요. 사람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 내 등에서 피가 나오는데 새끼들이 이걸 먹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인제 호랑이는 왼쪽으로 구르는 것은 또 안 먹는대요. 오른쪽으로 구르는건 먹어도, 왼쪽으로 구르는건 안 먹는데. 그래서 인제 그걸 갈라놓고 애미는 어디를 갔던 모양이지. 새끼들만 전부 피 빨아 먹으라고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왼쪽으로 굴러굴러 해가지고선 막 도망나와서 인제 뛰어 나와가지고 소금집이고 뭐고 다 집어 내버리고. 더망쳐 나와서 그 다음날 보니까, 머리가 오른쪽까지 하얗게 섰더라. 한쪽은 그 송장한테 놀라구, 한쪽은 호랑이한테 놀라구. 그래서 이 소금장수 머리가 다 하얗게 섰대.

군포시 설화 28 군포노인복지 회관 설화 T. 1뒷면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2004. 8. 12. 강일, 여, 72세

여우 누이

어떤 부자가 아들 삼형제를 두었는데, 딸을 못 낳아서, 두 내외가 뒷산에 가서 백일 기도를 드렸더니 나중에는 딸을 하나 낳았대요. 아들 삼형제 낳구서,

그랬는데 그 딸이 어지간히 크면서부터는 이상해요. 큰 부잣 집인데, 밤중에 짐승들이 하나씩 죽어 나가요. 소 하나가 죽구, 또 인제 그 다음 또 죽구. 그래서 아버지가 큰 아들보고

“지켜라. 밤중이면은 뭐가 와서 우리 소를 한 마리씩 죽이는데, 지켜라.” 그랬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지키다 지키다 졸려서 못 지켰대요. 꼭 꼭 졸려. 그러다 보면 이미 소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쫓겨 났어요.

다음에는 둘째 아들에게 지키게 했는데, 둘째 아들도 졸려서 제대로 못 지키는 바람에 쫓겨 났어요. 그러자 셋째 아들이 ‘이번에는 내가 지키겠다’ 이려고서 지키는데 밤중쯤 되니까 그 여동생이 일곱 살인데, 방문이 살그만히 열리더라고. 그러더니 요게 살금 보더니 가서 소, 그 항문에다가 손을 넣구서 간을 꺼내서 먹더라고. 그러면 이게 간을 꺼냈으니까 그냥 쓰러져 죽을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죽더라. 그래서 아버지한테다가

“이게 범인은 여동생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귀여운 동생인데, 너희 엄마 아버지가 그 아이를 귀여워 하니까 네가 그게 샘이 나서 그런다.”

그러구선 막 쫓아냈대요. 그래서 셋째도 쫓겨 났어요.

그런데 집안은 나중엔 말도 죽구 사람도 죽구 이래요. 사람도 하나씩 하나씩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이 집은 아주 폐허가 됐어요. 가축 다 죽구, 어머니 아버지까지 죽구, 그러구서 아주 그냥 그 큰 집터에 그냥 풀만 나게 됐어요.

쫓겨난 셋째는 몇해를 돌아 다니면서 살다가 한 스승님을 만나서 무술을 배웠어요.

그곳에서 몇해를 공부하다가 떠나려고 하자 스승님이,

“네가 죽을 고비가 있을 때마다 이걸 하나씩 던져라.”

그러면서 파란병 하나, 빨간병 하나, 하얀병 하나 병 세 개를 주더래요.

“이걸 가지고 가서 네가 위급할 때마다 던지라.”

그래서 그 놈을 가지구 인제 자기 집을 찾아갔대요. 자기가 살던 집을 찾아갔더니, 집은 풀이 우거지고 폐허가 되었는데 여동생만 혼자 남아 있다가 쫓아 나오면서 “아, 오라버니 오셨다.”고 반갑게 쫓아 나오는데. 그러면서 “밥 해드린다.”고 그러면서 밥을 해 주는데, 이상하게 해줘서 먹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먹는 체 하다가 “많이 먹었다.”고 하고 상을 물렸대요. 그런데 이 여동생은 오빠를 마저 죽일려고 감시를 하고 있어. 이거을 알고 오빠가 살짝 빠져나와 도망을 가는데, 여동생이 “오빠, 어디 가느냐?”고 하면서 쫓아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아니라 여우로 변해서 막 쫓아 오는거야.

그래서 파란병을 하나 확! 던지니까 뒤가 온통 물이 되버리더래요. 뒤에서 그 병에서 물이 막 나와가지구 바다가 되었어. 그래도 여우가 헤엄쳐서 어떻게 쫓아온거야. 또 달을랑 말랑하게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얀병을 또 던졌어요. 그러자 그때는 가시덤불이 생겨 가지고 막 우거졌는데, 그래도 또 어떻게 뚫고 또 오더래요. 그러가지구서 또 달을랑 말랑 할적에 나중에 인제 마지막으로 그 빨간 병을 던졌더니 그게 불이 나가지구서 여우가 거기서 타 죽구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다시 집으로 가서 혼자 그 집을 일으키고 살았대요.

누이동생이 실은 여우였대요. 여우가 산속 굴에서 살다가 부모님이 “딸 낳게 해 달라.”고 비는 소리를 듣고 이게 사람이 돼서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나온 거래요.

군포시 설화 29 군포노인복지 회관 설화 T. 1뒷면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2004. 8. 12. 강일, 여, 72세

도깨비 감투

무슨 감투가 하나 있었대요. 감투. 일 하기 싫은 대장장이가 있었는데, 하도 일이 하

기 싫어서 그냥 ‘아 일좀 안 하고 살수 없냐?’ 그러구 있는데, 갑자기 웬 도깨비가 감투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너 정말 일하기 싫으냐?”

그렇게 묻는거야. 그래서 “일을 안하면 먹고살 수가 없는데 일이 정말 하기 싫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도깨비가 감투를 주면서,

“그럼 이걸 써 봐라.”

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쓰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투를 쓰고 다니면서 막 흠쳐왔어요. 일도 안하고. 그러니까 인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부인은 맨날 불안해요. 늘 “아유, 어제 저녁엔 누구네서 뒤통을 잃어버렸대. 어제 저녁엔 누구네서 뒤통을 흠쳐갔대.”하는 소리가 들리니까요. 그랬는데도 도둑놈은 못 잡고. 그러니까 부인이 불안해서

“그거 좀 그만 하라고. 그만 할수 없느냐?”

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란 담뱃대 있잖아요. 그것 갖고

“왜 그만하라고 그러느냐?”

구 휘두르다가 감투에 조금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까만 실로 꿰맸어요. 그래 갖고 쓰구서 또 나가서 흠치는데 보니까 까만 점이 뭐 다 집어가는게 보이거든. 그래서 이 까만 점을 붙잡아 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아서 혼을 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았대요.

군포시 설화 30 군포노인복지 회관 설화 T. 1뒷면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2004. 8. 12. 강일, 여, 72세

며느리밥풀꽃의 유래

시골에 가면 꽃이 이렇게 뻗었는데, 안에 밥풀 두 개가 든 것처럼 생긴 꽃이 있어. 그게 ‘며느리밥풀꽃’ 이라고 그래.

옛날에 며느리가 있었는데, 하고 배가 고파서 밥 알 두개를 입에 넣었대.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며느리를 때려서 죽였어. 그래서 며느리가 밥풀 두개를 입에 물

고 죽었대. 며느리가 죽어서 꽃이 됐는데 그게 며느리밥풀꽃이야. 지금도 보면 ‘밥풀 두 개’ 하고 내밀고 있어.

군포시 설화 31 군포노인복지 회관 설화 T. 1뒷면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2004. 8. 12. 강일, 여, 72세

아들 묻은 효자

옛날에 아주 효자가 살았어. 그 어머니가 한분 계셨는데, 어머니를 잘 공양하려고 해도 집안이 가난했어. 그래서 어머니만 잘 봉양하려고 해도 자기 아들이 늘 어머니 밥을 같이 먹는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밥이 적어. 그래도 할머니가 손자가 이뻐서 늘 손자를 먹여.

그것을 보고 효자가 ‘애가 있어서 어머니가 배 부르게 못 먹는다.’ 고 생각하고 내외가 아들을 생매장을 시키려고 했다. 아들을 묻으려고 땅을 파는데, 그곳에서 금덩이가 나왔어. 그래서 그 금으로 부자가 되었어.

효도를 하려고 하니까 신이 갖다가 도와서 금덩이를 준거야.

군포시 설화 32 군포노인복지 회관 설화 T. 1뒷면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2004. 8. 12. 강일, 여, 72세

쥐의 혼담

옛날에 쥐가 자기 딸이 제일 잘 낫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늘 ‘이걸 어디다 시집 보낼까?’ 궁리를 했어. 그러다가 한날 보니까 햇님이 쨍~ 세상을 다 비치고 제일 위대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햇님을 찾아가서

“햇님, 우리 딸하고 결혼 좀 해달라.”

고 그러니까

“난 그건 못한다. 내가 아무리 비칠라 그래도 구름이 날라와서 나를 가려버리면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 구름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구름에게 또 가서 이번에는

“우리 딸하고 결혼해 달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한자리 머물러 있을라 그래도 바람이 날 날리면은 나는 간다.”

그래 또 바람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그게 충청도 어디나 났던 모양이야.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은진 미륵 있잖아요. 충청도 논산에.

“그거는 못 쓰러뜨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진미륵에게 가서

“우리 딸하고 결혼해 주세요.” 하자,

“내가 아무리 든든하게 서 있어도 쥐가 그 밑에가서 파면은 쓰러진다. 그러니까 쥐가 위대하니까 너희 쥐끼리 해라.”고 했대요.

그래서 마중에는 쥐보고 결혼하자고 했대요.

군포시 설화 33 군포노인복지회관 설화 T. 1 뒷면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2004. 8. 12. 강일, 여, 72세

쥐와 결혼한 셋째 딸

딸 삼형제가 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 그래서 아버지가

“너희는 너희대로 좀 나가 살아라. 내가 가난해서 너희들 결혼 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인제 딸 삼형제가 그냥 나왔어. 나오다가

“우리 막대기를 하나씩 가지고 이 막대길 세워서 쓰러지는 대로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막대기가 삼형제 다 각각 쓰러졌어요. 그래서 각자 딴 길로 가면 서,

“우리 5년후에 다시 만나자.”

그랬어요. 언니들 둘은 꽃길로 좋은 길로 잘 갔어요. 가서 결혼했거든. 그런데 동생은 바위로 어디로 넘어지며 이렇게 굉장히 험한 데로 갔어요. 가다가다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 있었어.

그랬는데 나중에 누가 뭘 먹을걸 갖다 놓구 먹으라구 해서 일어나고 보니까 쥐들이 먹을 걸 갖다놓고 먹으라 그래요. 쥐들이 떼밀어다 방에다 났어. 그래서 그거를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 쥐 대장이 셋째딸에게 참 잘해요. 그래서 정이 들어가지고 쥐대장하고 5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제 부부간이지. 그렇게 사는데, 그 쥐 부하들은 그 대장말만 듣구 잘 해주구.

근데 5년이 되어서 언니들과 만나 집에를 가야하는데 걱정이 되었어요. 언니들한테 어떻게 쥐하고 산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언니들을 만나 같이 집에를갔는데, 두 언니들은 시집을 잘 가서 인제 남편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자긴 아무 말도 없었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그러면은 너희들 3일 후에 떡을 해서 갖고 와봐라. 누가 제일 안목 있는 집으로 시집갔나? 거 떡 좀 해 와봐라.”

쥐가 무슨 떡을 하겠어? 그래서 집에가서 크게 걱정하니까 쥐 대장이
“왜 그러느냐?”

이래. 그래서 “떡을 해오라고 해서 그런다.”고 하니까
쥐 대장이 “걱정하지 말라. 내가 떡해서 보내마.”해요.

그래서 참 떡을 떡 가지고 갔는데, 제일 맛있고 제일 잘 해왔어요. 그 쥐가 한 떡이.
그랬는데 인제 이 떡 가지고 대결이 안 되니까,

“그럼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어. 남편애긴 한 마디도 못 하고 있는데, 친정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래 할수 없이 또 가서 고민을 했어요. 남편에게 인제 말도 못하지 뭐. 어떻게 그렇게 잘 해주는 남편인데 ‘난 당신이 쥐여서 창피해. 집에 가서 말도 못해.’ 소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걱정, 걱정 하니까 또 물어보더래요. 쥐 남편이

“왜 무슨 걱정이 있느냐?”

구.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구. “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런다고

“아, 가면 되지. 무슨 걱정이냐?”

구. 그러더니 쥐들이 무슨 바구니 하나를 짜 가지구서 거기다가 대장쥐를 담아서 떠메고 가더라. 이 딸은 속으로 큰 걱정이지.

그렇게 가다가 보니 그 앞에 내가 있대요. 친정 가까이 이렇게 가서. 그 내를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이 쥐들이 잘못 가서 급류에 휘말려서 바구니채 다 떠내려 갔어요. 셋째딸은 ‘쥐라고 내가 이때까지 무시한 게 너무도 불쌍하고, 양심이 가책이 되구. 저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이렇게 죽는거를 내가 너무 심했구나’ 싶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떠내려 가는데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멋진 왕자가 앞에 와 섰대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그러드래요. 그래서 친정에 가셔도 역시 제일 시집 잘 간 딸로 인정받고 그렇게 살았대요.

군포시 설화 34 군포노인복지 회관 설화 T. 2 앞면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노래방 앞. 2004. 8. 12. 송재각, 남, 76세

세상에 비밀은 없다

옛날에 후한 때에 양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형주좌사로 부임을 하다가, 중간에 날이 저물어서 한 현에서 자게 되었어. 그 현리가 그거를 알고서는 출세를 할려고 숙소로 찾아왔어. 그 이 사람이 은밀히 호주머니에서 황금을 갖다 꺼내서 이렇게 바치면서

“부탁합니다.”

지금 말하면은 뇌물이지.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이게 뭐요?”

그러니까

“좀 부탁합니다.”

그게 이거 황금이거든.

“글쎄 이거 도로 갖고 가게.”

“왜 안 받으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받으면 안 되니까 갖고 가게.”

“이 좌사님 하고 나 밖에 모르는데 뭘 그러세요. 받으세요.” 그러니까,

“자네 그런 소리 말어. 천지지지(天知地知) 여지아지(汝知我知) 라고 그랬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대가 알고 내가 아는데 어디 비밀이 있느냐?”

하늘이 알구 땅이 알구, 그대가 알구 내가 알구. 네 사람이 알어. 그러니 비밀이 없어. 지금 당장은 뭐든 해서 비밀로 하지만은 어느 땐가는 탄로가 나요.

군포시 설화 35 군포노인복지 회관 설화 T. 2 앞면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노래방 앞. 2004. 8. 12. 정연옥, 여, 68세

시집 간 딸이 친정 명당 뺏은 이야기

친정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딸이 보니 부모님 산소를 명당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소를 뺏으려고 묘를 쓰기 전날 밤에 그 산소로 갔대요. 가서 명당자리로 가는 길에 베를 쪽 깔아놓고 밤새도록 물을 이어다 부엌대요. 밤새도록 물을 길러다 붓고 나서 그 베를 걷어 버렸대요. 그러니까 발자국도 안나고 깨끗해 졌지요.

다음날 묘를 쓰려고 땅을 봤더니 땅에서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퍼다 부었으니 물이 엄청 나오는거야. 지간이 명당이라고 잡아 줬는데 물이 나오니까 산소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이 자리는 안 되겠다.”하고 다른 자리로 옮겨서 묘를 썼대요. 그러니까 딸이 그 자리에다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셨대요.

그래서 여동생 집은 큰 부자가 되고 자식들도 잘 되었어요. 그런데 오빠네 집은 망하고.

군포시 설화 36 군포노인복지 회관 설화 T. 2 앞면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노래방 앞. 2004. 8. 12. 정연옥, 여, 68세

조생원전

옛날에 조생원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조생원이 상처를 해서 계모를 들었어. 그 본처 아들이 커서 장가를 가게 되었는데, 계모가 아들이 미우니까 첫날 밤에 아들 목을 베어서 죽였어. 그리고 그 목을 어떤 곳에 숨겨 두었어.

첫날 밤에 남편을 잃은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구박을 받으며 그곳에서 사는 거야. 옛날에는 한번 시집을 오면 친정으로 못가는 법이었어. 이 계모는 며느리에게 “네가 팔자가 세니까 우리 아들을 잡아 먹었다.”고 며느리를 구박해.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지.

그런데 밤마다 며느리 꿈에 남편이 나타나. 그러더니 어느 날 밤에는 신랑이 나타나더니 어디로 들어가. 자기 남편이 어느 곳으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며느리가 꿈이 이상해서 그곳에 가보니, 무엇을 만들어 놔는데 거기 남편 목이 있더라. 계모가 잘라서 거기다 감춰둔 거야. 그리고는 계속 며느리에게 “네가 시집오기 전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시켜서 남편을 죽였다.”고 뒤집어 씌웠어. 며느리는 밥도 못먹고 죽게 생겼었어. 억울하고 분해서 밥이 넘어가. 그러니까 죽은 신랑이 이 아내가 불쌍해서 꿈에 선물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며느리가 누명을 벗고 잘 살았다.

군포시 설화 37 군포노인복지 회관 설화 T. 2 앞면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노래방 앞. 2004. 8. 12. 정연옥, 여, 68세

고동각시

옛날에 총각이 어머니하고 둘이 살았는데 아주 효자야. 어머니한테 잘해.

그런데 하루는 어디를 갔다 오니까 누가 밥이랑 반찬을 다 해놨더라.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다음 날 또 밥을 해 놓은 거야. 그래서 하루는 숨어서 봤대요. 보니까 그 물 항아리에 넣어 둔 고동에서 색시가 나와서 밥을 하더라. 총각이 보다가 뛰어 나가서 이 색시를 붙들려고 하니

“며칠만 기다려 주세요. 며칠만 기다리면 제가 사람이 되니 그때는 당신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

그래서 총각이 이 색시를 놔 줬어. 그러니까 이 색시가 고동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

어. 총각한테 들켰어도 이 색시는 날마다 고동에서 나와서 밥을 해 놔. 총각이 나무를 해 가지고 오면 밥을 다 해놓고 그래.

그러다가 색시가 말한 기한이 다 찾아. 색시가 진짜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총각과 결혼해서 어머니에게 효도하면서 잘 살았대.

군포시 설화 38 군포노인복지 회관 설화 T. 2 앞면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노래방 앞. 2004. 8. 12. 송역근, 남, 74세

저승 갔다 온 할머니

어떤 할머니가 죽어서 저승을 갔어. 죽은 혼이 되어서 저승 어디 만치 가니까는 죽은 사람들이 일렬로 쭉 섰드래요. 일렬로 쭉 섰는데, 거기서 판결을 내리길,

“넌 이쪽으로 가라. 넌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판결을 하더라.

그러더니 자기 차례가 오니까는

“어떻게 왔느냐?”고 그러더라.

“아 이러이러한 사람이 가자 그래서 왔다”고 그러니까는 도루 집으로 가라고 그러드래요. 그래 돌아서서 집으로 오는데, 한없이 와도 길이 끝이 없더라.

‘아 어디가서 자고 가야겠다.’ 이려고 보니깐 여관이 보이드래. 큰 여관이 보이길래, ‘저기가서 좀 자구 가야겠다.’ 들어갔대. 가니까는 어느 노인네가 청소를 하고 있드래. 그래서 그 영감보고

“나 저 집으로 가는 길인데 아직두 길이 멀고 하니까는 하루 저녁만 여기서 자고가게 해 달라.” 그랬대.

그러니까는 그 영감 얘기가

“나는 이름이 뭔데, 가거들랑 우리 아들한테 이거 하나 전해주시오. 내가 여길 오니까는 돈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도 베풀지 않았다고, 여기서 청소해라 그래서 청소를 하고 있으니깐, 내 아들한테 가서는 좀 베풀라구 전해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집으로 오니까는 인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지. 이 할머니가 깨어나서 ‘아, 내가 부탁을 받고 온거니까 가서 그 영감 아들을 만나봐야겠다.’ 하고는 아들을 찾아갔어.

가니까 고래등같은 집인데 이 할머니를 안들여 보내줘. 그래서 바깥에선 야단이 났지. 이 할머니가 “아 나는 부탁받고 온거다.” 그러구, 안에서는 인제 “안된다.”고 그러구.

이 소리를 듣고 아들이

“무슨 일이냐?”

하니까

“어러이러한 일로 온 사람이 있습니다.”

허니까는 들어오라 그래. 그래 들어가서 그런 얘길 하니까는 이 아들이 뉘우쳤대. 그래서 그 후부터는 베풀고 살았대.

군포시 설화 39 군포노인복지 회관 설화 T. 2 앞면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노래방 앞. 2004. 8. 12. 허옥련, 여, 71세

지성과 감천

옛날에 한 소년이 서당을 가다 보니까는 바위 틈에서 장지뱀이 하나 나오더라. 그래서 도시락에서 밥을 한 숟갈을 떠서 먹였어. 자꾸 그러다보니까 그 학생만 지나가면 그 시간에 뱀이 나와. 그래서 학생이 자꾸 도시락을 먹이다보니 나중엔 이게 클 거 아냐. 그래서 도시락을 다 줘 버리고 저는 굶어. 학교에 가서 굶는 거야. 그렇게 기르다보니까 이게 얼마큼 컸냐면 아흔 아홉발로 컸어. 이 짐승은 자꾸만 얻어 먹기만 한다고 해서 이름이 감천이구, 이름은. 또 이 자꾸 맥인 사람은 지성 같이 갖다 먹였대서 지성이야.

그래가지구 남자가 장가를 가야되잖아. 근데 이 아흔 아홉발 되는 짐승을 데리구 장가를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음식을 잔뜩 해가지고 하루는 가서,

“내가 장가갔다 사흘만 있다 올테니까, 너 여기서 나 올때까지 이것 먹고 있으라.”

하니까 감천이가 따라가겠대. 그래서

“네 육중한 몸을 어떻게 다 감추고 따라가겠냐?” 구. 그러니까

“그 걱정 말라.” 구 그래.

장가가는 날이 되어서 가마를 딱 탔는데, 아흔 아홉발이 푹푹푹 이렇게 서러가지구, 가마 앞에 와서 딱 앉아. 근데 길러준 그 남자에 에게만 보이지. 딴 사람은 안 보여. 딴 사람 눈엔 안 띄어 그제.

그래가지고 색시집에 이르렀는데, 어느 틈에 그 병풍 뒤에가서 있더라. 서리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먹는 척 하고 자꾸 이렇게 병풍 뒤로 음식을 던져 줘.

근데 이 색시가 딴 남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이 뱀이 벌써 알고 따라간거야. 그랬는데 오밤중이 되니까, 아주 짐승을 큰 짐승을 데리구 갔으니까 신랑은 잠을 못 잘 거 아냐? 근데 색시는 그냥 자는 척 하구 막 코를 골구 그렇게 유난을 떠는거야. 색시한테 간부(姦夫)가 있는데, 그 간부가 신랑을 죽일려고 선반에 가서 칼을 들구 숨어 있어. 그런데 오밤중에 뭐가 뒤에서 팡! 하고 소릴내며 넘어지니까 얼마나 놀래. 이 신랑은 깜짝 놀래서 혹시 자기 짐승 죽였을까봐, 애가 타서 나가봤어. 보니까 떡목같은 총각이 칼을 들고 내려오는 걸 이 뱀이 휘휘 감아다가 던져버렸어. 그러곤 또 숨어버렸어.

그 첫날밤에 그러니까는 색시네집에서 그 꼴이 뭐가 돼? 색시나 색시네 집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지. 이제 다시 뱀은 벌써 가마 밑에 와서 딱 서있으니까 데리구 집으로 왔어요.

와서 또 갖다 먹여.

그러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장가를가게 되었어. 그래서 “장가 가서 사흘있다 온다.” 고 하니깐 “갖다 오라.”고 그래. 그래서 장가를 가서 정말 사흘 색시네 집에 가 있다가 올 때 까지 그 음식을 먹고 있드래.

그러다가 하루는 이 짐승이

“내가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을 해치면 나라에서 나를 잡으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나를 잡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깐 지성이 네가 돈을 많이 받고 나를 잡으라.”고 그래. 자기를 지성같이 먹인 이 총각보구 잡으라 그래. 그러니깐 총각이 “알았다.” 구 그래어. 그러면서 이 뱀이 자기를 잡는 동시에 머리부터 자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돈을 받구선 뱀을 죽일려고 그래도 못해. 그냥 아주 무섭고 사람을 해치니까. 그런데 이 지성이가 와서 “감청아! 감청아! 감청아!” 하구 세마디를 부르니까, 뱀이 앞에 와서 솔솔솔솔 하구 납작하니 엎드려. 아무도 못 잡는데 이 지성이가 사람을 해치는 뱀을 잡았어. 그리고는 감천이가 시킨대로 머리에서부터 뱀을 잘랐어. 머리에서부터 탁탁탁 자르는데, 아흔아홉발이니 얼마나 길어. 그래서 그것을 수레에다 싣고 임금앞으로 갔어.

임금 앞으로 가니까 임금이 죽을 때가 되서 그런지, 아흔아홉발이 되나 안되나 다 붙여보라고 그랬어.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탁탁탁탁 붙이니까는 뱀이 후닥닥 살아 일어나서 그 임금을 감아 휘휘 둘러서 내다 던지구, 밥 먹여준 지성이를 임금으루 갖다 얹혀놔어.

그래서 감천이하고 지성이는 떨어져 있게 되었어. 그래도 부하들을 시켜서 자꾸 음식을 갖다 먹이는거야.

어느 날은 지성이가 비몽사몽간에 앉아가지구 졸았는데, 감천이가 나타나서, “내가 어디쯤을 육지로 가다가 사람한테 들켜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와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얘기를 해. 그래서 지성이가 달려가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그 뱀을 죽이면 너희들 다 죽인다.”구 소리를 질렀어. 그러니까 뱀을 막대기로 때리고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 그래서 다시 감천이를 데려다가 구환을 잘해서 살려놔어.

그렇게 몇 해를 살다가 이 뱀이

“이제는 가야겠다. 이번에는 육지로 가지 않고 물로 가겠다. 그러니까 안심해라.”고 꿈에 선몽을 해. 그래서 깨보니까 꿈이야. 그래서 가보니 과연 감천이가 가버리고 없어.

이 감천이는 물로 가서 용이 됐어. 용이 돼 가지구 끝끝내 그 사람을 도와 주더래. 짐승도 이렇게 사랑을 하구 길러주면 이렇게 은혜를 갚는데, 사람은 자라두 은공을 못 갚아.

군포시 설화 40 군포노인복지 회관 설화 T. 2 앞면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노래방 앞. 2004. 8. 17. 허옥련, 여, 71세

어머니는 남의 식구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앞에 가서 돌담을 쌓는데, 쌓다보니까 돌에 치여서 이웃 집 애가 죽었어. 동네 애가. 그래서 그 애를 어디다 치울 데가 없어서 돌담 밑에다가, 그 담 쌓는데다가 넣구 쌓아버렸어.

그랬는데, 이제 아들하고 집안 식구가 다 앉아서 인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남편이 그 얘기를 하는거야. 이 아들보구.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가

“남의 식구가 있는데 왜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하시냐?”

그러니까

“여기 남의 식구가 누가 있느냐? 네 엄마 있구, 나 있구, 넌데.”

기러니깐

“아이 남의 식구가 있어요.”

그래. 아들이 자기 엄마는 남의 식구로 치는거야.

그런데 두 부부가 싸움을 하다보니까,

“아 나두 그 죽여가지구 그 누구네 얘기처럼 그 돌담 밑에다가 넣어서 쌓을라고 그 래, 응?”

하고 말이 나와 버렸어. 그래서 그 말이 바깥에 새 나가가지구서 그 사람은 경치는 거지. 그래서 엄마는 남이라고 그러는거야.

군포시 설화 41 군포노인복지 회관 설화 T. 2 앞면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노래방 앞. 2004. 8. 17. 허옥련, 여, 71세

여우 구슬로 지관 된 사람

옛날에 총각이 서당을 다니는거야. 얼마를 다니다 보니까, 다니는 길에 가서 이렇게

개천이 있어. 그 서당엘 왔다갔다 하면서 다니다가, 하루는 서당에서 점심 먹으로 가려고 가니까는 이쁜 여자가 물에서 빨래를 하고 있더라. 처녀가. 그래서 그냥 거기에 눈이 아주 훌쩍 반했어. 이 남자가. 반해가지구 인제 학교두 점점 다니는것두 늦게 가구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엔 이 여자한테 훌쩍 반해가지구서는 학교를 안 가버려. 그냥.

그러니까 벌써 학교 선생님은 다 뭐가 어떻게 되는거를 잘 알아. 그러니까 하루는 그래. 그 선생님이,

“너 밥 먹으러 갈 적에 물가에서 이쁜 처녀가 있는데 니가 거기 반하지 않았냐?”

그러구 물어. 그러니까 그렇다구 그래 이 학생이. “그러면 너를 데리구 가서 뭐를 주더냐?”하고 물어. 처녀가 사람이 아니라 여우야. 여운데 이 총각을 흘린거야. 그런데 뭘 주느냐면 작은 구슬을 하나 줘. 그게 사람의 혼을 갖다 뭉쳐놓거야. 근데 그 구슬을 총각 입에다가 넣었다간 뺏구 넣었다가 뺏구 그러드래. 그렇다구 그 얘기를 이제 선생님 보구 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다가,

“그러면 네가 고 줬다 뺏었다 할적에 그냥 꿀꺽 삼켜버려라.”

그래

“삼키고서는 엇디리질 말구 하늘만 쳐다보구 있으라.” 그랬어. 이렇게 반듯이 드리 누워서. “여우가 구슬을 뺏기면 너를 할퀴고 덤빌 테니까 그래도 엇드리지 말고 하늘을 먼저 봐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총각이 길가에서 다시 처녀를 만나서 처녀 집으로 갔어. 그래서 또 서로 구슬을 주고 받다가 이 총각이 세 번 만에 그냥 구슬을 꿀꺽 삼켜 버렸어. 그러자 처녀가 처음에는 “내 놓으라. 그거 안 내놓면 안 된다.”구 막 사정하다가, “내가 먹었는데 어떻게 나오냐”구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우로 변하더니 총각을 할퀴려고 덤벼들어. 그래서 총각이 놀라서 그만 엇드려 버렸어. 하늘을 먼저 봐야 하는데.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비단 이불에 진수성찬을 차려 놓고 있었는데, 자기는 잔디밭에 누워있고 소똥, 말똥이 진수성찬 이더라. 여우한테 흘려서 그렇게 보인 거지. 여우는 이제 그 사람 하나만 더 잡아 먹으면 사람으로 둔갑을 하는데, 이 학생한테 구슬을 뺏겨서죽었어.

이 사람은 구슬을 삼키고 땅을 먼저 봤기 때문에 명당자리를 아는 지관이 되었어.

반듯이 드러누웠으면 하늘의 일두 잘 알구, 명당 자리구 잘 알게 되는데, 엎드려서 이 사람이 명당자릴 보게 되었어.

그래가지구 어떤 부자가 죽어서 묘를 썼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시신이 묘에 안 있고 다른 곳에 가 있더라. 그래서

“시신이 거기 있질 않고, 이쯤 와서 있다.”

구 했어. 그러니까 상주들이 내기를 하자고 했어. 그래서 재산을 절반 주기로 내기를 했어. 그래 땅을 파보니까는 묘에는 아무 것도 없고 이 사람이 가리킨 곳에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남의 명당 자리를 보구 다니는 지관일을 했대.

군포시 설화 42 군포노인복지 회관 설화 T. 2 앞면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노래방 앞. 2004. 8. 12. 이성렴, 남, 79세

남이장군 이야기

남이 장군 아버지가 훈련 대장이었어. 하루는 훈련을 시키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얼굴만 수건으로 가리구 가슴을 다 내 놓구 있더라. 그러니까 이 남자가 흥분이 됐단 말이야. 그래 관계를 해서 낳은 것이 남이 장군이야.

그 어머니가 꿈을 꾸는데, 꿈을 뭘 했느냐하면 남산을 안았어. 자기 품에다. ‘남산’ 하면 사방에서 우리름을 받는 산 아니야. 서울 남산. 그래서 ‘이건 보통 꿈이 아니다.’ 하구 남이장군 아버지를 유혹한 거야. 그런데 그 어머니가 소경이야. 그래서 수건을 씌운거야. 자구서 수건을 치우구 보니까 소경이구, 얼굴도 뭐 그리 잘 나질 못했거든. 그러니까 남이장군 아버지가 ‘에이 창피한 생각이 들어.’ 그래서 얼른 갈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도포자락, 지금으로 말하면 관복이지. 그거를 붙잡고 안 놔주거든. 아이 그 창피하니 빨리 나가야 되니 어떡허냐? 그래서 칼을 빼서 그걸 쪽 찢라버리고 그냥 갔어.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 소경이지만 뭐 점두 보구 해서 돈이 좀 있었던 모양이야. 남이 장군을 서당엘 보냈어. 그래 아버지 없는 자식 아니야? 그래서 서당에 가면 늘 애들이 “아버지 없는 자식, 후레자식이라.” 구 놀리구 또 놀리구 해. 그러니까 한번

은 저 엄마 앞에다 칼을 꽂아 놓구,

“나 아버지를 안 알려주면 오늘 여기서 죽겠어요. 아버지 없는 후레자식으로 살아서 무엇하겠느냐.”고 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울면서 감춰놨던 그 도포자락 내놓구,

“이거를 가지고 가서 맞는 분을 찾으면 네 아버지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수소문을 하는거야. 이 영감이 가만히 있었으면 몰랐을 텐데,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혼련을 마치구서 잠자고 보니까 소경이어서 나올려고 했더니 도포자락을 잡더라. 도포자락을 붙잡고 안 놔서 그걸 잘라버리고 왔는데, 그 아들인지 딸인지 낱긴 낳았을 거다.”하는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남이 장군이 거길 가서 돌아다니며 걸식을 하다가 그 소릴 들었거든. 그래서 이 영감에게 찾아가서 얼른 “아버지!”하고 절을 하구 도포자락을 내 놔단 말이야. 그 내놓는 도포자락을 갖다가 대보니 꼭 맞지 뭐야?

“어, 넌 내 아들이다. 분명히 내 아들이다.”하고 인정을 했어.

그런데 이 남이장군이 머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말도 못할 정도야.

그런데 한곳에 가니 사람을 제물로 놓구 제사를 지내. 그러면 이무기가 와서 잡아 먹는지 뭐가 잡아 먹구 없어지더라. 제사상 잘 차려 놓은것도 다 먹고. 열 다섯 살에 남이 장군이 어디 가다보니까 여자를 잡아다 골방에다 가둬 놓거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일 제물로 쓸 여잔데 도망 갈까봐서 가둬놨다.”

그러구 여자도 아예 그 동네를 위해서 희생할 것으로 알고 있구. 그래서 남이장군이 “그 여자대신 내가 가서 있으면 어떠냐?”고 물었어.

“아 저기는 남자가 갈 데가 아니다.”

“아이 여기 머리에다 수건을 하나 쓰고 눈썹 그리구 코 그리구 하면 다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라.”

그 딸 아버지는 딸을제물로 보내게 되어서 애통해 하다가 딸을 다시 찾으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남이장군을 잘 먹이고, 꺼뭇꺼뭇한 수염을 잘밀고 분과 입술을 발랐어.

그리고 연지곤지도 찍었어.

얼만큼 있으니까 상을 다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곤 남이 장군은 그 가운데 떡 앉아 있어. 사람들은 다 가고 제물 맨 북판에 앉아가지고 떡 있는데, 배가 출출허거든. 그 남이 장군이 참 무지 그 배가 컸던 모양이지. 그래서 음식을 좀 집어 먹고 있는데, 큰 구렁이가 나온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것을 용이 못 된 이무기라 그랬어요. 이놈이 나오더니 이렇게 이렇게 보더니, 아 이쁜 것이 하나 앉았거든. 판건 안 먹고 그것부터 먹을라고 달려 들어. 몸통도 엄청 큰 구렁이가. 그러니까 남이장군이 살짝 몸을 비키면서 뱀을 잡았어. 그러니까 이 뱀이 남이장군 몸통을 감고 안 놓는거야. 그래도 장군이 워낙 힘이 세서 목을 조이니까 이 뱀이 그만 죽어 버렸어. 그래서 칼로 구렁이 배를 쪽 찌서 사방에 걸어놓고, 떡 앉아서 실컷 먹었어. 그리고는 누워서 자는거야. 배짱이 얼마나 두둑한가 봐. 누워서 자는데 동네사람들이 ‘이제 다 끝나고 남이장군이 죽었을 것이다.’ 하고 와 보니까, 아 제물이 되었을 줄 알았던 남이장군은 누워서 잠자고 있고, 음식 한 상을 다 먹어치웠거든. 그래서 와서 깨우면서

“어떻게 됐냐?”

“아, 이거 보라구!”

보니까 아름다리 구렁이가 있거든.

“아, 이거 당신네들이 제사 지내고 모시던 귀신인지 뭔지 잡아냈으니까 이젠 다시 제사 안 지내도 괜찮다.”

그러니 그 열다섯살에 얼마나 장력이 세면 그렇게 했겠어.

장군이 힘도 장사지만, 시도 지었잖아.

열여덟살에 여진족을 치고 돌아가면서 시를 지었어.

‘백두산 석은 마도진이요 두만강 수는 음마무라(白頭山石 磨刀盡 豆滿江水 飲馬無)’

백두산 돌은 칼 갈아서 다 없어지고 두만강 물은 말이 마셔서 없어진다.

남자 이십 미평국(男兒二十 未平國)이면, 남자 이십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어, 그런데 이걸 가져다가 간신배들이 미득국(未得國)으로 만들어서 임금에게 고했어. 미득국이면 나라를 얻는다는 건데, 그 가만 놔두겠어. 그래서 반역죄를 뒤집어쓰고 젊은 청춘에 죽었어.

군포시 설화 43 한글

대야미 건양1차 경로당, 2004년 8월 5일, 심옥순, 女, 79세.

시집살이 잘 산 며느리 - 병어리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딸을 시집보내면서 병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석 삼년을 살아야 시집살이를 다 산 것이라고 일러줬다. 딸이 그 말을 명심하여 시집을 가서 도통 말을 하지 않았다. 시댁에서는 병어리 며느리를 얻었다며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 보내기 위해 가마에 태워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점심을 먹으려고 쉬게 되었다. 마침 색시 주위에 장끼와 까투리가 내려 앉아 있었다. 그것을 본 색시가 “어휴, 저거는 잡아서 우리 시아버님 몸보신 시키고, 저건 잡아서 시어머님 드리면 좋겠다.”라고 혼잣말을 했다. 가마를 지키고 서 있던 작은 아버지가 색시가 하는 소리를 듣고는 훌륭한 며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소박을 놓을뻔 했다고 여겨 도로 시집으로 데리고 왔다. 시댁에서 며느리에게 말을 하지 않은 까닭을 물으니, “친정에서 교육받았습니다, 병어리 삼년 귀머거리 삼년 무슨 삼년 석삼년을 살아야 시집살이 다한다 해서 말을 안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래서 그 시집살이를 잘 하다가 엇그저께 죽었대요.

군포시 설화 44 한글

대야미 건양1차 경로당, 2004년 8월 5일, 심옥순, 女, 79세.

산삼으로 부자된 이야기

옛날에는 저녁에 화로에 불씨를 보관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그 불로 밥을 해 먹곤 하였다. 불씨를 꺼뜨리는 일을 불길하게 여겼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녁에 화로에 불씨를 보관해 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불씨가 물에 꺼져 있었다. 이상하게 여긴 그 집 사람이 불씨가 꺼지는 이유를 알기 위해 망을 보기로 하였다. 명주실에 꿀을 묻혀 망을 보기로 하였다. 한밤중이 되자, 새파란 처녀가 나와 물을 퍼서 화로에 부어 불씨를 꺼뜨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주인이 명주실을

처녀의 발목에 살짝 동여 맺어 놓았다.

주인이 명주실을 따라 가보니, 삼이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발견된 삼은 그냥 캐면 안 되고, 제사를 지내고 “육구만다리, 만다리야”라고 소리친 후 캐야 된다고 전해진다. 주인이 재를 올리고 “육구만다리야” 소리를 치자, 삼대가 부르르 떨렸다. 삼대가 주인의 말에 응대를 한 셈이다. 그제야 주인은 삼을 캐서 부자가 되었다.

군포시 설화 45

대야미 건양1차 경로당, 2004년 8월 5일, 심옥순, 女, 79세.

쥐흔으로 부자된 이야기

부인이 바느질을 하는데 신랑은 아랫목에 드러누워 자고 있었다. 그런데 신랑 코에서 쥐가 한 마리 나오더니만, 문지방을 넘어가려고 애를 쓰는 게 보였다. 부인이 자로 다리를 놓아주자, 쥐가 건너서 내뺨더랍니다. 쫓아가다가 어느 집 담으로 들어가더니, 그 집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 쥐가 다시 돌아와 부인이 다리를 놓아주어 방으로 돌아왔다. 그때 남편이 잠에서 깨어나 신기한 꿈을 꿴다고 말했다. 남편은 부인에게 “저기 저 집으로 가니까, 금항아리가 하나 있더라.”라고 하였다. 부인이 그렇다면 실제로 그러한지 가보자고 나섰다. 부인이 남편을 데리고 가 보니, 실제로 금항아리가 놓여져 있어서 부자로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군포시 설화 46

대야미 건양1차 경로당, 2004년 8월 5일, 심옥순, 女, 79세.

금시발복 쓰고 부자된 이야기

저녁에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따리를 하나 가지고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아궁이 안에 보따리를 넣고 내뺨더래요. 주인 여자가 나와서 그 보따리를 꺼내 보니, 그 안에 돈이 가득 들어있더래요. 주인 여자가 종이돈을 다 꺼내 철 쟁반에 넣

어 놓고 보따리만 불에 다시 넣었다. 잠시 후 보따리를 넣었던 사람이 경찰과 함께 들어왔다. 그런데 불 속에 넣어 뗏으니, 동전만 우르르 떨어졌다.

주인이 보관해 두었던 돈으로 아버지 산소를 금시발복지에 쓰고 이후에 부자로 잘 살았다고 한다.

군포시 설화 47

대야미 건양1차 경로당, 2004년 8월 5일. 심옥순, 女, 79세.

단혈 이야기

파광자리도 잘 쓰면 부자가 되는 수가 있다고 한다. 명당자리를 미리 알고 파면 학이 날아온다고 한다. 예전에는 명당자리가 많아서 장수도 많이 나고 명인도 많이 나왔다. 그런데 왜놈들이 산마다 다니면서 혈을 찔러서 지금은 명인도 안 나오고 장수가 없어졌다고 한다.

군포시 설화 48

대야미 건양1차 경로당, 2004년 8월 5일, 심옥순, 女, 79세.

새끼 예뻐하는 호랑이

내면리 사람의 이야기이다. 내면리 사는 여자 다섯 명이 나물을 하러 갔는데, 바위 밑에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가 털이 복슬복슬한 게 있었다. 여자들이 예쁘다며 쓰다듬어 주고 있는데, 꼭대기에서 빗물 같은 것이 푹푹 떨어졌다. 여자들이 위를 쳐다보니, 호랑이가 제 새끼를 예뻐하는 모양을 보고 좋아서 웃느라고 입에서 흘린 침이 빗물처럼 떨어진 것이었다. 화들짝 놀란 여인들이 무서워 나물 보따리 등을 내버린 채 도망쳐 왔다.

다음날 아침 다섯 명 집마다 남겨두었던 보따리가 마당에 놓여져 있었다. 제 새끼를 예뻐한 것을 고맙게 여긴 호랑이가 그리 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군포시 설화 49

대야미 건양1차 경로당, 2004년 8월 5일, 심옥순, 女, 79세.

새끼 서발

날마다 하는 일 없이 먹고 노는 이가 있었다. 그 어머니가 하도 아들이 사는 꼴이 답답해서 좁쌀을 한 말 사다 주면서 밭에 심으라고 시켰다. 아들이 좁쌀 한 말을 받더니, 큰 농사를 지을 모양으로 소와 쟁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소와 쟁기를 마련해 주자, 쟁기를 쫓어지고 밭에 나가서 구덩이를 하나 판 후에 좁쌀 한 말을 한 군데 모두 쓸어 넣고 돌아왔다. 어머니는 아들이 하루는 죽히 걸려 할 일을 금새 끝내고 집에 온 것이 궁금했다.

얼마 후, 어머니는 아들이 조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밭에 나가 보았다. 그런데 밭에 골고루 씨를 뿌려야 할 것을 한 군데에 심어 놓은 탓에 조 이삭이라고 세 가닥만 나와 있었다. 게다가 아들은 조 농사라고 지었다는 그 세 가닥을 소에 실어 오는 것이었다.

너무 기가 막힌 어머니는 화가 나서 “너 이놈의 새끼. 그걸 가지고 빌어 쳐 먹어라.” 소리치며 조 세 가닥을 쥐서 내쫓았다.

아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저녁 무렵 유숙할 곳을 정해 어느 집에 머물게 되었다. 그리곤 그 집 주인에게 조 이삭을 쥐구멍에 넣어 보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조 이삭을 쥐구멍에 넣어 놓았으니, 쥐들이 이삭을 다 까먹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주인에게 제 이삭을 먹어치운 쥐를 잡아내라고 생떼를 썼다. 주인이 하는 수 없이 쥐를 잡아 주었다.

쥐를 얻은 아들이 또 다시 길을 나섰다가 저녁 무렵에 당하여 잠 잘 곳을 정해 들어갔다. 이번에는 주인에게 이 쥐는 고양이 앞에 놓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고양이가 제 쥐를 잡아먹었으니, 고양이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래, 이참에 고양이를 얻어 또 길을 나섰다.

한 군데에 이르러서는 주인에게 이 고양이는 개 곁에다 놔야지, 다른 곳에 놔두면 안 된다고 당부해 놓았다. 밤새 고양이와 개가 싸워 그만 고양이가 죽어버렸다. 이번

에는 주인에게 개를 얻어 나서게 되었다.

한 곳에 이르러 잠을 자게 되었는데, 주인에게 “저 개는 꼭 말이 자는 곳에서 재워야 지. 다른 곳에서는 잠을 자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개와 말이 싸우다가 그만 개가 죽게 되었다. 주인에게 생떼를 써서 말 한 필을 얻은 후에야 길을 나섰다.

어느 주막에서 유숙하며 자신의 말은 소여물을 주는데, 꼭 끓는 물을 말 대가리에서 부터 퍼부어 주어야 먹이를 먹으니, 그리하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끓는 물을 퍼붓자, 말은 그만 죽어버렸다. 이 사람이 노발대발하며 멀쩡한 제 말을 누가 죽인 것이냐고 호통을 쳤다. 주인은 제 딸이 그리한 것이니, 제 딸을 대신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

색시를 얻어 가마에 태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앉아서 쉬게 되었다. 그 사이에 뒤쫓아 온 색시 아버지가 제 딸을 가마에서 내리게 하고 가마 안에 비지를 한 자루 넣어 두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색시를 얻어 왔다고 큰 소리 쳤다. 어머니가 놀라서 가마를 열어보니, 비지만 가득 있었다.

군포시 설화 50

대야미 건양1차 경로당, 2004년 8월 5일, 심옥순, 女, 79세.

흑부리 영감

어느 마을에 흑부리 영감이 둘 있었는데, 한 사람은 심술 맞고 또 한 사람은 심성이 착하였다. 착한 흑부리 영감이 어딜 가다가 그만 도깨비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얼마 후, 도깨비들이 몰려와서 흑부리 영감의 흑을 보고 신기해하자, 영감이 복흑이니 탐내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자 도깨비들이 ‘은 나와라. 똑딱, 돈 나와라 똑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와 흑을 바꾸자고 하였다. 영감이 못이기는 척하고 흑과 도깨비 방망이를 바꿔 부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심술 맞은 흑부리 영감이 자신도 흑이 있으니, 도깨비 집을 찾아가 부자가 될 생각으로 도깨비 집을 찾아갔다. 잠시 후, 과연 도깨비들이 몰려와 흑부리 영감을 둘러쌌다. 그런데 도깨비들이 이 놈의 노인네. 복흑이라고 거짓말하고 도깨비 방망이만 가져가더니, 이번에도 거짓말하러 또 왔다면서 떼어갔던 흑까지 도로

붙여주었다. 흙을 떼러 갔던 심술보 흑부리 영감은 도리어 흙을 붙이고 왔다는 이야기이다.

군포시 설화 51

노산 경노당, 2004년 8월 5일, 이원희, 女, 84세.

제사는 정하게

옛날에 소금장사가 소금을 한 짐 지고 날마다 장사를 다녔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는데 하루는 소낙비를 만나서 주위에 인가를 찾는데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헤매다가 붙이 하나 보여 찾아가니, 초분 써 놓은 곳이었다.

소금장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하고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나는 오늘 밤 손님이 와서 함께 못가니, 제사 밥은 혼자 드시러 가게나.” “그럼, 나 혼자 다녀오세.”

“잘 먹고 오시게나.”

하고 인사를 주고받더니, 조용해졌다.

얼마쯤 지나서 제사를 받으러 갔던 친구가 왔다. “그래, 제사는 잘 받고 왔는가?” 하고 물으니, 제사 갔던 친구가 역정이 나서 말하길, “잘 먹긴. 내가 화가 나서 손주 새끼를 아궁이 속에 밀어 넣고 왔지.”

“왜 그래?”

“아, 글썄. 작은 아들 집에 가보니 내가 생전에 개를 좋아했다구, 개를 한 마리 잡아서 칼을 꽂아 두었잖은가? 그래서 큰 아들 집으로 가보니, 제사 지낸다고 사람은 칭해 놓고 먹을 것이 있어야지”

“왜, 먹을 것이 없나?”

“밥을 먹으려니 밥에도 벌레가 있고, 나물이라도 먹으려 해도 벌레가 있으니,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아무 것도 못 먹고 왔네. 내가 하도 괘씸해서 새끼 하나 아궁이에 쳐 넣고 왔네.”

소금장수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다 듣고 다음날 마을에 내려와 어젯밤 제사 지낸 집

을 물어 찾아가 보았다. 그 집에서는 간밤에 제사를 걸게 모셨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 있었다. 소금장수가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을 확인하고 작은 집을 찾아가 보았다. 소금장수가 작은 아들에게 개를 잡아 칼 꽂아 놓은 적이 있는지를 묻자, 작은 아들이 생전에 아버지가 하도 개를 좋아해서 많이 잡수라고 칼 꽂아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조카가 죽었다고 하였다. 제사를 정갈하게 지내지 못한 탓에 해고지를 당한 일이었다.

군포시 설화 52

노산 경노당, 2004년 8월 5일, 이원희, 女, 84세.

수중고혼 묘 찾아준 후 부자되기

어부들이 새벽에 전어 잡이를 하기 위해 선창가의 배를 막 띄우려고 노를 잡는데, 낯선 노인이 배에 올랐다. 어부들이 우리는 지금 전어 잡이를 하러 떠나는 길인데, 당신은 무슨 일로 우리 배에 오르느냐고 물었다. 낯선 노인은 어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테니, 자신을 좀 태워달라고 청하였다.

어부들이 물때를 놓쳐 출항을 못할까봐 더 이상 선창가에서 노인과 실랑이를 벌이기가 어려워 일단 출항을 하였다. 배가 전어 잡을 어장을 향해 가는데, 노인이 계속해서 자신을 제주도로 데려다 달라고 졸랐다. 어부들이 무슨 조화 속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노인은 자기 가족들이 모두 제주도에 있다고 하였다. 어부들이 그런데 어째서 강진에 머물게 되었는지 물으니, 노인은 나도 역시 고기잡이배를 탔었는데 파선이 되어 밀려와 강진 갯벌가에 묻히게 되었는데, 내 몸이 썩어 내려갈까 무서워서 고향을 찾고자 하니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을 제주도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고기떼를 만나 물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어부들이 도깨비에 홀린 듯 순식간에 제주도 어느 해변가에 당도하였다. 노인이 사공 한 사람을 데리고 어느 집을 향해 갔다. 당도해 보니, 커다란 부자집이었다. 그 집에서는 가장의 생사소식을 도통 알 수가 없어서 마침, 택일을 정해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노인은 사공을 마루에 앉혀 놓고 자신은 마루 위로 들어가 제사상을 받았다. 제사상은 병풍을 치고 촛대를 세워놓은 데다 음식을 정성껏 잘 차려놓았다. 노인이 잘 차려놓은 음식을 맘껏 먹고, 사공에게도 음식을 대접하였다. 식구들은 제를 지낼 때 예전에는 나지 않던 젓가락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도 나는 듯하고, 음복을 하는데 음식의 맛난 기운도 빠져 있는 듯하고 음식이 흐트러져 있는 것이 보여 이상하다고 여겼다. 노인은 제사음식을 배불리 먹은 후, 사공과 함께 다시 배에 올랐다.

강진으로 오는 길에 전어를 배 가득히 실어 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강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노인이 내년 자신의 제삿날에도 동행해 줄 것을 청하자, 어부들은 흔쾌히 승낙하였다. 헤어지기 전에 노인은 품에서 복지개를 꺼내 잘 보관해 주길 청하였다.

다음 해 같은 날이 당하자, 노인이 선창가에 나와서 어부들을 기다렸다. 이번에도 순식간에 제주항에 도착해 노인의 집으로 향하였다. 노인이 어부에게 자손들에게 자신이 온 사실을 말해도 믿지 못할테니 복지개를 증거 삼아 이야기하라고 당부하였다.

부잣집에서는 노인의 제사를 정성껏 모시고 있었다. 전해에 제사를 지내면서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난지라,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 하며 많이 모여 있었다. 이번에도 노인이 제사의 음식들을 배불리 먹고 여러 음식들을 함께 간 사공에게 주기 위해 손을 대니, 음식이 흐트러지고 줄어서 식구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제사가 다 끝난 후, 사공이 주인에게 가서, “나는 당신 아버지와 함께 왔다. 당신 아버지가 지금 이 곳에 당도해 있다.”라고 말했다. 주인이 “우리 아버지 어디 있소?” 물으며 의아해 하였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 방에 앉아서 있다.”

“무슨 헛소리냐? 알고 보니, 제사 음식이 없어진 것이 다 네 놈이 먹어치운 것이구나.”

라며 주인이 역정을 냈다. 그러자 사공이 “이것이 작년에 제삿날 썼던 것 아니오?”라며 복지개를 내놓았다. 옆에 있던 며느리가 작년에 제사에 아버님 복지개가 없어졌는데 못찾았는데, 어찌 갖고 오셨냐며 궁금해 하였다. 사공이 “아, 당신 아버님이 주어서 가지고 왔소.”라고 하였다.

사공이 당신의 아버지 모습이 내 눈에만 보이니, 당신 아버지께서 증거를 삼으려고 작년에 챙겨 놓았던 것이라고 일러줬다. 그제야 주인집에서 그렇다면, 아버지 묻힌 곳이라도 알려달라며 사정을 하였다. “아, 우리가 전어 값어치 몇 배라도 쳐 드릴테니, 묘자리를 일러 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아버지의 유골을 찾아 제주도애 묘를 쓰게 되었다. 그래서 주인은 아버지 유골을 찾고, 어부는 그 덕분에 부자로 잘 살게 되었다고 한다.

군포시 설화 53

노산 경노당, 2004년 8월 5일, 이보금, 女, 79세.

도깨비 이야기 - 개암으로 부자된 이야기

옛날에 어느 산골짜기에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을 모시고 색시와 함께 살아갔다. 하루는 나무를 하러 갔는데 개암이 하나 데구루루 굴러왔다. 이 사람이 “옳지, 이것은 우리 할아버지 갖다 드려야겠다.”하면서 주머니에 넣었다. 다시 나무를 끊어 모으고 있는데, 개암 하나가 데구루루 굴러와서 “이번에는 우리 할머니를 갖다 드려야지.”하며 주머니에 넣었다. 이어서 개암 하나가 또 굴러오기에 이번에는 아버지 뭇으로 주머니에 챙겨 넣고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개암 하나가 또 굴러 오기에 어머니 뭇으로 챙겨 넣었다. 갈퀴로 나무를 끊어모으고 있을 때 또 하나의 개암이 굴러와서 색시를 줄 생각으로 집어넣었다. 얼마 후에 또 이 사람 앞으로 개암이 굴러와 아이들 뭇으로 챙겼다. 조금 있다가 또 개암이 굴러오자, ‘이건 내가 먹어야겠구나’ 여기고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어느 새 해가 지고 갑자기 비바람이 불어서 몸을 피할 생각에 주변을 살피니,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집이 한 채 보였다. 이 사람이 비를 피하고자 그 오막살이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집에 도깨비들이 놀고 있었다. 이 사람이 도깨비들 몰래 다락방에 웅크리고 숨어 있었다.

도깨비들은 노래도 부르고, 도깨비 방망이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서 장난을 치고 놀고 있었다. 이 사람이 그것을 몰래 지켜보다가 배가 고파 전에 주

있던 개암을 한 입 깨물었다. 그런데 도깨비들은 개암 깨문 소리를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로 들어 화들짝 놀라서 도망쳐 버렸다. 도깨비들이 황급히 도망가는 통에 도깨비 방망이를 놓고 가버렸다. 이 사람이 내려와 도깨비 방망이를 챙겨 “쌀, 나와라. 똑딱” 하고 소리쳐 보니, 쌀이 나오고 밥이 나오라 하면, 밥이 나오니, 이후에 잘 살게 되었다.

이웃에 어렵게 살던 친구가 이 사람이 갑자기 잘 살게 된 까닭을 물으니, 이 사람이 자신이 겪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친구가 자신도 잘 살아볼 생각에 나무를 하러 갔다. 친구가 나무를 하자, 어디선가 개암이 데구루루 굴러왔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제 몫부터 챙기고 아이들, 아내 몫을 챙긴 후에야 부모님 몫을 챙겼다. 그런 후, 도깨비 집의 다락방에 숨었다. 도깨비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도깨비 방망이로 장난을 하고 있을 때 개암을 한 입 깨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깨비들이 “이 놈. 저번에도 우리 도깨비 방망이를 가져가 놓고, 또 속이러 왔네.”하면서 달려들어 혼을 냈다. 친구는 도깨비 방망이는커녕 도깨비들한테 혼만 잔뜩 나고 돌아왔다.

군포시 설화 54

노산 경노당, 2004년 8월 5일, 이보금, 女, 79세.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에 깊은 산중에 어머니와 남매가 살았다. 깊은 산중이라 농사를 짓고 살기도 어려워 떡을 만들어다가 고개 고개를 넘어서 시내에서 팔아 근근이 살아갔다. 하루는 어머니가 떡을 팔고 오다가 그만 해를 넘기고 한밤중에 고개를 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어머니가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사람 소리를 하면서 “할멈, 할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면서 나타났다. 어머니가 남은 떡을 주자, 호랑이가 사라졌다. 고개 하나를 넘자, 이번에도 또 호랑이가 나타나 “할멈, 할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하고 소리쳤다. 이번에도 어머니는 호랑이에게 떡을 주고 고개를 넘어갔다. 이렇게 고개를 넘을 때마다 호랑이가 나타나 어머니에게 ‘떡을 달라, 다리

를 달라.’ 하며 결국에는 어머니를 잡아먹고 말았다.

호랑이는 어머니를 잡아먹고 집에 있는 남매를 잡아먹으려고 집으로 찾아가서, “애들아, 문 열어라. 엄마 왔다.”라고 했다. 그런데 남매들이 엄마의 목소리와 다른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우리 엄마 목소리 아닌데요.”라고 답했다. 호랑이가 감기가 걸려서 목이 쉬어 그러니 어서 문을 열라고 재촉하자, 아이들이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하였다. 호랑이가 자신의 발에 밀가루칠을 하여 내밀었다. 아이들이 “우리 엄마, 손이 아닌데요.”라고 하였다. 그래도 호랑이가 자신이 엄마라며 계속 문을 열라고 성화를 하자, 아이들이 하는 수 없이 집 뒤편으로 나가서 “하느님, 하느님. 우리를 살리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 주시고, 살리지 않으시려면 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하며 애원하였다. 그러자 하늘에서 줄이 하나 내려와 그것을 타고 남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다. 하늘로 올라간 남매는 해와 달이 되었는데, 오빠가 여동생에게 “너는 여자니까 낮에 다니고, 나는 남자니까 밤에 다녀야지.”라고 하여 오빠는 달이 되고, 여동생은 해가 되었다. 그래서 낮에는 여자가 해를 비추고, 저녁엔 남자가 달을 비추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호랑이는 남매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저도 하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동아줄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런데 하느님이 호랑이에게는 현 동아줄을 내려 보내어 호랑이가 하늘로 올라가는 도중에 밑으로 떨어졌다. 호랑이가 수수대에 떨어지는 바람에 수수대가 불긋불긋 하게 되었다고 한다.

군포시 설화 55

노산 경노당, 2004년 8월 5일, 이원희, 女, 84세.

밥 많이 먹고 방귀 배워 온 며느리

어떤 사람이 마누라를 얻었는데, 이 마누라가 늘 시름시름 앓았다. 그런데 남편이 들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먹을 밥이 없었다. 남편이 속으로 생각하길, ‘마누라는 병이 나서 허구헌날 이렇게 시름시름하는데, 집을 비우기만 하면, 나 먹을 밥이 없어지니, 아픈 년이 밥을 어찌할꼬?’ 늘 궁금해 하였다. 그래서 하루는 일을 나가는 척하

고 숨어서 마누라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마누라가 술째 가져다 놓고 밥을 계속 퍼 먹드랍니다. 밥을 다 퍼먹은 후 배가 불러 '씩씩' 앉아 있더니만 이번에는 콩을 부엌으로 가져다가 들들 볶아서 한 솥을 다 먹었다. 콩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먹을 밥을 제 혼자 다 먹어 놓고 아프다고 자빠져서 콩을 '우드득, 우드득' 씹어 먹는 것이었다. 화가 잔뜩 난 남편은 '내가 저 녀를 데리고 살다가는 거지가 되겠다' 여겨서 마누라를 내쫓아버렸다. 얼마 후, 새 마누라를 얻었는데, 새 마누라는 전처보다 한 솥 더 퍼서 밥을 더 먹었다. 전처는 한 바구니만큼 먹었다면, 새 마누라는 두 바구니만큼은 퍼서 먹는데, 자다가도 묵고 놀다가도 먹고 아프다는 말은 안 하고 그저 놀다가도 먹고, 자다가도 먹는 등 시도때도 없이 먹어댔다. 이 남자가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다고 여겨서 내보내려고 작정을 하였다.

그런데, 부모님이 무슨 여편네를 얻어서 내차 마누라를 내쫓으려 하는지 궁금해 아들 집을 찾아왔다. 시부모가 보기에선 며느리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는 듯하여, 하룻밤을 자고 가기로 하였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아가, 내가 하룻밤 묵고 가야겠다."라고 하니, 며느리가 "아버님, 자고 가시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만 저는 방귀를 잘 끼는데 어쩔까요?"하고 걱정을 하였다. 과연 다음날 아침 시아버지께 며느리가 밥상을 띄 들여놓고는 '뽕뽕' 하고 방귀를 끼더랍니다. 시아버지가 멋쩍어서 '허허' 웃으면서 "아니, 넌 뭘 방귀를 그리 끼느냐?" 하니, 며느리가 "아, 이건 가짜요. 제가 진짜 방귀 한 번 끼어 볼까요? 제가 진짜 방귀 끼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라고 답했다. 시아버지가 "그럼, 어쩐지 들어나 보자."하니, 며느리가 "그럼, 아버님은 방문을 잡으시오. 어머님은 기둥 잡으시고, 서방님은 밖에 나가 아무것이라도 잡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더니 며느리가 방귀를 끼니까, 시아버지는 방에서 '들롱 들롱' 하고, 시어머니는 '덜렁덜렁' 하는 등 방귀 바람에 사람들이 모두 들썩들썩하니까, 시아버지가 "너, 방귀를 어디서 배웠니?"라고 물었다.

"친정에서 배웠지요."

"친정에서 어떻게 배웠니?"

"아버지께서 방귀만 잘 끼면 신체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잘산다고 하여 배운 방귀입니다."

“아, 보통 방귀가 아니다. 세상에 딸을 키우면서 방귀도 가르치는가?”

“아, 방귀만 잘 끼어도 건강하다는데 무슨 죄가 됩니까?”

시아버지가 웃으시면서 “그래, 니가 복덩이다. 방귀도 잘 끼고 똥이든 잘 먹고 일도 잘하면 그만이다. 자식 낳고 잘 살아라. 우리는 우리집에 갈란다.”하면서 본가로 돌아갔다. 이후에 며느리는 정말 부자로 잘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큰 방귀는 안 끼고 그저 ‘뜨드드드드’ 이렇게만 끼더랍니다.

군포시 설화 56

당2동 경로당, 2004년 8월 6일, 최윤심, 女, 76세.

행실 나쁜 마누라

옛날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인이 행실이 나빴다. 하루는 남편이 부인에게 어디를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다가 아무래도 맘이 놓이지 않아서 도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 니나 다를까 그 사이에 제 집에 외간 남자가 와서 부인과 자고 있었다. 남편이 갑자기 문을 활짝 열자, 놀란 외간 남자가 펄쩍 뛰어 나가버렸다. 남편이 부인에게 이실직고 하라며 계속 다그치자, 부인이 “아이구, 아이구. 우리 아버지가 왔다 간 것이네.”라며 발뺌을 하였다. 외간 남자는 피를 내어 재빨리 도망가고, 부인은 친정 아버지였다고 변명을 둘러대며 억울하다며 땅을 두들기며 울더랍니다.

군포시 설화 57

당2동 경로당, 2004년 8월 6일, 강순옥, 女, 77세.

가나봐라 주나봐라

그전에 있었던 이야기이다. 중이 시주를 하러 갔는데, 마침 주인 집 여자가 베를 짜고 있었다. 중이 마당에 서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청하자, 여자가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시주를 안 줬다. 그러자, 중이 아랫도리를 내리고 앉아서 “시주 안 주면

가나봐라. 가나봐라.”라고 하자, 베 짜던 주인 여자는 “주나봐라. 주나봐라.”라고 응수했다. 종이 계속해서 으름장을 놓아 끝판에는 시주를 얻어 갔다.

군포시 설화 58

신산본 LG 아파트, 2004년 8월 6일, 김순이, 女, 87세.

효자와 불효자

옛날에 효자가 불효자 친구를 두었다. 하루는 불효자가 어떻게 하면 효자 노릇을 하는가 궁금해 효자 친구 집을 찾아갔다. 가서 보니까, 효자가 부엌에 들어가 고기를 사다가 손수 끓여서 부모님 진지상에 올려 드렸다. 그리고 저녁 진지를 드신 후, 옷을 벗어 맨몸으로 부모님 이불 속에 들어가 자리를 따뜻하게 대핀 후, 부모님이 주무실 때 나와서 안녕히 주무시라고 절을 하고 나왔다.

불효자가 효자의 본을 보고 자기도 고기를 두어 근 사가지고 가서 손수 끓여서 부모님께 드리고 그 효자 하는 대로 겹옷을 벗고 부모님 이불 속에 들어가 자기 온도로 자리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부모님이 들어오시자, 불효자가 얼른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시라고 절을 하는데, 부모가 갑자기 “이 놈이 이제는 점점 에미, 에비 자리까지 뺏는다.”라면서 두들겨 팼다. 그후 불효자는 점점 더 불효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효자나 불효자도 다 부모가 만드는 것이고, 부모가 잘 해야 효자를 만든다고 해요.

군포시 설화 59

신산본 LG 아파트, 2004년 8월 6일, 김순이, 女, 87세.

피꼬리와 왜가리의 노래자랑

피꼬리와 왜가리가 황새한테 노래자랑을 갔다. 왜가리는 황새에게 가기 전에 미리 커다란 미꾸라지 한 마리를 잡아다 주었다. 왜가리에게 대접을 잘 받은 황새가 피꼬리에게 노래를 해 보라고 시켰다. 피꼬리가 여자처럼 예쁜 목소리로 노래를 잘 불렀

다. 이번에는 왜가리에게 노래를 불러 보라고 하였다. 왜가리가 노래라고 배운 것이 없어서 그저 두 날개를 탁 치면서 ‘왜!’ 하고 날랐다. 그러자 황새가 미꾸라지 먹은 값으로, “야, 참. 왜가리는 대장부로다. 피꼬리는 여자로다.”하면서 왜가리 편을 들어주었다. 왜가리가 황새에게 미꾸라지를 바치고 성공을 했다고 한다.

군포시 설화 60

신산본 LG 아파트, 2004년 8월 6일, 김순이, 女, 87세.

방귀쟁이 며느리

예전에 방귀를 잘 끼는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도통 시택이 어려워 방귀를 못끼고 참으니까 점점 몸이 마르고 안색이 나빠졌다. 식구들이 걱정이 되어 이유를 물으니, “저는 방귀를 끼어야 잘 사는데, 도통 방귀를 못끼어서 몸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시부모님이 그렇다면, 방귀를 끼라고 하자, 며느리가 “그렇다면, 아버님께서서는 중방을 집으시고, 어머니께서는 장독을 집으시고, 서방님은 술전을 잡으십시오.”하며 당부를 하였다. 며느리가 방귀를 끼자 시아버지는 ‘뽕뽕뽕’ 돌고, 시어머니는 장독대에서 ‘들썩들썩’ 하고 남편은 술뚜껑을 집은 채 ‘오르락내리락’ 하였다. 혼비백산이 된 시아버지가 “애야, 너무하잖니. 그만 좀 해라.”라며 애원하다시피 말하였다. 그런데 며느리는 과연, 방귀를 한 번 끼더니 안색이 환하게 좋아지더라입니다.

군포시 설화 61

신산본 LG 아파트, 2004년 8월 6일, 김순이, 女, 87세.

요부가 된 불요부

한 효자가 있는데 고부간에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참 중간 역할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여. 그런데 이 효자가 이랬대요. 부인더러 관가에서 살찐 할머니를 돈을 많이 주고 사간다는데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을 찌게 하여 팔자고 하였다. 그러

니까 부인네 말이 노인네는 밤을 많이 잠수면 살찐대요. 그러면 밤을 한 말 사올까? 그래서 효자가 밤을 한 말 사다 주면서 이걸 삶아서 매일 어머니날 하루 한 되씩만 드리라고 당부했어. 그래서 부인네가 돈을 많이 받을 생각에 매일 밤 한 되씩을 삶아서 드렸대. 그랬더니 참 살이 차차 차차 찌더래. 이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남편 친구들이 그 소식을 알고 밤도 사오고 고기도 사오고 옛날이야 되게 어려웠지요. 식량도 가지고 오고 부자 다르지 않게 유복하게 살게되네. 고기도 잘 먹고 밤도 잘 먹고 쌀도 가져오고 그래서 잘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효자가 보기에 어머니도 살이 통통하게 찼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인더러 “아휴, 우리 어머니 관가에 바치면 돈 많이 받겠네요. 어머니 모시고 관가에 가야겠네.”라고 했다. 그랬더니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구, 여보 그게 무슨 말이요. 친구 분들이 그렇게 잘 하는데 어머니가 없다면 누가 가지고 오겠소.”하며 정색을 하더랍니다. 어머니 가만 잘 모셔두고 친구 분들과 사이좋게 지내자고 신신당부를 하더래요. 그래서 효자 어머니 자손들이 잘 봉양해서 아주 소복하게 살이 찌서 잘 살더래요.

군포시 설화 62

신산본 LG 아파트, 2004년 8월 6일, 김순이, 女, 87세.

며느리가 지은 조복

어느 집에 며느리 시집살이가 어찌나 심한지, 며느리가 배고픔에 시달리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관직에 몸을 담고 있으니, 가정일은 잘 몰라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살이를 아주 심하게 시키거든요.

하루는 시아버지가 관가에 들어가기 위해 며느리에게 조복을 한 벌 지어 놓으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조복을 짓는데, 앞에는 청학을 그리고 뒤에는 봉학을 그렸어요. 그런데 청학은 아주 굵주려서 죽을 힘을 다해서 형을 그려 옷을 완성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아버지는 그 조복을 입고 임금님을 알현하게 되었다. 임금님이 쓱 훑어 보시더니, “경의 조복은 누가 지었누?” 물었다. “신의 며느리가 지었습니다.”라고 답하자, 임금님이 깜짝 놀라면서 “신의 며느리가 어찌 그렇게 주린 형이 많으

냐? 그러니까 앞에는 청학이 아주 주려서 죽은 꼴이다.”라고 하였다. 시아버지가 “신이 관가에만 이렇게 정을 쏟고 가사 일은 잘 모릅니다.”하며 얼굴을 붉혔다. 임금께서 그래, 집안이 저 지경이 돼도 모른데서 뭘 하겠느냐. 어서 당장에 가사를 돌보라고 당부하였다.

시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부인을 불러서 “왜 며느리를 그렇게 배를 굶주려서 임금님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하느냐? 내 꼴이 뭐가 되느냐?”하며 탄식을 하더랍니다. 그 후 부인을 잘 다독거리면서 며느리와 화목을 시켰다고 한다. 그 며느리는 부모한테 효도를 하고 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착하게 하니, 임금님이 화목을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죠.

군포시 설화 63

신산본 LG 아파트, 2004년 8월 6일, 김순이, 女, 87세.

병어리 며느리

옛날에 딸을 시집보내면서 어머니가 상자에 돌을 하나 넣어 주면서 당부의 말을 해주었다. 만약에 ‘옥’ 하는 심정이 들더라도, 돌 모양새가 동그러질 때까지 말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시집간 딸이 하루에 수십 번을 열어봐도 돌 모양이 그대로였다. 딸은 친정어머니가 그만큼 입조심을 하면서 시집살이를 견디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미련스럽게 돌이 동그라지기만을 기다렸다. 시댁에서는 양반의 집안에서 며느리가 시집온 지 백일이 되도록 말을 안 하니, 병어리 며느리를 얻은 줄로 알고 백일 만에 친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였다. 행실이 아무리 좋아도 병어리 며느리를 참지 못한 것이었다. 가마를 태워져서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산길을 지나는데, 꿩이 한 마리 ‘퍼드득’ 하며 날아가는 것이 보였다.

“아휴, 퍼드득하지 말고 게 꼬꾸라져라. 붙잡아다 우리 시아버님, 시어머니 봉양하게.”

며느리의 말소리를 들은 가마꾼들이 ‘아, 이런 아씨를 어딜 데려가느냐? 도로 가져.’라고 여겨서 가던 길을 돌려서 시댁으로 다시 돌아왔다.

시택에 도착한 며느리가 가마에서 내려서, “어머니, 아버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더랍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입을 열자, 시아버지가 춤까지 덩실덩실 추면서, 우리 효부 며느리를 까딱하다가 소박 놓을뻔 하였다면서 다행이라며 기뻐하였다. 그 후, 화목을 하고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대요.

군포시 설화 64

효자 경로당, 2004년 8월 6일, 강순금, 女, 76세.

구렁덩덩 신선비

어느 부잣집 아들이 장가를 못 들어서 큰 구렁이가 됐다. 구렁이기는 하지만 그의 모습은 신선과 같았다. 딸만 셋이 있는 집의 어머니 아버지가 큰 딸을 불러서 물었다. “첫째야, 너 구렁덩덩 신선비한테 시집갈래?”

큰딸이 대답했다.

“아유 미쳤나요. 구렁덩덩 신선비한테 시집을 가게”

둘째 딸을 불러서 “둘째야, 너 구렁덩덩 신선비한테 시집갈래?”라고 물으니 둘째도 싫다고 했다. 다시 셋째를 불러서 물었다.

“막내야, 너 구렁덩덩 신선비한테 시집 갈래?”

“아버지 영을 제가 무엇이라고 여기겠습니까”

막내딸이 구렁덩덩 신선비에게 시집을 가기로 했는데 한달 사흘 만에 구렁덩덩 신선비 쪽에서 다 차비를 해서 왔다. 언니들이 싫다고 한 자리에 시집을 가기로 했으나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어 아버지에게로 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아버님!”

“왜 그러냐?”

“제가 불효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가 무슨 불효를 한다고 그러냐”

“머리 큰 언니들을 다 두고 어찌 제가 시집을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 소리 말아라. 네가 한번 뱉은 말은 다시 거둘 수 없다”

그리하여 셋째는 구렁이에게 시집을 갔다. 첫날밤에 큰 구렁이가 들어왔으나 놀라지 않았다. 결혼하고 사흘 저녁 되는 날 구렁이가 스르르 나가더니 허물을 벗었다. 허물을 벗고 나니 그 모습이 신선과 같았다.

허물을 벗은 신선비가 '아이구, 여보' 하며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내 배필이 될 줄은 몰랐소.”

그 소식을 들은 첫째언니와 둘째언니는 “아이구, 내가 같걸.”하고 후회 했다. 구렁이 허물을 벗게 된 신선비가 과거급제를 해서 부자로 잘 살았다고 한다.

군포시 설화 65

효자 경로당, 2004년 8월 6일, 강순금, 女, 76세.

숫장사 얘기

어느 가난한 사람이 장가도 못가고 어머니가 매일 굶다 시피 하자 돈을 벌려고 숫굽는 곳을 찾아가다. 석달 열흘을 숫을 구워서 지고 다니면서 숫을 팔았다.

“숫 사려 숫 사려”

숫을 지게에 짊어지고 가는데 소나기가 와서 숫과 바지가 젖어 어느 굴에 들어가게 되었다. 굴 안에서 어떤 여인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들어가니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있었다.

“뉘신데 저를 부르셨어요?”

여인은 잠뱅이를 내밀며 말했다.

“잠뱅이를 벗으세요.”

여인의 말에도 남자는 옷을 벗지 않았다.

“왜 그러세요?”

“저는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사는데 생활이 어려워 이렇게 숫을 팔러 다닙니다. 이것마저 안하면 굶어 죽습니다.”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남자가 밖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오자, 여인이 따라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남

자는 어찌 해야 할 줄 몰라 하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길을 떠났다. 여인이 남자의 뒤를 따라 집에 가보니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었다. 어린 여동생은 어머니한테 밥을 달라고 보채다가 오빠를 보자 돈 벌어왔느냐고 물었다. 남자는 여동생에게 말했다.

“비가 와서 돈을 못 벌어왔어.”

여인이 남자가 사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안본 것만 못하였다.

남자가 여동생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만 자면 내일 내가 숯 굽는데 가면은 돈을 벌어 올수 있으니 조금만 참아라.”

큰 바가지에다 물을 한바가지 떠서 먼저 어머니와 동생을 먹이고 나서 물을 마셨다. 여인이 신세를 질까 하고 남자를 따라왔는데 그럴 형편이 아니었다.

다음날 남자가 숯을 하러 가는데 여인이 뒤를 따라가서 숯을 굽는 것을 보았다. 가마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가마 언저리가 온통 금덩어리였던 것이다.

여인이 남자에게 말했다.

“숯을 굽지 말고 이 가마를 뜯으세요.”

“이걸 뜯어서 뭘 하려구요?”

“글쎄 제 말만 들으세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돌이었는데 여인이 보기에는 모두 금덩어리였던 것이다. 남자와 여인은 가마를 뜯어 지게에 지고 돌아와 팔아 부자가 되었다.

군포시 설화 66

효자 경로당, 2004년 8월 6일, 김팔순, 女, 80세.

만지면 금이 되는 손

옛날에 항상 돈을 가지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있었다.

매일 ‘어딜 가면 돈이 있을까?’ 하는 생각만 하면서 보냈다. 어느 날 밤에 자는데 하얀 영감이 손을 만지고 가는 꿈을 꾸다가 깨서 손으로 베개를 짚으니 금이 되었다. 아

들과 머느리에게 금으로 변한 베개를 보여주면서 이제 부자가 되었다며 좋아했다. 그 사람의 손만 닿으면 모두 금이 되었다. 밥을 지으려고 만져도 금이 되어서 밥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밥을 먹어야 사는데 모두 금이 되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되니 금도 돈도 귀찮아졌다. 그 사람은 다시 소원을 빌었다.

“나 돈도 싫으니 제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러자 꿈속에서 중이 나타나 다시 손을 때리고 갔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온통 금으로 변한 것을 만지자 모두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

군포시 설화 67

효자 경로당, 2004년 8월 6일, 강순금, 女, 76세.

소금장사 지게 작대기

어머니 주씨와 아버지 이씨가 아들 셋을 두고 살아갔다. 아버지가 소금 장사를 하다가 장사를 그만두고 나무도 저다가 팔아도 생활이 어려워져 큰 아들과 집을 나가고, 작은 아들은 남의집살이를 나가서 자식이라곤 막내아들과 딸만 남았다. 막내아들은 두 형이 나가고 어머니와 누이동생이 있으니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하다가 소금장사 나무장사 별 장사를 다하다가 하루는 동산에 앉아 생각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어머니랑 동생을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먹여 살려야겠다’

막내아들은 동산에서 나무를 해서 짊어지고 내려오다가 배가 고파 칩뿌리 순을 꺾어 묶기 시작했다.

‘이만큼은 우리 어머니를 주고, 이것은 동생주고 이것은 내가 먹어야지. 이것만 먹으면 죽지는 않겠지.’

꺾은 칩뿌리를 나뭇짐 위에 얹어 놓고 내려오면서 생각했다.

‘내일은 내가 아무 장사라도 해서 어머니하고 내 동생을 먹여 살려야겠다’

칩뿌리를 먹고 물을 한 대접씩 먹고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소금 장사를 나갔다. 소금을 지고 소금을 팔러 나갔다.

“소금 사려 소금 사려”

소금을 팔러 다니다가 밥이라도 얻어먹을까 싶어 초상집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집도 어려워서 바가지 조각에 무척 삶은 것만 겨우 얻을 수 있었다.

‘이 밥이면 어머니와 누이동생 요기는 되겠다.’

그는 밥을 먹는 척하며 밥을 먹지 않고 몰래 싸가지고 잘 먹었다며 인사를 하고 나왔다.

지계에 소금을 지고 길을 가는데 비가 내려서 어느 굴에 들어가니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깎듯이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보아 하니 그 여자도 굶은 것 같아 보였다.

‘이 밥은 우리 어머니 드려야 하는데...’

그러나 해가 저물어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다. 자고 일어나니 소금 가마니는 다 젖어 있었고, 소복 입은 여자가 잠뱅이를 주는 것이었다. 막내아들이 옷을 갈아 입고 나니 여자가 물었다.

“왜 이렇게 소금장사를 해요?”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있는데 가난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여자가 방에 들어가더니 뭘 하나 싸서 주었다. 그리고는 이걸 가지고 자기 가 말해주는 곳에 가면 쌀을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여자가 마지막 당부를 했다.

“이걸 팔고나서 사흘이나 나흘 만에 여길 찾아오세요. 그때는 당신이 나하고 배필이면 살길이 있고 인연이 아니면, 못합니다.”

막내아들은 얻은 밥과 여인이 준 물건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어머니하고 동생이 너무 굶어서 죽기 직전이라, 동산에 가서 나물을 뜯어다 먹었다. 그리고는 여인이 준 물건을 장에 가 팔아서 닷 냥을 받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좁쌀 한말에 이것저것 사가지고 지계에 가는데 부자가 된 거 같았다. 지계를 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지계 작대기를 툭툭 치면서 “네 덕이다 네 덕이야” 하며 노래를 부르며 가지고와서 동생하고 어머니를 봉양했다.

사흘 만에 오라는 것을 나흘 만에 굴에 찾아갔더니 여자는 없고 종이에 여러 번 쓴 물건만 있어 그것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얼마 후, 여자가 찾아왔다. 둘은 천상 배필을 삼아 잘 살았다고 한다.

군포시 설화 68

효자 경로당, 2004년 8월 6일, 강순금, 女, 76세.

흔쥐

밥만 먹었다하면 도둑질을 하는 남자가 있었다. 여자가 바느질을 하면 남자가 도둑질을 갔다 와서 잔다. 밤에 쥐가 이리 저리 나왔다 하다가 없어지면 남자가 도둑질을 하러 가는 것이었다. 여자는 밤마다 쥐가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무서워 남편한테 말했지만 남편은 도둑질을 하러 나갔다.

여자가 밤에 바느질을 하는데 쥐가 나와서 이번에는 잔 막대기로 쥐를 쳐서 죽였다. 한 마리가 더 나타나자 그마저도 쳐서 죽였다. 그러자 남편이 ‘아이구, 무섭다’ 라며 그때부터 도둑질을 하러가지 않았다. 이미 도둑질을 많이 해온 터라 집에는 흙친 곡식과 물건이 많아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

어느 날 여자는 동네 사람이 아기를 낳았는데 밥을 못해서 몇 일째 굶는다는 얘기를 듣고 남편이 도둑질한 쌀을 몇 바가지 퍼서 그 집에 갔다. 애기 엄마를 부르니 남자가 나왔다. 여자는 아이 엄마 얘기를 듣고 왔다고 그 집 주인에게 쌀을 주며 당부하길,

“이 쌀을 그냥 먹지 말고 절구에 세 번 찧어 드셔야 해요.”

그 집 남자가 너무 고마워서 인사를 한 후, 여자가 준 쌀로 밥을 해서 애기엄마에게 먹였다. 그 쌀 때문에 애기엄마와 아기가 살 수 있게 되었다.

여자가 준 쌀 덕분에 자기 식구 둘씩을 살렸다는 것이 고마워서 남자가 버드나무를 팬 장작을 한 짐을 지고 고개를 넘어 아주머니를 찾아갔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누구세요?”

남자 고쟁이를 바느질을 하고 있던 여자가 나왔다.

“아주머니 제가 보답할 게 마땅치 않아서 이 나무를 가지고 왔어요.”

“참, 고마워요.”라고 하며 들어오라고 해서 밥을 한상 잘 차려서 먹이고 좁쌀 한말을 퍼주었다.

“이걸 갔다가 애기엄마 죽이나 썩춰요.”

남자는 그것을 애기 엄마에게 갔다 먹였으나 보답할게 없었다. 그래서 다시 그 집을 찾아 갔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그러나 여자는 나오지 않고, 도둑 남편이 나오더니, 제 부인을 꼬이러 왔다면서 그 남자를 두들겨 팼다. 남자는 매만 죽도록 맞고 돌아갔다.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안 여자는 남편에게 오해였다는 것을 말하고, 그 집에 가서 사과를 하고 오라고 당부했다. 도둑 남편이 그 남자 집을 찾아가 사과를 한 후 다정히 잘 살자고 해서 모두 잘 살았다고 한다.

군포시 설화 69

효자 경로당, 2004년 8월 6일, 강순금, 女, 76세.

콩쥐팥쥐 이야기

콩쥐 팥쥐가 살았다. 서모가 팥쥐는 금덩이처럼 귀하게 여기고, 콩쥐는 절구질만 시켰다. 팥쥐는 일그러지듯 생기고 콩쥐는 이쁘게 생겼다.

하루는 잔치에 가는데, 서모가 콩쥐에게 커다란 독에 물을 가득 다 길어다 놓고, 명석에 넣어 놓은 벼를 다 찢어 놓으라고 이르고, 팥쥐만 데리고 잔치 구경을 갔다. 외가집의 잔치라서 콩쥐가 뒤따라가려고 했지만, 서모가 깨진 독에 물을 가득 길어 놓고 한 가마니나 되는 벼를 절구질해 놓으라고 시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콩쥐가 벼가 널려져 있는 명석 위에서 두 다리를 뺐은 채, ‘아, 언제 깨진 독에 물을 어떻게 붓고, 이 많은 벼는 언제나 다 찢나’ 걱정이 되어 울고 있었다. 그때 새 한 무리가 내려와서 벼를 다 까놓았다. 그리고 두꺼비가 와서, “걱정 마. 내가 없드려 있을께.” 하며 깨어진 독 바닥을 막고 앉아있었다. 두꺼비 덕분에 깨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다. 일을 마친 콩쥐가 외가에 당도하니, 서모가 이상하게 여겼다.

마침, 외가에서 콩쥐의 혼사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후, 신선 같은 선비와 잔치를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 나라에서 콩쥐에게 꽃신 한 켤레를 내려서 신랑감과 배필을 맺도록 주선하였다. 그런데 콩쥐가 그만 꽃신을 한 짝 잃어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서

모가 중간에서 수작을 꾸며서 콩쥐의 신랑감과 팥쥐가 혼사를 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선비가 잔치를 하고 사흘 되던 날, 정신을 차린 선비가 꽃신의 주인을 찾아 나섰다. 우여곡절 끝에 콩쥐가 꽃신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

군포시 설화 70

궁내동 주공 세종6단지, 2004년 8월 12일, 조보덕, 女, 86세.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길을 가는데

옛날에 꼬부랑 할머니가 있었는데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꼬부랑 고개길을 넘어 가는데 꼬부랑 강아지가 따라와 그러니까 꼬부랑 지팡이로 강아지를 쳤어 꼬부랑 지팡이로 이렇게 꼬부랑 꺾 꼬부랑 꺾하고 달아났다.

군포시 설화 71

궁내동 주공 세종6단지, 2004년 8월 12일, 조보덕, 女, 86세.

머리 아홉 달린 괴물

옛날 어느 산골집에 식구가 많이 살았는데 어디선가 머리 아홉 가진 짐승이 나타나 식구들을 한 명씩 차례로 다 잡아먹었다. 하루는 어느 길손이 가다가 날이 저물어 이 집에서 유숙하기로 마음먹고 주인을 청하자, 집안에서 젊은 여자가 나왔다.

“하룻밤 묵어 가길 청합니다.”

“우리 집에는 나 홀로 뿐이니, 다른 곳으로 가시죠.”

“상관 없으니,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길손이 막무가내로 청하니, 젊은 여자가 정 그렇다면, 하룻밤 묵어가라고 승낙하였다.

길손이 커다란 집에 젊은 여자만 사는 것이 괴이하여 사정을 물으니, 이 여자가 원래 식구들이 많았는데, 어떤 괴물이 나타나 식구들을 차례로 잡아먹고 자신만 남게

된 사연을 말하였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밤 자신이 이상한 짐승에게 잡힐 차례라고 하였다. 사실이 이러하니, 손님을 다른 곳에 머물도록 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야기를 다 들은 길손이 그렇다면, 자신이 머리 아홉 가진 짐승을 잡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젊은 여자를 책상에 올려놓고 자신은 책상 밑에 숨어 앉았다. 얼마 후, 거짓 말처럼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머리 아홉 가진 짐승이 들어왔다. 길손이 총으로 머리 아홉 가진 짐승을 쏘자, 머리 아홉 가진 짐승이 도망을 가버렸다.

이튿날 길손이 집 주변을 살피다가 뒤뜰에 큰 느티나무를 발견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피마자 기름을 다 모아서 가마솥에 끓여서 느티나무에 붓도록 시켰다. 느티나무 속에 사는 큰 지네가 변신을 하여 그 집안사람들을 잡아먹은 것이었다.

군포시 설화 72

궁내동 주공 세종6단지, 2004년 8월 12일, 조보덕, 女, 86세.

토끼와 호랑이

토끼가 깡충 깡충 가는 게 아니에요.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하잖아? “아이고 호랭이님 나는 조그만데. 호랭이님 배나 실컷 부르게 저기 좋은 짐승이 있으니까 데려다 드릴게요.”라고 하였다. 호랑이가 “거기가 어디니?”라고 묻자, 토끼는 저리 저리로 가면 된다고 계속 어디론가 호랑이를 데리고 갔다. 호랑이가 그저 토끼 말만 듣고 따라가다가 그만 벼랑 끝으로 가서 넘어져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군포시 설화 73

궁내동 주공 세종6단지, 2004년 8월 12일, 조보덕, 女, 86세.

토끼 · 파리 · 술개

한번은 장님인 포수가 덩이를 놓았다. 마침 토끼가 장님이 쳐놓은 덩이에 걸리고 말았다. 그런데 토끼가 파리가 앉으니 “파리야, 내 몸뚱이에다가 실 좀 쓸어다오.”라고

부탁했다. 파리가 실을 싹 쓸어 놓은 후, 장님이 가 보니까 이게 다 뭐여 실을 쓸었나 보다 여겼다. 토끼가 방귀를 풍 끼니까 ‘아유, 이놈의 토끼 싹었구나.’ 하고 내던졌다. 던지니까 토끼가 뛰면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 “싹은 토끼 똥다.” 하면서 뛰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솔개한테 잡혔어. 솔개가 또 채갔거든? 솔개가 또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야, 나 우리집에 가서 똥 좀 가지고 오면 그때 잡아 먹어라.”

“너희 집이 어디니?”

“여기 가는데 여기 조금만 가면 되는데…….”

하더니 토끼가 어느 구멍으로 쓱 들어가버렸다. 솔개가 토끼 콩지를 이렇게 잡고 있어도 잡힐 듯 잡힐 듯 잡을 수는 없었다. 토끼가 말하길, “애, 내가 요사 주머니다. 내가 너한테 죽이려고 또 나가겠냐?” 하며 죽음을 면했습니다.

군포시 설화 74

궁내동 주궁 세종6단지, 2004년 8월 12일, 조보덕, 女, 86세.

도둑질하는 시어머니 버릇 고친 며느리

어떤 며느리가 시집을 오니까 그냥 시어머니가 도둑질을 해오더라. 시어머니가 도둑질을 해와도 그저 자꾸 들키더라고요. 어디 가서 목화 가져오고, 무명필 걷어오고 하는 것을 늘 들키니, 며느리가 ‘도둑질을 해서 남의 것을 훔치려면 들키질 말아야 할텐데.’ 라고 여겼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남의 명주를 훔쳐 왔기에, “어머니, 제가 이번 한번만 숨겨 드릴테니 다시는 도둑질 하지 마세요.”라고 하니, 약조를 하였다. 무쇠솥에 밥을 해 먹던 시절이었는데, 며느리가 무명필을 무쇠솥 밑에 탁 깔더니, 쌀을 한 바가지 얹혀서 불을 지펴 밥을 지었다.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무명을 찾으려 해도 못 찾더랍니다. 그 다음부터 시어머니가 도둑질을 안 하더라고요. 지혜로운 며느리죠.

군포시 설화 75

궁내동 주공 세종6단지, 2004년 8월 12일, 조병선, 男.

공짜 밥을 먹은 나그네

어떤 사람이 길을 나섰는데, 도중에 노잣돈은 없고, 배는 고파 어찌할까 궁리를 하였다. 마침 어느 주막에 가보니까 밥상이 잘 차려져 있었다. 이 영감이 꾀를 내기를 옷을 가리키며, “이게 무엇이오?”라고 주인에게 물으니, 주인이 “옷이오”라고 답하였다. 이 영감이 “네, 가겠습니다.” 하더니 밥 상 앞에 앉았다. 밥상 앞에 앉아서 보니까 잣이 있어서 잣을 가리키며 “이게 무엇이오?” 라고 물으니까 주인이 “잣이오”라고 답하니, “예, 먹겠습니다.” 하더니, 음식을 먹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야겠는데 돈이 없으니 돈도 안 내고 간다고 할까봐 가만히 생각하다 또 꾀를 냈다. 자신이 쓰고 있던 잣을 꺼내 들고, “이게, 무엇이오?”

“잣이오.”

“예, 가겠습니다.”라고 하더니, 돈도 한 푼 안 들이고 공밥을 먹고 길을 갔다는 이야기이다.

군포시 설화 76

궁내동 주공 세종6단지, 2004년 8월 12일, 조병선, 男.

머슴의 성(姓)

옛날 시골에 영감이 머슴을 들였어요. 그 머슴이 이제 성(姓)이 누군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네 성이 뭐가?”하고 물어보니까 “제 성은 배가(哥) 올시다.”라고 답했다. 이 양반이 글은 쓸 줄 모르고, 기록은 해놓아야 하겠기에 종이에 먹는 배 모양을 동그랗게 그려 놓았다. 다음날 아침에 머슴을 부르는데, 성을 깜빡 잊었어요. 그래서 그 종이를 꺼내서 보니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어서 ‘하하, 머슴이 공가(哥)구나.’ 하고 “공서방, 공서방” 하고 불렀어요. 머슴이 자기는 공가가 아니라 배가라고 하니

까, 이 양반이 “아차, 그림에 꼭지를 안 그렸구나.”라고 하더랍니다.

군포시 설화 77

궁내동 주공 세종6단지, 2004년 8월 12일, 조병선, 男.

대동강수를 판 봉이 김선달

옛날에는 강물을 길러다 먹었잖아요. 봉이 김선달이 강물을 길러 온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물을 길고 가는 길에 다시 자신에게 돈을 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주고받는 모양새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봉이 김선달이 물값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웠다. 봉이 김선달이 마을의 부자를 찾아가 강물 장사가 큰 돈벌이가 될 터이니, 상권을 사라고 하였다. 부자가 동네 사람들이 물을 기를 때마다 돈을 받으면, 큰 돈벌이가 되겠다고 여겨서 봉이 김선달에게 돈을 줬다. 봉이 김선달이 부자를 훌쩍 속이고 그저 도망을 가버렸다.

군포시 설화 78

궁내동 주공 세종6단지, 2004년 8월 12일, 조보덕, 女, 86세.

동자삼

어떤 초라한 집에서 며느리를 얻었다. 예전에는 집안의 여자들이 불씨를 화로에 묻어두었다가 다음날 아침 일어나 그 불씨로 아침을 지었다. 그런데, 며느리가 불씨를 화로에 묻어 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면 불씨가 늘 꺼져 있었다. 불씨를 꺼뜨리는 것은 커다란 흠인지라, 며느리가 시어머니 몰래 옆집에서 불씨를 얻어다가 아침을 지었다.

날마다 불씨가 꺼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며느리가 하루는 잠을 자지 않고 몰래 불씨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한밤중이 되자, 어떤 계집애가 나타나서 화로에 불씨를 싹 얹어 놓고 갔다. 며느리가 그 계집애를 따라 가보니깐 산의 바위 속으로 들어가 버

렸다. 계집애가 들어간 바위 주변을 보니까 산삼이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이런 사실을 집안 어른들께 고하니, 어른들이 제사상 같은 것을 잘 차려서 그 앞에서 제를 올리고 산삼을 캐다가 부자로 잘 살게 되었답니다.

군포시 설화 79

궁내동 주공 세종6단지, 2004년 8월 12일, 조병선, 男.

용왕된 아버지 덕에 결혼한 막내 아들

옛날에 이름난 풍수쟁이가 살았다. 풍수에 능통한 풍수쟁이에게 아들이 삼형제 있었다. 풍수쟁이가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길, “내가 다른 사람 묘자리도 많이 봐주었지만, 내게 꼭 필요한 묘 자리 두 곳을 골라냈다. 내가 죽으면 묘자리를 어디에 쓰시고 하니, 뒷동산 어느 지점에 쓰면, 너희들이 만석군 부자로 살 것이요. 만약 연못에 내 시체를 던지면 내가 죽어서 용왕이 될 것이니라.”라고 하였다.

첫째와 둘째 아들은 자신들이 만석군 부자로 산다기에 아버지 시신을 뒷동산에 정한 자리에 썼다. 그런데 막내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승에서 용왕이 된다고 하니, 형들 몰래 밤에 가서 아버지 묘를 파서 시신을 연못에 넣었다. 그리곤 집에 돌아가면 형님들에게 혼이 날테니, 그 길로 줄행랑을 쳤다.

그런데 이미 아버지는 용왕이 되어, 막내아들을 인도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어느 부잣집 무남독녀가 죽은 무덤으로 데려갔다. 죽은 혼과 자기 아들을 살게 한 후, 용왕의 힘을 빌어 죽은 여자를 살려냈다. 죽었던 여자는 남자 덕분에 다시 살아나니, 고마운 마음이 컸다. 그래서 그 부잣집 무남독녀와 막내아들은 결혼해 잘 살게 됐다 는 이야기이다.

군포시 설화 80

궁내동 주공 세종6단지, 2004년 8월 12일, 조보덕, 女, 86세.

학동이 혼장 장가 보낸 이야기

예전에 어느 훈장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혼자 살아갔다. 가르치는 학동 가운데 지혜로운 아이가 한 명 있었다. 하루는 이 아이가 제 선생에게 묻기를, “선생님, 선생님. 왜 저기 아무개 아주머니랑 사시지, 왜 혼자 사세요”라고 하였다. 훈장이 “예끼 이놈! 그 아주머니가 왜 나하고 사냐?”라고 나무래도, 아이가 “왜요? 선생님 그럼 나 하라는 대로 할래요?”라고 했다. 훈장이 쓸데없는 소리 다시는 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그래도 아이가 날마다 제 선생에게 와서, “왜 선생님 혼자 사세요? 아주머니 하고 살지? 아주머니도 혼자 사는데?”라고 성화였다. 훈장이 아무리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었다. 하루는 아이가 선생에게 자신이 시키는대로 하라고 단단히 약조를 받아냈다. 한편 아이가 그 흠아미 집에 가서는 “우리 선생님, 여기 왔어요?”라고 물었다. 흠아미가 “너네 선생님이 여기 왜 오냐?”하며 의아해 하였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또 와서 “우리 선생님 여기 안 오셨어요?”하니까 흠아미가 부지깽이를 들고 쫓아 나오면서 “너희 선생님이 여기 왜 오느냐?”라고 역정을 냈다.

그런데 이미 아이가 아주머니가 보리 농사를 지으러 집안을 비운 사이에 선생을 이 집 안방에 앉혀 놓은 후였다. 그러면서 능청스럽게, “아, 내가 오늘 선생님이 여기 오시는걸 보았는데.”하면서 방문을 열었다. “아, 여기 우리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 아주머니가 놀라서 “아이고, 내가 너 하라는대로 할테니 동네 사람한테 소문 내지 마라. 너,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마라.” 신신당부를 하였다. 아이가 절대로 안한다고 약조를 하였다. 아주머니가 “그럼, 내 너 뭘 해주랴? 떡을 해주랴, 과일을 사주랴, 사탕을 주랴?”라고 물었다. “정, 그러시면, 나는 계피떡 한 소쿠리만 해줘요.”

“그럼, 내가 그리해 줄테니, 그것 먹고 절대로 소문 내지 마라.”

“예.”

아이가 아주머니가 해준 떡을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선생님과 우리 아주머니하고 살게 되어서 떡 해서 돌리는 거예요.”라고 하더랍니다.

군포의 설화 81

신산본 LG 자이1차 아파트 경로당, 2004년 8월 16일, 구임희, 女, 83세.

찰떡 먹은 소금장수

다들 먹고 사는게 어렵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사는 형편이 어려운 남자가 소금장수를 하려고 길을 나섰다. 해가 저물어 머물 곳을 찾다가 어느 집에 가서 하룻밤 자길 청하여 머물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집 안주인이 방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아, 저 소금장사가 오늘 좀 들어와서 자겠는데 어떡하우? 오늘 저녁에 찰떡을 해 먹어야 하는데, 소금장수가 자면 거기도 좀 줘야 하지 않소.”라며 이야기하자, 남편이 자신에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걱정 말고 떡을 하라고 당부했다. 소금장수랑 자신이 사랑방에서 함께 자겠으니, 노가리끈을 한 발 가져다가 내 고추에다 걸어놓고 떡이 다 되었으면 그것을 잡아당기면 자신이 일어나 가겠다고 안방으로 오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소금장수가 밖에서 이런 소리를 다 듣게 되었다. 소금장수와 주인집 영감이 한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떡을 한다는 소리도 들었겠다 도통 잠이 오지 않았다. 주인집 영감은 평소에 코골이가 심해 코뽕뽕이라고 불렀다. 과연 코뽕뽕이는 어느새 잠이 들어서 코까지 골았다. 소금장수가 코뽕뽕이 그것에 걸어놓은 끈을 빼어내 제 고추에다 걸어놓았다.

얼마후 찰떡 찢는 소리가 나더니, 밖에서 끈을 짚금짚금 잡아 당겼다. 마누라는 끈을 바꿔 놓은지 모른채 제 영감에게 떡 먹으러 건너오라는 신호를 계속 보냈다. 코뽕뽕이는 마누라가 깨워줄 것만 믿고 그저 잠이 곤하게 들어 있었다. 소금장수가 가만히 일어나서 밖을 향해 “불 꺼. 소금장수 잠 깨지 않게 내가 들어 갈테니, 불 꺼.”라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주인 마누라는 안방에다 떡을 차려 놓았으니, 그럼 잘 먹으라 이르고 자신은 자겠다고 하였다.

소금장수가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상에 떡이 놓여져 있고, 옆에는 함지박에 콩가루가 담겨져 있었다. 소금장수가 이것이 웬 떡이냐 하는 마음으로 해 놓은 떡을 다 먹고 나오는 길에 콩가루를 한 움큼 집었다. 소금장수는 코뽕뽕이가 자는 입과 코에다가 콩가루를 묻혀 놓은 후에 소금짐을 챙겨 달아났다.

코뽕뽕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부인에게 “아니, 떡은 한다더니,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었다. 부인이 코뽕뽕이에게 거울이라도 보고 그런 소리를 하라며 핀잔을 주었다. 코뽕뽕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떡을 먹은 기억은 없는데, 입가에 콩가루가 범벅이 되어 있으니, 그저 ‘헛것을 먹었나’ 하더랍니다.

군포시 설화 82

노산경로당, 2004년 8월 16일, 이경혜, 女, 81세.

효자와 호랑이

옛날에는 약방이 드물어서 약을 구하려면 장산을 넘어 이삼십 리 길은 족히 걸어 나가야 의원이나 약을 구할 수 있었다. 한 효자가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토사를 일으켰다. 효자가 아버지 약을 구하기 위해 고개 넘어 의원을 찾아가는데, 도중에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다.

호랑이가 큰 입을 딱 벌리고 길을 가로 막고 효자가 가질 못하게 하였다. 효자가 호랑이에게 “나를 잡아먹으려 그러느냐?”하고 물으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목에 무엇이 걸렸느냐고 되물으니 고개를 끄덕이더랍니다. 효자가 “그럼, 내가 그것을 빼내어주면 살려주겠느냐?” 하고 물으니,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효자가 소매를 걷어 붙이고 호랑이 아가리에 손을 넣으니까 여자를 잡아먹었던지 여자의 비녀가 목에 걸려 있었다. 효자가 호랑이 목에서 비녀를 빼내고 나서야 호랑이가 제대로 입을 다물 수 있었다.

호랑이가 고맙다며 절을 하더니, 등을 대고 타라는 시늉을 해보였다. 효자가 호랑이를 타고 쏜살같이 약방에 당도해 약을 지어 나와 보니, 호랑이가 문 앞에 지키고 앉아 있었다. 어떻게 효자의 집을 알았던지 집까지 데려다 주어서 약을 급히 쓸 수가 있었다. 효자가 범도 살리고 아버지도 살려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엿그제 죽어서 장사 지내는 바람에 내가 술도 얻어먹었어요.

노산경로당, 2004년 8월 16일, 이경혜, 녀, 81세.

숫구이 총각

어머니와 아들이 숫장사를 하면서 가난하게 살아갔다. 숫장사를 하더라도 매 끼니 밥 먹기가 어려워서 그저 시래기죽으로 연명을 해 나갔다. 하루는 어머니가 밥을 먹은 지가 하도 오래되어 죽기 전에 쌀밥이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서 “너희 아버지의 유정한 친구 분 가운데 평양 감사가 한 분 계시다. 그곳에 가서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모른 척하지 않고 도와 주실테니, 다녀오도록 하여라.”라고 일렀다.

아들이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친구인 평양 감사를 찾아갔다. 가난하게 밥도 못먹는 형편이니, 몰골도 말이 아니게 형편없었다. 문지기가 지나가던 거지인줄 알고 들어서지 못하게 막았다. 아들이 자신은 거지가 아니며 이러한 사실이 있어서 감사님을 뵈러 왔다고 말하였다. 문지기가 감사에게 고하여 감사를 만나게 되었다.

감사가 친구의 아들의 차림이 남루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하인들에게 목욕부터 시켜 들어 보내도록 하였다. 아들이 목욕을 하고 내어준 솜털 바지저고리를 입고 나니 훌륭한 신사가 되었다. 감사가 아들을 잘 대접하였는데, 아들이 진수성찬을 보자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났다. 그래서 하룻밤만 묵고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감사가 기특하게 여기고 돈 백 냥과 백마 한 필을 주었다. 아들이 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를 건너게 되었다. 그런데 다리 한 가운데서 웬 부부가 서로 죽겠다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사연인즉, 이 마을의 고을 원님이 홀아비인데, 부인의 미모에 반하여 서 그 남편에게 백 냥과 백마 한 필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부인을 제 마누라 삼겠다고 하였다. 부부가 백 냥과 백마 한 필을 구하지 못하여서 남자가 죽으려하면 여자가 못죽게 붙잡고, 여자가 죽으려하면 남자가 못죽게 붙잡고 실랑이를 하는 것이었다. 아들이 부부의 이런 사연을 듣고 자신과 어머니는 숫장사를 해서 그저 근근이 살아가면 되지만 부부의 사정이 하도 딱하여서 부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

는 백 냥과 백마 한 필을 주었다. 부부는 아들이 준 백 냥과 백마 한 필로 위기를 모면 하였다.

어머니는 고대하고 있던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평양 감사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았냐고 물으니, 아들이 집에 오는 길에 있었던 일을 고하였다. 어머니가 “참, 잘했다. 사람을 구하고 봐야지. 너하고 나하곤 또 별면 먹지. 잘했다.”라고 아들을 다독거렸다. 그래서 어머니는 평생 솥장사를 해도 죽는 날까지 시래기죽만 먹다가 그만 돌아가셨다.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불을 켜놓고 앉아있는데, 신령님이 도사로 변하여 장 죽을 짚고 이 집으로 들어오셨다.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하룻밤 묵고 가겠다고 청 하니, 아들이 단칸방에 어머니가 작고하셨으니 주무실 곳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였다. 노인이 그래도 자고 가겠다고 하니, 그리 하라고 하였다. 아들이 노인에게 저녁에 먹은 시래기죽과 남은 술을 대접하였다. 시래기죽을 먹은 노인이 아들에게 어머니 산소 자리를 잘 봐줄게 따라오라고 하였다. 노인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명당을 잘 골라야 좋다. 금시발복할 터로 잡아줄테니 따라오라.” 하니, 아들이 도사를 따라 나섰다. 도사가 산중으로만 가니 어느 장산 꼭대기에 오르자 날이 섰다. 노인이 자신의 담뱃대 끝을 보라고 하였다. 노인이 담뱃대 끝에 보이는 집 가운데 마당에 노적가리가 둘 쌍 여겨 있는데 그 옆에다가 어머니를 모시라고 이르더니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

노인이 그곳에 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면 네가 못사니, 꼭 그곳에 모시라고 신신당부 했으니, 이 아들이 그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저녁 무렵에 도착하여 주인에게 어려운 청이 있다고 하니, 주인이 말해 보라고 하였다. 자신이 저 노적가리 쌓아놓은 사이에 다가 어머니 산소를 쓰고자 한다고 청했다. 주인이 웬 미친놈이라며 내쫓았다. 그런데 이 집 여자가 가만히 아들을 보니 예전에 돈 백냥과 백마 한 필을 준 사람이었다. 은혜를 갚으려고 수소문을 해도 못찾던 사람이었던 사람이었다. 안주인이 아이들을 불러 저 손님하고 싸우지 마시고 이리 잠깐 나오시라 말을 전하도록 시켰다.

사랑에서 남편이 나오자 부인이 “뭇 때문에 싸우시냐?” 라고 물었다.

“아, 저 미친놈이 저이 어머니가 죽었다고 우리 노적가리 쌓은 사이에 제 어머니 묘 자리를 쓴다고 해서 싸우는 중이요.”

“노적가리 쌓은 곳 아니라, 이 방을 내달라고 해도 우리는 줘야 합니다. 예전에 그

이가 우리에게 백 냥과 백마 한 필을 주지 않았으면 죽었을 것이요. 그이 공을 못갚았으니, 갚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후 아들을 안으로 청하여 저녁 대접을 잘하고 묘자리를 쓰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밤으로 어머니 시신을 모셔다가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장사를 잘 치르고 형제처럼 사이좋게 잘 살았다고 한다.

군포시 설화 84

노산경로당, 2004년 8월 16일, 이인순, 女, 86세.

동방삭이 잡은 이야기

* 이야기 구연 도중 약간의 혼동이 있는 듯하였다. 기억이 희미해져서 이야기의 앞뒤가 맞지 않은 듯하였다. 구연자의 혼동을 정리해 정리하였다.

삼천갑자 동방삭을 잡으려고 사자가 한강 앞으로 갔다. 사자가 동방삭이를 놓치고 잡지 못하고 있는데, 동네 노인이 강에 가서 솥을 갈고 있으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알려줬다. 사자가 노인이 말한 대로 한강에 가서 솥을 씻었다. 이것을 본 동방삭이가 이상하게 여기고 “왜 솥을 물에 씻고 있냐?”라고 물었다. 사자가 “솥이 희어지도록 씻는다.”라고 말하자, 동방삭이가 “나는 삼천갑자를 살았지만 솥을 씻어서 희게 되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며 비웃었다. 삼천갑자가 동방삭이임을 확인하고 냉큼 잡아갔다고 한다.

군포시 설화 85

노산경로당, 2004년 8월 16일, 이인순, 女, 86세.

거짓 울음

달기장 나물이라는 게 ‘달기수깨비’라는 것이다. 딸이 이 나물을 말리는데 구둑구둑 마를만하면 물을 퍼서 또 말리고 또 말리길 반복했다. 마침 딸네 집에 와 있던 친정아

버지가 딸이 하는 모양새를 보고, ‘에이, 저 년이 나 밥을 안 해주려고 저러는구나.’
여기고 그저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집에 돌아온 친정아버지가 딸의 행실이 꽤 씹해서 자신이 죽었다고 딸한테 거짓 부
고를 하였다. 기별을 들은 딸이 와서 “말쑥 같은 장아찌에다가 오시 같은 조밥을 잘도
잘도 잡숫더니 아버지 죽음이 정죽음이냐?”하면서 울더랍니다. 아버지가 “에이, 이
년아.”하면서 벌떡 일어나자, 딸이 “아버지 죽음이 정죽음시오? 내 울음이 정울음이
오?” 하더랍니다.

군포시 설화 86

노산경로당, 2004년 8월 16일, 최충순, 女, 70세.

가난한 집 도와준 도깨비들

* 선들산은 무척 큰 산인데, 어려서 노인네들한테 들은 이야기라며 들려주었다.

어떤 사람이 시집을 갔다. 시댁 살림이 어찌나 궁핍한지 시집가서 삼일 만에 밥을
지으러 부엌에 나왔는데, 쌀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그저 물을 끓여서 내갔다. 점심
때가 되어도 달리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어 물만 끓여서 한 그릇씩 내놓았다. 저녁 무
렵에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앞에 실패가 떨어져 있었다. 실패를 제자리에 얹어 놓
고 앉아서 어른들께 대접할 만한 것이 있나 궁리를 하였다.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대
접할 만한 음식이 없어서 그저 끓인 물만 가져다 드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장실
앞에 실패가 연 삼일 계속 떨어져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며느리가 도깨비에게 흘려서 밤새 돌아다니다가 선들산이라는 곳까
지 가게 되었다. 도깨비가 며느리에게 돌을 하나 주면서 맘대로 굴러 보라고 하였다.

집에서는 며느리가 없어져서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며느리가 돌아오자 어디 다녀
왔냐고 물었다. 며느리가 도깨비에 흘렸는지 선들산까지 헤매이다가 오는 길이라고
하였다. 그리곤 가져온 돌을 마루 끝에 놓자, 그 돌이 환하게 빛이 났다.

며느리가 그 돌을 팔아다가 송산리에 땅을 사서 부자로 잘 살다가 엇그저께 죽었대
요.

며느리가 워낙 시부모님 공양을 극진히 한 덕분에 도깨비가 도와준 것이다. 보통 며느리 같으면 그저 맹물을 가져다줄텐데,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탓에 맹물이라도 끓여서 대접한 것이다.

군포시 설화 87

노산경로당, 2004년 8월 16일, 최충순, 女, 70세.

손각시 위해 잘된 서씨 집안

청평담이 생기기 전에 서씨 집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이다. 어려운 집안에 며느리가 강에서 빨래를 하는데, 이만한 동구리가 등실등실 떠내려 오는게 보였다. 며느리가 빨래 방망이로 빨래를 하다가 동구리를 옆으로 비껴 놓으려고 밀자, 동구리가 빨래 방망이에 붙어서 떨어지질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동구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가져온 동구리를 선반에 얹어 놓고 천 등이 생기면 먼저 동구리에 얹어 놓곤 하였다. 이후 집안 살림살이가 늘고 부자로 잘 살게 되었다. 부유하게 아들 딸 낳고 잘 살던 그 부인네가 나이가 들어 죽으니까 그 동구리가 떨어지더랍니다.

동구리가 선반에서 떨어진 이후 집안이 기울어서 그 손주들은 서울로 이사를 갔다. 서울에 간 손주들이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집을 새로 지으려고 집을 헐기로 하였다. 집을 헐기로 한 전날 밤 꿈에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나와서 사흘만 여유를 달라고 청하였다. 그런데 그 사흘 말미를 주지 않고 예정대로 집을 헐었다. 집을 허는데 족제비가 새끼를 세 마리를 낳았는데, 그 집은 아주 홀랑 망했다고 한다.

군포시 설화 88

노산경로당, 2004년 8월 16일, 이원희, 女, 84세.

복 가진 며느리 - 집안의 불씨를 끄는 장담

옛날에 부자로 천석꾼 만석꾼 집이 있었어. 대대로 양반의 집으로 내려오면서, 세

발 달린 화로가 있었다. 세발 달린 화로에 숯불로 밥을 해 먹고 불을 꺼뜨리는 법이 없었다. 몇 대를 내려오도록 불씨를 꺼뜨렸던 사람이 없었다.

구차한 집에서 손주 며느리를 얻게 되었는데, 새 며느리를 얻은 후부터 화로에 불씨가 없어졌다. 그러니 이 며느리가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대대로 내려오던 불씨를 간수 못하니, 시댁에서도 이 며느리를 탐탁치 않게 여기게 되었다. 친정이 어렵게 사는 것도 흠인데다가 불씨도 간수 못하니, 집안이 망하려는 징조라며 걱정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과연 가세가 기울어서 점점 살림살이가 구차해져갔다.

그러니, 며느리가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할 형편이었다.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불씨는 자신밖에 지킬 사람이 없다고 결심하였다. 그래서 잠을 안 자고 불씨를 지키기로 하였다. 밤새 마루 밑에서 지키고 있는데 아무런 기척도 나지 않다가, 닭이 울어 날이 샅 무렵에 웬 장닭이 물을 획 뿌리더니 불씨를 끄고 가는 것이었다. 장닭이 가는 곳을 쫓아가보니, 독을 쌓아서 해놓은 독울타리 속으로 들어가버렸다. 아무래도 이상하게 여긴 며느리가 연 삼일을 지켜봐도 장닭의 행실이 분명하였다.

며느리가 '도통 내가 널 잡아야지 살지. 널 안 잡고는 살 수가 없다. 매일 부싷돌로 밥해야지. 집안은 망해가지.'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장닭을 잡을 궁리를 곰곰이 하였다.

하루는 하인을 시켜서 울타리 있는 곳을 파도록 시켰지만, 아무런 것도 나오지 않았다. 얼마 후 다시 파도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파다보니 돌멩이 하나가 걸렸다. 이상하게 여긴 며느리가 돌멩이를 꺼냈더니, 그 안에 돌멩이가 또 있어서 꺼내는데 모두 세 개가 있었다. 돌멩이를 마루에 놓고 보니, 그곳에서 빛이 났다. 가만히 살펴보니, 마치 금덩이 같았다.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물으니, 아버님이나 할아버지님은 모르시고, 이 양반만 알더랍니다. 이후 잘 살았다고 해요.

군포시 설화 89

노산경로당, 2004년 8월 16일, 이원희, 女, 84세.

벼락 맞은 여자

어떤 여자가 제사를 지내려고 장에 가서 고기를 많이 사다가 밭에다가 걸어 말렸다. 생선을 잘 말릴 생각에 하루만 더 말리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올 듯이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그런데 비는 오지 않고 난데없이 구렁이 한 마리가 나와서 널어놓은 고기 위로 슬슬 기어지나갔다. 산제사를 지낼 제물 고기에 구렁이가 지나갔으니, 큰일이었다. 시골 살림살이에 장에 가서 비싸게 고기를 사왔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거짓말처럼 소낙비는 안 오고 먹구름이 걷혔다. 그래서 이 여자가 고기를 도로 거두어서 장에 내다 팔기로 했다. 장에 내다 놓으니 고기를 잘 말려서인지 사람들이 잘 사갔다. 사람들은 구렁이가 지나간 사연을 모르니 그저 잘 말려진 고기를 사가는 것이었다. 고기를 판 돈으로 생선을 사와서 다시 말리게 되었다.

여자는 구렁이 지나간 고기를 내다 팔아서 새 생선을 사다가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니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갑자기 소낙비가 내렸다. 여자가 급히 고기를 걷으러 마당으로 나왔다. 여자가 바구니에 고기를 담자, 뇌성벽력이 쳤다. 벼락이 여자에게 내려 여자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말렸던 고기도 벼락에 다 터져 버리고 말았다.

예전에 고향에서 실제 있던 이야기인데, 그 여자가 죽고 그 집 사람들은 제도 지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그 이후에는 어찌되었는지 모른다.

군포시 설화 90

노산경로당, 2004년 8월 16일. 김연복, 女, 74세.

미륵당

수원 파장동이란 곳은 광주 이씨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곳에 말하는 미륵당이 있다. 일제 시대에 청일전쟁이 발발하여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전쟁을 하던 무렵이었다. 어느 날 일본 놈이 칼을 들고 와서는 이리 지나가는 중국 사람을 못봤냐고 물었더니, 못봤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러자마자 일본 놈이 그저 “빠가야로!” 하면서 칼을 쳐서 두 동강을 내버렸다.

아이를 못낳는 사람이 미륵당에 불공을 드리면 자식을 낳는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불공을 드리러 가려면, 본인이 한밤중에 가야 영험이 있다고 한다. 깜깜한 밤중에 부정한 것들을 보지 않고 혼자 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갈 때, 집에서 쌀을 씻어 밥을 짓고, 냄비에 미역국을 끓여서 간다고 한다. 그런데, 미륵당에서 덕을 볼 사람은 가는 길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덕을 안 볼 사람 같으면 호랑이 머리나, 개가 보인다고 한다. 그러면 자식이 없다고 한다. 지금도 수원에서 서울로 가는 왼쪽 편에 미륵당이라고 크게 위해 놓은 곳이 있다.

군포시 설화 91

노산경로당, 2004년 8월 16일, 김연복, 女, 74세.

지지대고개

정조왕이 아버지 뒤주대왕을 용주사에 묻고서 오는데, 아버지를 그리는 마음이 그칠 줄 없었다. 아버지가 불쌍하게 돌아가서, 아버지를 장례하고 돌아가는 마음이 가볍지 않았다. 군사들이 돌아가는데 꾸불뚱 꾸불뚱한 고개를 더디게 더디게 갔다고 해서 지지대고개가 된 것이다.

군포시 설화 92

노산경로당, 2004년 8월 16일, 김연복, 女, 74세.

말하는 남생이

옛날에 아들과 어머니가 단둘이 가난하게 산골에서 살아갔다. 아들이 나무를 하러 가는데 눈이 부실 부실 내렸다. 아들이 나무를 하면서, 혼잣말로 “우리는 설도 가까워지는데 무얼 먹고 사나? 나는 뭘 먹고 사나? 엄마하고 나는 뭘 먹고 사나?” 하며 신세한탄을 하였다. 예전부터 눈이 오면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던 사람들은 더 어렵게 느껴지게 마련이다.

아들이 설달그믐께는 되었지, 널 모레 설이 돌아오면 들어가야 할 돈이 많으니 걱정

이 태산이었다. 그래서 “설밥은 떨어지는데 나는 뭘 먹고 사나” 중얼거리는데 어디선가 똑같은 소리가 났다. 이상해서 다시 한 번 “설밥은 떨어지는데 나는 뭘 먹고 사나”라고 하니, 이번에도 어디선가 똑같이 “설밥은 떨어지는데 나는 뭘 먹고 사나”라는 소리가 났다. 이렇게 연 세 번을 해도 똑같은 소리가 반복되어 소리 나는 곳을 찾아 차츰 올라가보니까 큰 거북이 한 마리가 있었다.

이상해서 거북이를 쳐다보면서 또 한마디를 하자, 거북이가 똑같은 소리를 하더랍니다. 아들이 그 거북이를 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을 똑같이 하는 이상한 거북이라고 일렀다.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말을 한 소리를 거북이가 똑같이 내었다.

아들은 장에 거북이를 가지고 가서 돈을 벌어 어머니를 호강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아들이 장에 나와서, “말하는 남생이 보시오. 말하는 남생이 보시오”하고 소리쳤다. 사람들이 아들과 거북이 주위에 몰려들었다. 아들이 남생이에게 말을 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내라고 했다. 아들이 돈을 받은 후 남생이에게 말을 시키자, 남생이가 말하는 그대로 따라하였다.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겨서 돈을 자꾸 내는 바람에 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던 어떤 욕심 많은 사람이 아들에게 그 거북이를 저한테 팔라고 하였다. 총각이 안 된다고 하자, 돈을 얼마든지 줄테니까 팔라고 졸라댔다. 총각이 계속 거절하다가 돈을 많이 준다고 그제 팔기로 하였다.

거북이를 산 사람은 다음 장에 가서 “말하는 남생이 보러 오시오. 말하는 남생이 보러 오시오.”라고 소리쳐서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그만 남생이가 도통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였다.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에이, 이 빌어먹을 놈.”하면서 거북이를 때려 죽였다.

이런 소문을 들은 총각이 다음 장에 가서 거북이를 샀던 사람을 찾아가서 죽은 거북이를 어찌했는지 물었다. 주인이 그저 팽개쳐 두었다고 하기에, 죽은 거북이를 가지고 왔다. 오막살이집에 문을 곳도 마땅치 않아서 부엌 옆에 무덤을 만들어주었다. 얼마 후 무덤에서 나무가 하나 나오더니 그 나무가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자랐다. 나무가 계속 뻗어서 하늘을 뚫는 바람에 천신이 무슨 나무인가 궁금해 내려다보았다. 거북이가 그간의 사정을 말하면서 이 사람이 자신을 도로 찾아와 무덤을 만들어 준 덕분에 하늘을 뚫고 올라왔다고 고하였다. 천신이 거북이에게 총각에게 줄 금은보화를

내려주었다. 거북이 덕분에 총각이 잘 살게 되었다.

군포시 설화 93

노산경로당, 2004년 8월 16일, 김연복, 女, 74세.

못된 시어머니 길들인 며느리

옛날에 늦도록 장가를 못간 총각이 있었다. 그 어머니가 어찌나 극성맞고 심술궂던지 이웃에서 시집올만한 처녀가 없었다. 그런데 건너 마을의 한 처녀가 재가 그 집으로 시집을 가겠다고 나섰다. 친정에서 어떻게 심술궂은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견딜 수 있겠냐며 극구 말렸지만, 자신이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하는 수 없이 중매쟁이를 내세워 그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시집갈 처녀가 친정어머니에게 시집갈 때 쌈지와 곰방 담뱃대를 하나 구해 달라고 청해놓았다. 친정어머니가 뒷에 쓰려고 하는지를 물어도 그저 구해만 달라고 부탁했다.

예전에는 시집을 가면 삼일 만에 시댁 부엌으로 들어갔다. 이 처녀도 시집을 와서 삼일 만에 밥을 지으러 부엌으로 나왔다. 그런데 삼일 만에 나온 새댁이 불을 때면서 담배쌈지와 곰방대를 꺼내었다. 시어머니가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더니 손뼉을 치면서 밖으로 나가면서 “아이구, 세상에. 동네 사람들아! 이런 일이 있느냐? 시집은 지 사흘 된 색시가 담배를 피운다.”라고 소리쳤다.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손에 쥐고 있던 쌈지와 곰방대를 야궁지 속에다가 찹싸게 넣어버렸다. 그러니,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는 그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아이, 시집은 지 사흘 만에 담배 피우는 색시가 어디 있겠냐? 저렇게 사람을 음해한다.”라면서 시어머니를 홍보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기를 꺾으려는 속셈으로 일을 잘 꾸며서 잘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

군포시 설화 94

노산경로당, 2004년 8월 16일, 김연복, 女, 74세.

입에 붙은 표주박

임금하고 신하하고 어느 산을 갔는데 임금이 가다가 말고 “아휴, 목 마르다. 목이 마르니, 어디 가서 물 좀 떠 오너라.” 라고 시켰다. 신하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산골짜기에 물이 있더라요. 지금으로 치면 약수인데, 우선 간 놈이 목이 마르니까 저 먼저 먹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표주박에 물을 담아 임금에게 바쳤다. 임금님이 먹고서 잘 먹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신하의 입이 붙어서 말을 못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너 잘못된 것이 있느냐?”라고 임금이 물으니까, 신하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좀 전에 목이 말라서 물 먹은 죄 밖에 없었다. 그래서 모른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그러자 임금이 신하에게 “이리 오너라. 여기 와서 잘 생각해 봐라.”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반성을 시켰다. “네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입이 안 떨어지는 것이다. 뭘 잘못했는지 잘 생각해 봐라.” 신하가 무릎을 꿇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산속에서 물 한 그릇 밖에 먹은 일이 없었다. 그제야 ‘아 내가 어른에게 먼저 안 드리고 먼저 먹어서 그렇지구나.’ 라고 깨닫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임금이 왜 그런 줄 아느냐고 물으니, 알겠대구 하니깐 그제서야 입이 터졌다. 어른 공경을 먼저 하고 내가 먹어야 하는 법인데, 지금은 시대가 거꾸로 되어 애들 먼저 주고, 어른 나중에 먹는다.

군포시 설화 95

노산경로당, 2004년 8월 16일, 김연복, 女, 74세.

치악산 유래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는데 치악산 부근에 이르렀을 때였다. 까치둥지에 뱀이 하나 올라가서 까치를 잡아먹으려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선비가 그 순간에 활을 쏘서 뱀

을 죽였다. 그리고 선비는 아무일 없었던 듯이 무심히 길을 가는데, 밤중이 되어 머물 곳을 찾았다. 주위에 인가가 보이지 않다가 불빛이 보여 가보니 초가집이 한 채 있었다.

초가집에 가서 주인을 청하니,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왔다. 하룻밤 유숙할 것을 청하니, 그럴 수 없다고 하였다. 선비가 헛간에서라도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달라고 청하니, 그렇다면 헛간에 묵어가라고 허락하였다. 선비가 자신이 지금껏 끼니를 걸렸으니, 밥 먹기를 청하였다. 여자가 그러면 밥을 해주겠다면서 부엌에 나가서 밥을 지었다. 잠시 후 선비가 여자가 지어준 밥을 먹고 나자 온몸에 독이 퍼지더랍니다. 여자가 본래 구렁이의 색시인데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고 도섭을 하고 선비를 기다린 것이었다.

과거를 보러 떠날 선비가 과거는커녕 온몸이 독으로 뚱뚱 붓자, 과거는 포기하고 그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까치들이 선비의 집을 둘러싸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선비가 대청으로 나와 보았다. 까치들이 선비에게 대청에 눕기를 청하는 시늉을 계속하자, 선비가 대청에 누웠다. 그리했더니, 까치 여러 마리가 선비에게 다가와 그냥 찍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선비의 몸에서 물이 나오더니 독이 쏘옥 빠져 거뜨해졌다. 그래서 거기 치악산이라고는 말이 나온 것인데, 까치 치(雉)자를 쓴 거라고 한다. 환자를 다 찍어주고 독물을 다 빼주고 까치들이 밤중에 종을 친 거라고 하네요.

군포시 설화 96

노산경로당, 2004년 8월 16일, 이원희, 女, 84세

삼형제 이야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삼형제를 두었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하였다. 어찌나 형편이 어려운지, 일을 하려고 해도 일거리가 마땅치 않고, 농사를 지으려 해도 지을 농토가 없었다. 도통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낼 재간이 없어서 부부가 늘 걱정이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 삼형제를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너희가 밖으로 나가 돈을 벌래?”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삼 년만 나가 일을 해 볼까요?” 이렇게 의논이 되어서 삼형제가

집을 나서 어느 삼거리에 당도하였다. 각자 갈 길을 정하고 만날 날을 정한 후에 길을 나섰다. 그런데 삼형제가 삼 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저 집으로 돌아왔다. 예나 지금이나 비빌 곳이 있어야 돈을 버는 것인데, 사방에 기벌 곳이라곤 없이 돈벌이가 쉽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삼형제가 그저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땅을 일구자고 결심했다. 하룻동안 물만 마시더라도 때밭을 조금씩 일구어 갔다. 밭을 파면 전답이 되고 아무리 남의 산이라도 파 놓으면 개간한 이들에게 이득이 많으니까 합심하여 농토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었다. 산을 파면 돌멩이가 많이 나오는데, 흙을 파서 나오는 돌을 가져다가 집 주위에 쌓아 놓았다. 매일 땅을 파니, 날마다 돌이 쌓여서 나중에는 오두막집이 꼭 파묻혀서 사람이 나다니는 길만 남겨졌다.

이웃의 부잣집에서 이들 삼형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저 놈의 새끼들은 매일 돌멩이만 나른다고 비웃었다. 그래도 삼형제는 곳곳하게 땅을 파서 농토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부잣집 영감이 이 집 돌담을 바라보니, 평범한 돌담이 아니라 금담인지라. 부러운 생각에 저 담을 어떻게든 차지해야 되겠다고 궁리를 하였다. 결국 영감이 그 돌담을 사기로 마음 먹고, 가난한 삼형제 집을 찾아갔다.

가난한 집에서는 부자가 양반인지라, 갑작스러운 부자의 방문도 놀랍거니와 부자가 꾸벅 절을 하는 통에 놀랐다. “내가 자네 집에 사정을 하러 왔네.”

“무슨 사정을 하러 오셨어요?”

“돌멩이를 다 파소.”

“안 팔아요. 우리 집 담장을 쌓은 돌을 어찌 팔아요?”

“아, 내가 우리집 아무데 밭, 아무데 논을 다 줘세. 그러니까 저 돌멩이 싹 파소.”

아버지가 귀가 떨리도록 반가운 말이었지만, 일단 안 된다고 튕겨보았다. 그랬더니 부잣집 영감이 더 애가 달아서 팔라고 통 사정을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가 못이기는 척하며 부잣집 전답을 받고 돌멩이를 팔기로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다 찍었다.

부잣집에서 머슴들을 시켜서 돌멩이를 가지러 왔다. 그러자 아버지가 큰 아들을 불러서, “저기 저 큰 돌은 우리가 제일 먼저 처음으로 판 돌멩이가 아니냐? 귀한 것이니 그 놈은 줄 수 없다. 가져다 놓아라.”

“가져다 어따 놓으시게요.”

“일단 가져와만 봐라.”

아들이 맨 처음 판 돌을 가져오자, 아버지가 두루마기 자락으로 덮어놓았다.

부잣집에서는 돌멩이를 다 실어갔는데, 가져다 놓고 보니까 반짝하는 것이 없었다. 그저 돌멩이 밖에 없었다. 반짝반짝한 금덩이는 두루마기 안에 있고 그저 헛돌만 사 온 셈이었다. 부자가 가졌던 전답만 잃고 돌만 가져가는 헛수고를 한 거이었다.

이후 가난했던 삼형제의 집은 잘 살았다고 한다. 그저 있다고 자랑 말고 없다고 서러워 할 일도 아니다.

군포시 설화 97

노산경로당, 2004년 8월 16일, 김연복, 女, 74세.

바위 깨친 후 망한 부자

어느 부자집이 아주 매일 손님이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그저 시아버지가 마음이 좋아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밥 먹여 보내는 일을 즐겼다. 예전에는 주막도 많지 않던 시절이라서 길을 가다가 주막을 놓치면 한참을 걸어야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는 사람이 많았다. 배가 고프는 사람들이 밥을 먹고 가기만 하면 재산이 더 늘어났다.

이 부잣집에서 며느리를 한 명 얻었다. 며느리가 마침 집안에 스님 한 분이 오셨기에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부엌살이를 헤어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매일 밥을 지어 손님을 대접하지 않아도 됩니까?”라고 물었다. 스님이 꼭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손님이 뚝 끊어진다고 하였다. 며느리가 제발 그 방도를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스님이 지세를 살피니, 이 커다란 기와집을 마주보고 산이 큰 게 있는데 거기에 큰 바위가 그 집 대문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큰 바위가 부자로 만들어 주는 셈인데, 그것을 세 번만 때리면 손님이 그칠 것이라고 말해줬다.

며느리는 손님 대접이 하도 지겨우니까, 그저 쇠팡치를 가지고 가서 큰 바위를 세 번 때렸다. 그러자 바위에서 피가 주르르 흐르더니, 그 때부터 살림이 줄고 손님도 안 오더라고요.

군포시 설화 98

노산경로당, 2004년 8월 16일, 김연복, 女, 74세.

독장수 구구

독장수가 자기가 꿈을 꾸곤 거지, 지게에다가 독을 짚어지고 만날 “독 사시오, 독 사시오.” 하고 덩겼대. 잠깐 쉬기 위해서 산에다가 지게를 뺏쳐 놓고서는 인제 담배를 한 대 피면서 ‘내가 이 독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면, 큰마누라도 있지만 작은마누라도 얻어 오순도순 살아봐야지, 살다가 만약에 큰마누라하고 작은마누라하고 싸우면 이놈의 걸 다 때려 쥐야한다’고 지게를 받쳐놓은 작대기를 휘두르는 바람에 지게에 있던 독이 그만 다 깨져버렸대.

군포시 설화 99

노산경로당, 2004년 8월 16일, 최충순, 女, 70세.

닭과 개

옛날에 어떤 집에서 닭과 개를 십 년 넘게 키웠어요. 개가 닭한테 가서 “해서방, 해서방.”하고 부르니까, 닭이 “아, 차서방 왔나. 어여 오게. 차서방 말 왔나?” 하면서 말을 주고 받더랍니다. 개는 차서방이고, 닭은 해서방을 말하죠.

하루는 차서방이 해서방한테 마실을 가더래요. 마실을 가서 우리가 며칠 안 있으면 죽을 텐데, 우리가 죽기 전에 주인을 해쳐야 할 텐데. 언제 해치느냐고 묻자, 해서방이 날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럼, 내일 저녁에 우리 주인을 해치자라고 모의했어요.

주인이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섬뜩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죽을테니까, 우리 죽기 전에 저 개와 닭을 잡아 치워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이 가기 전에 개와 닭을 잡으니까 구렁이가 됐어요. ‘개 십년을 안 넘기고, 닭 십년을 안 넘긴다’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군포시 설화 100

노산경로당, 2004년 8월 16일, 김점심, 女, 76세.

혼불

사람이 죽을 때 혼불이 나간다고 한다. 혼은 자기가 묻힐 묘자리를 찾아간다. 여자 혼불은 동글동글하고, 남자 혼불은 덩실덩실한 모양이라고 한다. 혼불이 나가도 삼일 만에 안 죽으면 삼 년을 더 산다고 한다. 혼불은 창구멍으로 나가는데, 그 혼불이 못 나가게 하려고 방문을 막는데, 조그만한 구멍만 있으면 여지없이 나가서 죽게 된다고 한다.

군포시 설화 101

노산경로당, 2004년 8월 16일, 김점심, 女, 76세.

혼을 보는 소

소 달구지로 짐을 실어 나르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소 눈에는 죽은 혼이 보인다고 한다. 겨울에 눈이 많이 쌓였을 무렵이었는데, 소로 짐을 실고 가는데, 솔밭에 이르러서 앞을 나가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다른 소를 끌고 가려고 다른 소를 데리고 와도 역시 꼼짝을 하지 않았다. 예전에 인근 솔밭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전해진다. 소 눈에는 죽은 혼이 보인다고들 하는데, 뭐가 보였기에 가지 않고 무릎을 꿇고 안 간 것이다. 그 전에는 잘 다녔던 길인데도 그날따라 소가 움직이지를 않아서 애를 많이 먹었다. 주변 사람들이 별 일이라며 이상하게 생각했다.

군포시 설화 102

노산경로당, 2004년 8월 16일, 김점심, 女, 76세.

달뫼산, 용당골 내력

옛날에 바위가 걸어가는데 애기 뺨 사람이 바라보는 바람에 그냥 그 자리에서 버렸다고 한다. 그 바위 사이 사이를 달이 떠서 비추는 곳에 절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달피산이라고 부른다.

용달골이라고 하는 곳에는 산꼭대기이지만 물이 차 있다. 그 물에 용이 있었다고 해서 용당골이라고 불린다.

군포시 설화 103

노산경로당, 2004년 8월 16일, 최충순, 女, 70세.

끓는 물 나간다

그 전에 나물을 삶아서 끓는 물을 그냥 시궁창에다 퍼 버렸대요. 그리곤 나물밭에 나가보니, 구렁이가 배추 잎사귀를 떼어 제 몸에다 붙이고 엎드려 있더라고요. 여자가 “아유, 가엾어라. 내가 너를 못보고서 끓는 물을 부어서 네가 대었구나.” 라면서 구렁이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잘못했다.”라며 연신 미안해하였다. 그러자 구렁이가 스르르 어디로 가더라고요. 구렁이가 해코지를 할 생각이었는데, 여자가 진심으로 미안해하자 그냥 가 버린 것이다. 지금도 끓는 물은 그냥 못버리게 하는데, 끓는 물을 버릴 때는 “끓는 물 나간다.”라고 말한 후에 버린다.

군포시 설화 104

다산 아파트 경로당, 2004년 8월 16일, 윤연례, 女, 69세.

청개구리

청개구리가 왜 청개구리냐 하면, 너무 부모 말을 안 듣고 뭐든지 반대로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청개구리 엄마가 유언하길, “이제 내가 죽으면 개울가에 묻어다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머니가 죽자, 이번에는 어머니의 말을 따라 개울가에 묻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제 엄마 무덤 떠내려 갈 것을 걱정해 운다고 한다.

다산 아파트 경로당, 2004년 8월 16일, 배분순, 女, 80세.

우렁각시

엄마와 아들 단 둘이 사는데, 농사를 잘 지었다. 그 총각이 농사를 잘 지어도 함께 먹을 색시가 없어서 한탄하며 “농사가 잘 되어도, 누구랑 먹고 살거냐.”라고 혼잣말을 하였다. 그런데 어디선가 “그러면 나랑 먹고 살어.”라는 소리가 났다. 총각이 다시 한번 “누구랑 먹고 살어.”라고 하자, 이번에도 “나랑 먹고 살어.”라고 하였다. 이러길 여러 번 되풀이하다가 총각이 무엇이 내는 소리인지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커다란 우렁이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하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총각이 우렁을 잡아다가 큰 항아리에 넣어 두었다. 이후 총각이 어디든지 다녀오면 밥상이 잘 차려져 있었다. 총각이 차려진 밥을 먹고 일을 다녀오면 역시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총각이 누가 밥상을 차려놓는지 궁금해 망을 보기로 하였다.

예쁜 처녀가 우렁이 속에서 나와 밥을 지어놓은 후 다시 우렁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총각이 처녀를 붙잡고 함께 살자고 하는 통에 우렁각시는 시간을 넘겨 다시 못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총각과 우렁각시가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

하루는 남편이 아침에 어머니에게 낮에 밭으로 점심을 싸 오시라고 부탁한 후 팔발을 매려 나갔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점심을 가져다 준 사이에 며느리가 혼자 누룽밥을 다 먹을 것이 염려되어 며느리를 밭으로 내보냈다.

며느리가 점심을 가지고 가는 길에 원님 행차를 만나 덩굴 사이에 몸을 숨겼다. 그런데 원님이 길을 가다보니, 덩굴 사이에서 환한 빛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인을 불러, “저 덩굴 속에 빛이 있는가, 살펴보아라.”라고 명하였다. 하인들이 덩굴 사이에 예쁜 각시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각시가 하인들에게 비녀를 쑥 빼주면서 “이것이 비쳐서 빛이 난 것이요.”라고 둘러댔다. 그래도 빛이 계속 나자, 이번에는 반지를 빼주면서 반지에서 난 빛이라고 핑계를 댔다. 결국, 원님이 버선발로 썩아 와서 각시를 가마에 태워 제 집으로 데려갔다. 남편은 아무리 사방을 찾아봐도 각시를 찾을 수가 없어서, 죽어 소꿉새가 되었다. 소꿉새가 되어 각시가 있는 집을 찾아가서 각시

에게 말을 하니, 각시가 “맨들맨들 내 탓이냐? 낸들낸들 네 탓이냐? 네 어머니 누른 밥 탓이다.”이라고 하였다.

군포시 설화 106

다산 아파트 경로당, 2004년 8월 16일, 배분순, 女, 80세.

선녀와 나무꾼

예전에 어머니와 아들이 단둘이 살았다. 하루는 아들이 나무를 하고 있는데, 사슴 한 마리가 급하게 뛰어왔다. 사슴이 숨겨줄 것을 청하자, 나무꾼이 나무 사이에 사슴을 숨겼다. 곧이어 포수가 사슴을 찾자, 나무꾼이 모르겠다고 답했다. 포수가 돌아간 후, 사슴이 나무꾼에게 어디를 가면 선녀들이 목욕을 하러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선녀의 날개옷을 감추고 그 선녀와 결혼하고도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 내주지 말라고 당부하고 돌아갔다.

나무꾼과 선녀가 결혼을 하여 아이 둘을 낳았는데, 나무꾼이 그만 날개옷을 내주었다. 선녀가 아이들을 양쪽 팔에 끼고 하늘로 올라가버렸다. 홀로 남겨진 나무꾼은 마누라가 보고 싶어서 날마다 울고 불며 지냈다. 드디어 하늘에서 박이 내려와 남편이 하늘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남편이 지상에 일이 너무 궁금해서 잠시 내려오겠다고 성화를 하였다. 나무꾼이 친구네 집으로 내려와 밥을 먹고 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못 가게 잡았다. 마침 하늘에서 박이 내려와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이 펄쩍 뛰면서 박을 차는 바람에 박이 나무꾼을 태우지도 못하고 올라가버렸다. 그래서 남편이 장담이 되어 ‘꼬꼬고’ 하는데 그게 ‘박이 웬수다.’ 라는 소리랍니다.

ㄱ 참고문헌

- 경기도, 『지명유래집』, 1987.
경기도·명지대, 『군포 산본의 역사와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1990.
류지호, 『군포시지명유래집, 군포시』, 1999.
군포시, 『군포지사』(지명유래분야), 1999
군포시, 『군포시의 마을신앙』, 2003
김정호, 『대동지지』, 1864(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6).
배우리, 『우리땅이름의 뿌리를 찾아서』 1·2, 1994.
배문식, 『우리 말의 뿌리를 찾아서』, 삼광출판사, 1998.
시흥군, 『시흥군지』 상, 1988.
이명규, 『서울 경기지역 지명 및 방언』, 한국문화사, 2000.
조선총독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912.
조선총독부, 『조선전도부군면동리명칭일람』, 1917.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경기도편) 상·하, 1985.
『京畿道邑誌』 2,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8.
『果川縣邑誌』(京畿道), (光武 3 寫).
군포시, 『군포시지명유래집』, 1999.
『始興郡邑誌』(京畿道), (光武 3 寫 규장각 K2-4252).
果川郷土史編纂委員會 編, 『果川郷土史』 上·下, 果川文化院, 1993.
軍浦文化院 編, 『軍浦金石文大觀』, 2002.
군포시, 『군포시사』, 1999.
明知大學校 博物館 편, 『軍浦山本の 歴史와 文化遺蹟』, 明知大學校 出版部, 1990.
명지대학교박물관, 『산본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990.
박재우 외, 『군포시의 마을신앙』, 군포시, 2002.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시흥군지』, 1988.
시흥군지편찬위원회, 『始興金石總覽』, 始興郡 1988.
시흥시 편, 『시흥의 사람들』, 시흥시, 1999.
이승연, 『시흥의 인물과 행적』, 시흥시, 199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0.

■ 연구용역조사 연구원

- 책임연구원 : 조병로 (경기대 사학과 교수 /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장)
선임연구원 : 김현선 (경기대 국문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이기형 (경희대 국문과 박사과정 졸업)
 고영희 (경기대 국문학과 박사과정 재학)
 이명숙 (경기대 국문학과 석사과정 졸업)
보조연구원 : 박종국 (경기대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조교)
조사보조원 : 이현미 (경기대 국문학과 석사과정 재학)
 권오필 (경기대학교 국문학과 3학년 재학)
 김영진 (경기대학교 국문학과 3학년 재학)
 이가현 (한국예술종합학교 2학년 재학)

■ 편집위원

- 조병로 (경기대 사학과 교수 /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장)
김현선 (경기대 국문학과 교수)
고영희 (경기대 국문학과 박사과정 재학)
이명숙 (경기대 국문학과 석사과정 졸업)

■ 자문 및 검토 위원

- 송윤석 (군포문화원장)
한수교 (전 군포농협 조합장 / 삼성사 이사)
이준상 (삼성사 재무)
이윤주 (서예가 / 군포문화원 부원장)

gunpo 군포시 · 군포문화원

